

수지꿈 이야기

2025년 VOL_9



10년의 빛,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빛을 지고, 한 해를 닫습니다.

수지꿈에서 열 번째 겨울을 맞이합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저는 이곳에서 '세계로'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처음 8년 동안 제 눈에는 오직 아이들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했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제 마음도 함께 힘들었습니다. 저의 시선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아이들이 제 인생의 행복이라 믿으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대표교사라는 무거운 자리를 맡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만 바라보며 마음껏 꿈꿀 수 있었던 건, 힘겨운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제 곁에서 어깨를 내어주시던 동료 선생님들의 헌신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묵묵히 지탱해 주시던 부모님들의 신뢰 덕분이었다는 사실요. 그걸 깨닫는 데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왔다"고 자만했던 시간이 부끄러워집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여러분이라는 거대한 숲 안에서 비바람을 피하고 햇살을 받으며 자라난 나무 한 그루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만 알았던 저를 동료 선생님들과 부모님, 그리고 수지꿈이라는 공동체가 '진짜 어른'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얼마 전, **故 이순재** 배우가 남긴 "신세 많이 졌습니다"라는 말이 제 가슴을 찔었습니다. 그 투박한 한마디가 왜 그리도 사무치게 와닿았을까요. 아마도 저 역시 지난 10년, 여러분께 갚을 길 없는 큰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일 겁니다.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수지꿈!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렸던 저의 10년을 가장 아름다운 화양연화(花樣年華)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받은 과분한 사랑과 깨달음은 앞으로 제가 살아갈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고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수지꿈 가족 모든 분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진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길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지난 10년, 참으로 신세 많이 졌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25년 대표교사_세계로

多事多難 (다사다난- 여러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흔하게 표현되는 사자성어 중의 하나입니다. 올 해는 이 사자성어가 개인적으로 가슴에 가장 와닿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부족함도 많고 어설피도 넘쳤을 25년 대표일꾼인 저에게 올 한해 동안 많은 응원과 힘을 보내 주신 수지꿈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 한해 수지꿈학교는 안으로는 내실을 기하고 밖으로는 학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어딘가 빠드득거리고 잘 끼워진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원활유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몇몇 분들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뜻을 모으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모두는 이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가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로 인해 어려움을 느꼈을 때에도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 해결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을지라도 '우리 모두 고민하고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눴다' 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도했던 일에서는 쉽지 않은 개인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본인을 내던져 주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넉넉치 못한 살림 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와 나눔을 해 주셨던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학교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수지꿈학교는 더 빛이 났습니다.

同氣連枝 (동기연지- 형제자매처럼 뿌리가 같아 서로 연결되어 있음) 앞으로도 우리 수지꿈학교가 유대와 화합이 가득할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의 시작을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많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비루한 대표 일꾼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준 우리 일꾼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진심 고맙습니다.

2025년 학부모대표_산

SUNSET SCHOOL

[HOT ISSUE_수지꿈을 수지꿈답게]

수지꿈학교, 우리들의 연결고리 004

수지꿈의 빛과 같은 존재인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005

대안교육의 꽃, 학년별 개성이 넘치는 프로젝트 수업 006

수지꿈의 여행, 우리가 떠나는 이유 012

네맘내맘?! 앙케이트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다 018

[아이들 이야기]

2025년! 우리 반이 제일 잘나가~ 020

2학기 방과후 프로그램 "더 놀자"! 040

마을의 심장을 두드린 <승무복가락> 그 4년간의 여정 042

우리들의 이상한 겨울, 뜨겁게 뜨겁게 2025년 마무리 잔치! 044

[특집 : 4컷만화 공모전] 만화로 만나는 아이들의 세계 048

[그들이 알고싶다]

2025년 새로이 꿈머들어온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058

따스함의 대명사~ 채송화쌤이자 장세정 작가님과과의 진한 대화 064

남자 졸업생은 없나요? 고학년 1회 졸업생 이강민 선배와 sunset반의 만남 068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졸업 조합원, 한가와와 (원조)엄지를 만나다! 070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만의 보물 073

GOOD BYE 네로가족!

_졸업을 앞두고 앞으로를 열어갈 여러분께 보내는 감사와 당부 078

[함께하는 이야기]

함께함의 시작, 너른 들판에서 펼쳐진 수지꿈 가족운동회 084

Show Me The Money!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086

커다란 귀염둥이 7학년 윤우가 수지꿈학교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088

조올이네의 수지꿈 신호등 이야기 090

아브라 연대기 092

무아투어가 함께하는 여행으로 풀어낸 연대의 맛 096

아빠들은 지치지 않는다! 올해도 업그레이드된 아빠들의 활약상 098

제1회 그레, 달려보자 달리기 대회 100

<당신의 빛으로, 눈이 부시다> 제8회 머내마을영화제 102

같이 할래? 그럼 만들어! 우리들의 소모임 108

Special Thanks to 116

수지꿈학교, 우리들의 연결고리



지나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세계로
세계로~! 우주로~! 미래로~!



하늘
수지꿈의 밥상 마술사



여경샘
반복이 가치를 만든다

수지꿈의 빛과 같은 존재!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프로페셔널한 '하이밍'의 손을 거쳐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으로 변신한 수지꿈의 빛과 같은 존재인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그림_하이밍



해돌이
궁금해? 일단 해봐!



빙그레
나는 이음새다^^



영영
실수가 쌓이면 용기가 되지



우리편
잔잔하고 단단한 몽돌



고고
고고랑 웃고! 신나고! 열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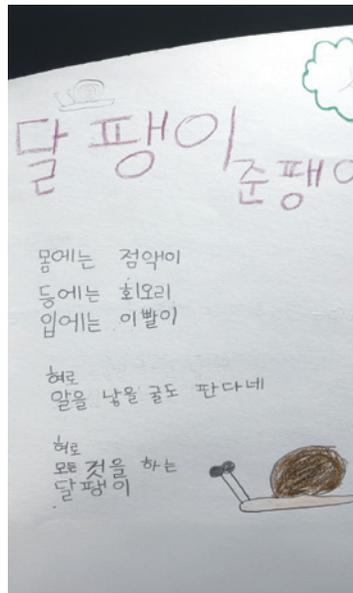
채송화
생긴 대로 있는 그대로 우린 이미 완벽해!

대안교육의 꽃, 학년별 개성이 넘치는 프로젝트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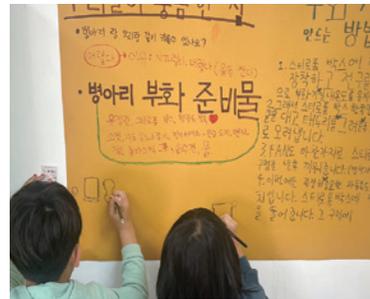
2025년 반마다 펼쳐진 프로젝트 이야기 속으로!

나침반 (3학년)

3학년 주제수업의 주제는 ‘동물’입니다. 머리동물, 몸통동물, 사지동물로 구분해 특성을 알아보고 인간과 동물의 궁극적 차이가 ‘손’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 나눕니다. 이번 주제 수업은 교사 주도성에 방점이 있어 배운 내용을 공책에 정리하고 말과 글 수업으로 연계하여 지도했습니다. 한편, 아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북돋을 만한 것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고민하다 일명 ‘병아리 연대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부화기 만드는 법을 검색하여 준비물을 작성하고 구입하여 시작했습니다. 생협 스티로폼 박스에 전등을 달고 온도계를 넣어 부화기를 만들고 생협 계란을 사와 넣고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이들. 혹시나 부화하지 않을까봐 부화기 한 대를 더 가동시킵니다. 드디어 11월 14일 금요일 밤 10시를 넘겨 ‘축’ 자국이 생겼습니다. 주말이라 학교에 아이들이 없었지만 생명의 탄생이라는 엄청난 신비의 순간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에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상과 사진을 마구마구 보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라고 말한 아이도 있고 병아리의 탄생을 모두 기뻐했습니다.



'동물'
주제수업이란
아이들의 호기심과 자발성이
뒷받침 될 때 빛납니다.



당연히 월요일부터 온 관심사는 갓 태어난 병아리에게 쓸렸고 작명소가 개장했습니다. 이런 저런 좋은 작명 후보들 가운데 ‘빠야기’로 결정! 빠야기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하루 이를 지나면서 날개에서 깃털이 빠조름이 나오는 과정도 눈에 띄고, 병아리 일거수일투족 모두 아이들의 관심사였습니다. 4명이 한 반인데 빠야기는 막둥이였던 게지요. 그렇게 귀염받던 빠야기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얀 면포에 감싸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빠야기의 부활’을 위해 다시 부화기에 넣자는 아이도 있고, 또 죽으면 어떡하냐 그만하자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마무리 잔치 때 무엇을 발표할지 아이들끼리 의논하는 과정에서 빠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시점도 이야기하며 나름 똥똥똥 똥 하고 있습니다. 주제수업이란 아이들의 호기심과 자발성이 뒷받침 될 때 빛납니다. 그 과정을 사진 몇 장, 글 몇 줄로 다 담을 수 없지만 나침반의 주제수업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

럭키반 (4,5학년)

(아이들의 1학기 살림 수업 돌아보기 글, 아이들 대화, 하루 마무리글 에피소드, 수업 의도를 반영해 재구성했습니다~)

럭키반의 첫 지구 프로젝트 시간! 선생님은 ‘수업은 우리의 궁금증과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많이 질문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지구에 대한 여러 질문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진짜 궁금한 질문부터 웃기려고 쓴 질문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지?’부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달갈을 반숙으로 삶아오라고 하셨어요. 왜 삶아오는지 알려주지 않아서 궁금했어요. 달갈 껍데기를 살살 까서 반으로 쪼개어 한참을 관찰했어요. 성분이 뭘지, 생김새는 어떤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지구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첫 시간에 나왔던 질문을 꺼내셨어요. 아! 지구 구조의 내부를 알려고 계란을 삶았던 거였네요. 지구에도 달갈처럼 철과 칼슘이 들어있었다니 신기했어요. 어느 날은 교실 에어컨이 왜 천장에 붙어 있는지 생각해 오는 숙제가 있었어요. 누구는 공부하는 우리 머리가 뜨거워서 식혀주는 거래요. 우리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빨간색, 파란색 색소를 섞어 미지근한 맹물에 섞는 실험을 했어요. 차가운 파란색이 훨씬 빨리 수조의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섞였어요. 그래서 차가운 것은 무겁고, 뜨거운 것은 가볍다고 알게 되었어요.

섞이면서 물에 흐름이 생기는 것이 대류 현상이라고 했어요. 이런 움직임이 지구 속에도 일어나고 있대요. 그 움직임 때문에 물 표면 위 종이가 움직인 것처럼, 우리가 있는 대륙들도 움직인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움직이다가 보니 지금의 대륙 모양이 됐구나!

마지막에는 살림 마무리 프로젝트 회의를 했어요. ‘배움을 어떻게,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로 반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지구 교실’을 운영

배움 나눔 교실 지구편
수업은 우리의 궁금증과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하기로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어린 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대망의 지구 교실 날! 처음부터 고학년 선배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바짝 긴장했어요. 나보다 많이 알고 있을 텐데, 틀리면 어떡하지? 그래도 선배들은 잘 들어주고 우쭐 리액션도 해줬어요. 다음 팀으로는 2학년 친구들이 왔는데 선배들과 한번 해보고 나니 마음이 편했어요. 애들이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설명을 계속 다시 했어요. 누구는 목이 아팠대요. 그래도 동생들이 재미있어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퀴즈와 상품도 있었는데 작은 것인데도 다 좋아했어요.

조별로 지구 교실을 준비할 때는 귀찮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다 같이 마무리 하고 나니 뿌듯했어요! 협력이 꽤 잘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은 가깝은 것이 있어도 내가 설명했던 부분은

잘 기억나요.

살림 수업은 ‘과학’ 수업 같기도 하고 ‘사회’ ‘말과 글’ 같기도 해요. 시끄러워서 쉬는 시간 분위기가 날 때도 있고... 경계를 모르겠어요. 글 쓰는 시간은 지루할 때도 있고 팔이 아파서 싫었지만 다 쓴 공책을 보면 뿌듯하긴 했어요. 살림 수업에서 반 애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가장 좋아했던 시간은 바로 ‘실험 시간’이에요! 실험은 그냥 다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제는 뭘까?? 🌈

햇반 (4,5학년)

말과 글 시간에 아이들과 그림책을 읽고 맛보며 자신만의 그림책을 창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글과 색, 선과 프레임, 그림책이 가진 물성이 주는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찬찬히 경험한 뒤 스스로의 색과 선과 이야기를 찾아보면 상상력이 확장되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글과 그림이 상호 보완되거나 서로 대립되는 그림책, 글 없는 그림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상력의 방향에 따라 선과 색과 프레임의 크기와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림 하나하나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맛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야심차게, 온 정성을 기울이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도, 그림을 꾸준히 그리는 것도 벅차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달 이상 꾸준히 작업한 결과 저마다의 개성이 드러난 그림책이 탄생했습니다.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

어제의 나와는 조금은 다른 내가 되었을 거예요. 처음 나선 길, 끝까지 함께 걸어가 보았으니까요.

여울이는 글 없이 풍선의 자유롭고 발랄한 상상력을 수채화로 표현하였습니다. **호연**이는 좋아하는 색종이 접기를 활용해 꿈틀이의 성장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유안**이는 아크릴화의 선명한 색감으로 색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담았습니다. **이안**이는 점의 확장성과 변화를 자유분방한 연필의 질감으로 표현하였고, **익**이는 무채색의 절제된 색감으로 밤의 책상을 환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의준**이는 해리포터의 삼 형제 이야기를 자신만의 그림과 표현으로 다시 썼고, 얼음의 속성을 어린 아이들이 알기 쉽게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했습니다. **봄**이는 수지꿈 축구 여제답게 좋아하는 축구공을 소재로 사람들의 발에 차이는 축구공의 심정을 다채롭게 표현했습니다. **이현**이는 바닷속 고래에게 일어난 특별한 경험을 빨강의 이미지를 살려 사랑스럽게 표현하였으며,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마지막 장의 재치도 돋보였습니다. 만화를 좋아하고 잘 그리는 **소은**이는 음료 목욕탕에서 벌어지는 엉뚱하고 즐거운 상상에 유머와 반전을 더해 재미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결**이는 마법 나무의 열매가 다친 고양이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따뜻한 색연필의 감성으로 개연성 있게 그려냈습니다. **지민**이는 비행기를 타는 것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여행 과정에 몰입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만화 형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채현**이는 꿈을 찾아가는 눈사람의 여정을 개성적인 캐릭터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자신의 상상력을 선과 프레임, 글을 통해 자연스럽게 활발하게 이어가는 힘을 기르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과정만으로도 배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림책 만들기를 통해 햇반 친구들은 이제 어제의 나와는 조금은 다른 내가 되었을 거예요. 처음 나선 길, 끝까지 함께 걸어가 보았으니까요. 잘 마무리해 준 햇반 친구들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최고!!!^^

우노땅공반 (6학년)

진희의 어류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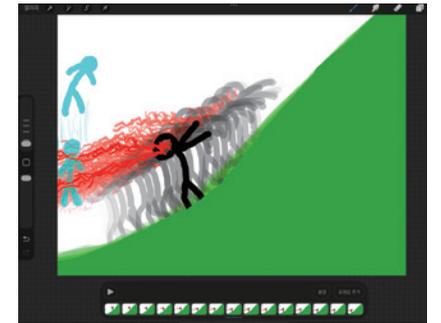
처음에는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싶지 않았다. 해야만 하니,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나마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좋아하는 낚시와 사진 찍기를 융합한 어류도감을 프로젝트 주제로 선택했다. 개인프로젝트 10주의 과정 동안 실내 낚시터도 가고 바다낚시도 하면서 참돔, 랍스터, 우럭 등을 잡았다. 잡은 물고기를 사진 찍고, 편집 프로그램에 물고기, 사진, 설명 등을 합쳐서 어류 도감을 만들었다. 낚시는 좋아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것은 어려웠다. 어류 도감 만들기를 위해 내용을 요약하고 정보를 모으는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다. 책은 쉽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개인별 프로젝트

어려워도 계속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쉬워졌다. 책은 쉽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유담이의 애니메이션 만들기

사촌 형이 알려준 '프로크리에이트(Procreate)'라는 앱으로 애니메이션을 대충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었다. 즐겨보는 스틱맨 애니메이션과 비슷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도전했다. 플라맨의 행동을 구상해서 움직이게 해 봤다. 보통 5초 정도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20~30분 정도가 걸리는데,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쉽게 되는 부분도 있다. 지금까지 총 3편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내용은 주로 싸우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귀찮을 때도 있고 흥미롭기도 했다. 어려워도 계속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쉬워졌다. 나중에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지민이의 음식 미니어처 만들기

원래 만들기를 좋아했는데 미니어처 만들기를 통해 실력도 높이고 경험치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았다. 폴리머 클레이라는 재료를 사용했는데, 이 재료는 매우 단단하고 먼지가 잘 묻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만들기 재료로는 장점이 많지만,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폴리머 클레이를 부수고 합치는 과정을 많이 반복해야 부드러워진다. 처음에는 초밥을 만들었다. 우선 음식의 디테일을 구상한 후, 대충 형태를 잡고 음식의 이미지를 검색하고 관찰하면서 완성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액상 목공풀을 발라 광택을 내주면 완성된다. 참치, 계란, 한우, 새우 초밥을 만들었고, 이후 다른 음식들도 만들어보았다.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관찰력을 키우고 폴리머클레이와 아이클레이의 차이점에 대해 알게 되었다.

7칠반 (7학년)

진로와 삶 프로젝트

- 나 이해 활동
- 학교 탐방
- 직업 탐색



- 1)나 이해 활동 : 자신을 돌아보고 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학과 직업 탐색
- 2)학교 탐방 : 진학과 관련한 학교 조사와 탐방 활동
- 3)직업 탐색 : 직업 조사와 직업인과의 인터뷰를 통한 직업 탐색 



논농사 프로젝트

논 만들기부터
벼 추수까지
한 해 논농사 경험

역사문화 프로젝트

- 해방후부터
6공화국까지
역사 파헤치기,
역사 탐방하기,
인물 조사하기



sunset반 (8,9학년)

나는 프로젝트를 끝내고 후련하면서 공허했다. 오랜 시간을 투자했는데 마지막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끝난 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아직도 다음 섬이 있는 것처럼 생활한다. 섬을 돌아다니며 한번 보물을 찾으려 기억하며 여행을 총 2번 하게 되어서 미래에도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보물을 찾는 여행은 추억만 남는 여행이 된다. **_남연후**

여행이란 단순히 낯선 장소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 자신을 마주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설레고 감동하는지를 알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루질과 낚시, 사람과 분위기, 해수욕과 자연, 그리고 여행 속에서 만난 작고 특별한 순간들이 모두 제 마음속에 반짝이는 '보물'로 남았습니다. 삶이라는 긴 여행 속에서 이런 보물들을 발견하고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다는 기쁨. 그것이 이번 섬 탐방이 제게 준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_김승현**



선셋반의 다섯별들!! 

섬 프로젝트

고동도, 덕적도, 진도, 울릉도, 독도, 섬티아고

섬 탐방을 처음 했을 당시에는 2주에 한 번 여행을 가야 해서 그리 좋지 않았는데 2~3번 다녀오니 자동차 아니면 배에서 늦잠 잘 수 있고 섬 여행하며 낚시도 하고 바다에서 수영도 해서 너무 좋았다. 하지만 마지막 여행까지 마무리한 지금, 이전 여행이 없을 거라 생각하니 뭔가 조금 슬프다. 갈 때마다 매우 좋은 추억을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여행이었는데 이전 못 갈 거라 생각하니 너무 아쉽다. **_장은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낚시도 하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수다를 떠는 것, 섬에서 보는 별들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즐거웠다.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해보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는 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 특히나 독도를 간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살면서 독도에 갈 일은 별로 없으니 잘 갔다고 생각한다. 또 해루질도 평생 안 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해서 좋았다. 다음에도 여행을 가는 게 프로젝트였으면 좋겠다. **_박하운**

이번 프로젝트를 무려 다섯 번이나 여행하는 거로 정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놀고 오면 될 것이라 생각해 마냥 신나기만 했다. 하지만 실제로 놀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었고, 생각과 다르게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본 것은 좋았지만, 여행만 하는 것도 노는 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프로젝트였다. **_김조희 **



수지꿈의 여행 우리가 떠나는 이유

2025년도 여행으로 가득했다. 이 흐름 속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든든한 동반자 선생님들과 8년차 베테랑 여행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우리, 왜 떠나는 걸까요?”

인터뷰_비아, 산뜻 글_산뜻

첫 번째 인터뷰 고고쌤, 지나쌤, 비아, 산뜻

기억에 남는 여행=가장 고생한 여행?

고고 저는 걷기여행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도 1학년 아이들도 처음이었거든요. ‘걷기여행’하면 이름에서 주는 고난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함께라서 즐겁게 이겨냈어요. 1학년 부터 5학년까지 모두 한 줄로 발맞춰서 걸었고, 플로깅을 하면서 지구를 지켰다고 뿌듯했죠. 아이들이 힘든 것보다는 성취감을 더 많이 가져간 여행이었어요.

지나 21년도에 코로나 막 끝났을 때, 6~9학년이랑 갔던 여행이 제일 재밌었어요. 출발 직전까지도 코 찌르고, 여행 일주일 전에 갑자기 선생님 한 분 그만 두시고,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차도 없이 다 들고 걸어야 했던 여행이라 한 달 동안 준비도 엄청나게 했어요. 가방에 책 넣고 정상까지 갔다 오고, 주말마다 걷기 과제 주고, 덜 걸었으면 학교에서 더 걷고. 그렇게 준비가 잘 된 여행이었어요. 첫날이 산길에다 식재료도 있으니가 가방도 되게 무겁고, 진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즐기면서 열심히 견뎌내고요. 도착했을 때 그 희열이! 되게 허

름한 숙소였는데 왔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해서 ‘그래, 진짜 개고생해서 가면 어딜 가도 이렇게 좋은 거구나.’ (웃음)

고고 고생한 만큼 기억에 남는.

지나 맞아요. 아이들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원래 여행, 고생해야 재밌는 거다? 여행에서 즐겁잖아? 그러면 기억에 안 남아!”

수지꿈 여행의 흐름

지나 하지만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고생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 여행은 그냥 놀러가는 게 아니라 연습인 거죠. 21년 여행도 아이들이 1학년부터 쌓아온 게 없었다면 그 어려운 환경을 절대 못 견뎠을 거예요. 모든 학년에서 여행의 흐름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장을 고려한 거예요.

산뜻 구체적인 의미가 궁금해요.

지나 초등 여행은 학교살이로 시작해요. 처음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자는 거니까 익숙하게 오던 학교에서 시작하는 거죠. 다른 학년들과 팀으로 합을 맞춰



보는 경험에 포커스를 둡니다. 여름 들살이는 물놀이를 가요. 두 번째 여행은 어딜 가도 괜찮는데 그게 걷기 여행이면 아직 어렵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좋아할 만한 물놀이라면 다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다음에 반살이, 걷기여행을 격년으로 가요. 작년부터 반살이를 시작했는데, 분리된 여행에서 중학년은 동생들 케어할 필요 없이 자기들 것을 짊어지고, 저학년도 자치적으로 해볼 수 있어요.



지나 저학년 때는 분위기에 맞춰서 즐기는 것 자체도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더 깊게 싸우기도 하고,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남아서 풀어야 하니 어렵죠. 나름대로 대응을 하면서 배워요. 그 과정이 있어야 중학년 때 조별모임 리드도 해보고 안 되는 건 선생님한테 기대도 보면서 스스로의 힘을 기를 수 있어요. 그런 게 차곡차곡 쌓여야 고학년 때 여행 계획을 스스로 짤 수 있는 거죠. 이쯤 가면 체력이 떨어질 거라는 것도 알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논다’고 계획해도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행이 가능해지죠. 그 최종 끝판왕이 즐겁고 여행이구요.



고고 여행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제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준비물로 ‘용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1학년은 막 울면서 ‘선생님, 준비물을 안 갖고 왔거든요. 용기를 챙겨오지 않았거든요.’ 해요. (일동 웃음) 아이들한테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여행이에요. 가족여행이랑은 완전 다르죠. 지퍼 잠그는 것부터 멀미까지, 맞닥뜨리는 모든 게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게 아이들에게 계속 쌓여요. 학기마다 학년마다 쌓이고, 형 누나들 하는 거 보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크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편한 여행 vs 힘든 여행

지나 아이들이 자기 욕구 조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게 여행에서 느껴져



요. 단호하게 네가 해야 하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 반응이 달라졌어요. “왜 이걸 우리가 해야 해요?”하는 반응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편리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쌓아왔어요. 학교에서 한순간에 다르게는 안 되거든요. 좀 더 나아가도록 계획했다가도 어쩔 수 없이 강도를 낮추는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여행이 좀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쾌적한 여행에 대한 학부모의 니즈도 간접적으로 알게 되면서 세대가 바뀌었나보다 체감했어요. 제가 세대를 운운할 나이는 아니긴 한데.(웃음)

비아 그래도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변화를 느끼시나요?

지나 네. 예를 들어 휴게소 문제도 신경 쓰게 됐어요. 이해가 되는 건 요즘 하도 사건사고가 많잖아요. 가족여행과 다르게 학교 여행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이 더 커지니까 아무래도 더 보수적으로 되죠. 사회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의 욕구 조절 경험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는 않고 학년에 따라 조금씩 욕구 조절 경험을 하고 오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비아 고생한 여행이 기억에 남으니까 한
다, 이런 이유만이 아니라 자기 조절력
과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도 있겠네요.
고고 공동체 생활에서는 내 주장만 할
순 없으니까 자기 욕구 조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불편함을 좀 느끼고 알아
야 지금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 감
사할도 느끼고요.



수지꿈 여행의 전통?

비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대안
학교의 여행은 강도가 훨씬 세더라고
요. 예를 들어 자전거 국토 종주를 위해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우리 학교는 몇
학년이 이걸 해'하는 상징적인 게 있으
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부모들마다 의견차가 커서 꼭 그렇게 하
자는 건 아니고요.

지나 반 상황이나 교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같이 만들어나가는 준비 과정
없이 '이런 전통이 있으니까 누가 오든
지 이걸 하세요'가 되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 섬 프로젝트 여
행처럼 그해 반 구성을 바탕으로 논의
한 여행을 지지해 주는 게 좀 더 (성취

를) 복돋아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아 수지꿈스러운 것 같아요. 학년마다
목표를 전통으로 정해놓는 게 우리
학교랑 안 어울리긴 하네요.

지나 교사나 여행의 흐름이 더 잡히면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도 충분히 전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더 원대한 여행을 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있는
것도 종종 안... (일동 웃음)

조별모임, 꼭 해야 하나요

지나 수지꿈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동체'인 것 같아요. 여행
에서 즐겁고 어려운 모든 순간들이 결국
공동체에 대한 경험으로 연결돼요.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스
며드는 경험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비아 조별모임이 여행보다 더 힘들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항상 조별모임을 해
야 하지? 한 번은 안 해도 되지 않나?
근데 없으면 안 되겠네요.

지나 사실은 모든 수업이 그래요. 재밌
는 것만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게 재
밌으려면 재미없는 것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조별모임인 것 같아요. 여행

가서 장기자랑 볼 때는 다들 너무 재미
있게 보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그전에
조마다 한 명씩은 울고 하루 마무리에
막 욕 쓰고 별의별 일이...



지나 조별모임 때문에 여행 가기 싫다
는 얘기를 계속 저희한테 해요, 마치 없
애달라는 것처럼. 그러면 잘 들어주면
서 속으로는 '그래, 이러니까 계속해야
겠다' 하죠.(웃음)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애들도 안 힘든 건 아니에요. 그걸 계속
봐야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스트레스거
든요. 그럼에도 뭔가 어떻게든 잘 풀렸
다는 걸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어
떻게든 해결되었다.

고고 어떻게 해결했느냐도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도 배우죠.

지나 애들이 힘들었던 걸 얘기하면 저
는 최대한 잘 기억하려고 하는데, 나중
에 5학년 됐을 때 뭐가 힘들다고 하면
"너 1학년 때 그랬어."하고 얘기해요. 그
러면 아이들이 "아, 그러네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비아 뭔가를 꾸준히 하니가 좋네요.

지나 여행이야기 때마다 제가 조별모임
을 말하는 이유가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억울한 일
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게 조별모임을
하는 이유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예요.



그 억울함을 혼자 끄고 집에 가서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해야 '나중에 학교
에서 이거 한번은 말해야지'라는 걸 느
낄 수 있거든요. 집에서 그런 마음으
로 "그랬구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아이가 학교 와
서 또 해봐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조
를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아이는
그 경험을 박탈당하는 거죠.

수지꿈 여행이 나에게 남긴 것

고고 평소에는 각 반 일에만 몰두해 있
다가 여행을 가면 선생님들하고 하루중
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한 팀이 돼요.
서로 얘기를 안 해도 눈치껏 톡톡 흘려
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라는 걸 느껴요. 교사한테도 되게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학교에 일이
있을 때 해돋이, 빙그레, 영영 선생님들
모두 달려오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진

짜 가족 같아요. 그냥 수지꿈의 가족이
되어버린 거죠.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
진 끈끈함으로 이렇게 든든한 선생님들
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지나 개인적인 여행을 할 때, 수지꿈 여
행의 경험이 저한테 큰 도움을 줬다고
느껴요. 어쨌든 애들을 위해서 했던 건
데 자연스럽게 저도 애들의 배움을 똑
같이 배웠어요. 애들에게 고민만 하기
보다는 일단 한번 해보자고 항상 강조
하는데, 말로만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거
든요. 그런데 애들이 정말 일단 했을 때
결국은 다들 해나가는 걸 보면서 '그래,
이 아이들처럼 내 삶도 일단 도전해보면
결국 어떻게든 흘러가게 되어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수지꿈다운 여행이란?

비아 감사합니다. 이거 하길 잘한 것 같
아요. 수지꿈다운 게 뭘까 고민하다가

여행 얘기가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여
행? 항상 가는 건데 그게 왜?'라고 생각
했는데, 신입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행
이 수지꿈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적인
점이 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지나 대안학교 교사 연수 때 여행 얘
기 나왔는데 어떻게 매번 모든 학년을
섞어서 하냐고 하세요. 같은 학년끼리
가면 훨씬 편한데 왜 굳이 1학년까지 섞
냐고. 다른 학교는 한 번 정도만 학년 통
합 여행을 하고, 조별모임 하면서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경우도 없대요. 되게 신
기했어요. 우리 학교만 이렇게 해왔던
거구나. 다른 학교는 학년에 맞춘 뭔가
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우리 학교는 공
동체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모든 학년이 섞여서 활동을 만
들고 그걸로 아이들이 오후 시간을 책
임지잖아요. 그게 수지꿈학교의 여행
색깔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인터뷰

조희, 하은, 비아, 산뜻

고생하는 여행

조희 6학년 때 걷기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때 이후로 걷기여행이라는 존재가 정말 싫어졌거든요. 4박 5일 동안 90km를 걸었어요. 그때 체력도 제일 안 좋았고, 진짜 추웠어요. 얼어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뒤로도 몇 킬로를 더 걸어야 되네요.

산뜻 제일 힘들었던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네요? 고생하는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여행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어요. 1학기 때 산타기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정말 힘든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조희 저는 해보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하면 싫고요. 걷기여행 일년에 한 번 정도?

하은 걷기여행 가면은 서로 되게 끈끈해져요. 저희 반끼리 여행을 가면 그 친구들의 못 보던 모습, 그 밑바닥까지를 볼 수 있어요. 그건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소식지에 꼭 넣어주세요.

스스로 세우는 여행

하은 1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짜주신 일정대로 움직이고 그냥 언니 오빠들 따라해서 뭐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희가 지는 책임도 많아지고 계획하는 것도 많아졌어요.

조희 작년까지는 그냥 아~ 이러면서 따



라갔는데 이제 교통, 식당도 저희가 조사해야 돼요. 저희가 머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더 많이 시키시는 것 같고, 그걸 하는 것도 생각보다 재밌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안 고르는 건 대중교통 조사.

하은 대중교통 조사는 시간대까지 다 일일이 맞춰서 조사하고 몇 번을 갈아엎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조희 걷기여행은 휴대폰을 못 써서 많은 것을 저희 머리로 가야 돼요.

하은 지도를 일일이 그려서 가요.

산뜻 어른들은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런 능력을 다 잃었어요. 역할이 달라지면 스스로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은 그 당시에는 못 느끼는데 주변에서 되게 많이 말해주고,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막 자연스럽게 들어요.

조희 근데 저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장비발로 승부해요. 걷기여행

때 선풍기를 들고 가고, 신발을 두 켤레 가져가요. 그러면 그게 고장난 친구들에게 줄 수 있어요. 제가 편하려고 가져갔다가 다 남한테 주고 와요.

가족여행 vs 수지꿈 여행

하은 들살이나 반살이를 무계획으로도 가고 싶어요.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게 힘든 여행, 성장하는 여행,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엔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여행 가고 싶어요.

비아 그건 가족들이랑 가고...

하은 (단호) 안 돼요.

산뜻 가족들이랑 말고 학교에서 가면 뭐가 달라요?

하은 친구들이랑 가면 더 시골벽적이고 외롭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생길 거고. 변수가 생겼을 때 또 어찌어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들도 기억에 많이 남고.

산뜻 거기서도 배우는 게 있겠네요.



하은 네, 맞습니다. 엄마 아빠랑 가면 다 (해결을) 해주니까.

조희 여행을 가서 새로운 거를 많이 해 볼 수 있잖아요. 이번 섬 프로젝트 여행 가서도 낚시도 해보고 해루질도 해보고, 진짜 어려운 걸 많이 했어요.

비아 만약에 가족들이랑 가서 엄마 아빠가 하자고 해서 했으면?

하은 안 했을 거예요.

조희 저희 엄마 아빠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두 시간 동안 낚시대를 잡고 앉아 있고, 새벽에 나가서 조개를 잡고, 이러한 일을 할 것 같아요.

하은 근데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가끔씩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정말 힘들어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공격을 당하긴 해요.

조희 그냥 저희가 착하다는 거를 좀 써주세요.

수지꿈 여행이 나에게 남긴 것

하은 여행을 가면 여기서는 느낄 수 없는 걸 많이 느껴서 되게 재미있어요. 제가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행 가서 해봤거든요. 여행에서 우연히 자기 진로를 찾을 수 있다.

조희 낚시꾼이 진로야? (일동 웃음)

산뜻 세계로가 이렇게 쓰셨어요. '배움의 길은 교실 너머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학교 밖의 여행은 삶의 교과서 속에서 진정한 배움을 찾는 여정입니다.' 공감하는지, 지금까지의 여행에서 뭘 좀 찾았는지 궁금합니다.

하은 찾은 건 없지만 배운 건 정말 많아요. 그냥 교과서로 배우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몸소 느끼니까 더 공감이 되고 더 크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희 저희가 음식을 되게 많이 가려요.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먹게 되고, 하기 싫은 것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걸 하고 오면 또 재밌어요. 수지꿈 여행이 제게 남긴 것은, 싫은 것도 해볼 수 있는 것.

하은 저는 친구의 소중함을, 조.희.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힘든 걸 해봐야 사람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도 알았고, 힘든 게 기억에 남는다는 게 진짜 짜라는 걸 알았어요.

조희 힘들면 정신이 나가지 않아?

하은 평소에는 오르막길 조금 올라가면서 '아, 죽겠다' 했는데 여행 가면 진짜 죽겠다 싶지 않아? 그런 거 많잖아.

비아 이런 식으로 여행 안 해본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뭔가 끌어갈 수 있겠다는.

하은 (0.1초만에) 네.

조희 내가 짱이다. 근데 계획 짜는 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비아 잘할 것 같은 애가 있으면 애를 시키면 되겠다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앞서서.

조희 시킬 대상 정하는 건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은 똑바로. 크면 좋겠습니다. 아니아니... 바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정리하며

고백하자면 수지꿈 입학을 고민했던 이유 중 하나가 걷기여행이었다. 나도 못할 것 같은 고생을 굳이 아이에게 시켜야 할까? 그런데 수지꿈 여행을 하나씩 다녀올 때마다 아이는 훌쩍 자라 있었다. 굳이 떠나는 이유가 있는 것도 같았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확신했다. 이렇게 나의 성장을 지켜봐주고 기억해주고 함께 걸어주는 이들과 함께라면, 여행? 가야지! '수지꿈다운 여행'은 함께라서 고생하고 함께라서 즐거운 여행이 아닐까. 앞으로의 모든 여행과 고생,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네맘내맘?! 앙게이트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다

매력이 통통튀는 수지꿈 아이들의 엄마들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까요~~

글_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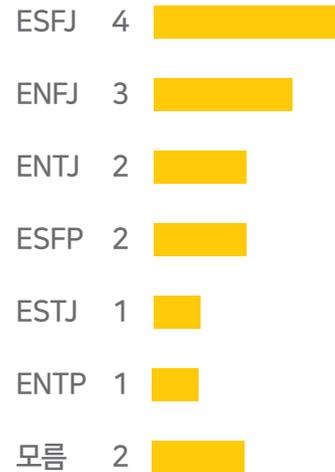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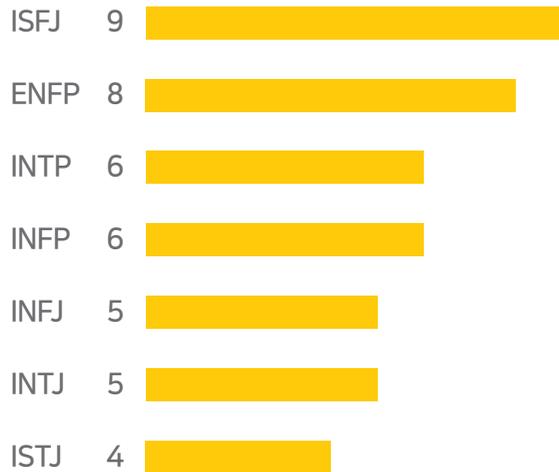
엄마들의 MBTI는?

수지꿈 엄마 중 58명이 답해주셨어요~

1등은 ISFJ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소리 없이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며, 책임감과 따뜻한 헌신으로 소중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는 '조용한 수호자'라고 합니다." **2등은 ENFP** 이고 "반짝이는 호기심으로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불어넣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3등은 INTP "자신만의 논리 체계 안에서 세상의 원리를 끊임없이 분석하며, 지적 호기심을 따라 탐구하는 '게으른 천재적 분석가'입니다." **INFP**는 "나만의 깊은 가치와 신념을 소중히 여기며, 타인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상상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낭만적인 이상주의자'입니다."

*특징 출처 : 구글 Gemini



내가 생각하는 '수지꿈다운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수지꿈다운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는 설문엔 정말 다양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학교의 대표 슬로건인 '행복한 자유인'의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답변들

도 많이 나왔는데요, 아래 도표에서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상한 대로 나온 답변들도 있었고 '아! 그렇지~~,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크게 재정

적인 부분과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답변해주셨고 수지꿈 학부모들의 마음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공**





sunset반 (8,9학년) _ 해들이



**2025년!
우리 반이
제일 잘 나가~**

개성만점!
매력만점!
아이들 반으로
지금 출발~!!!

GO!
GO!



김승현



sunset반 을 소개합니다! _ 김조희

김승현 오빠는 9학년으로 학교에서 최고 학년이지만 혼자남은 1인입니다. 김승현 오빠는 가끔 8학년들에게 잔소리와 끈대처럼 느껴지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누구도 주의 깊게 듣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끔은 김승현 오빠에게 '야'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 반 8학년들과 똑같이 장난치고 친구들 놀리기에 열심일 때입니다. 김승현 오빠는 축구에 진심입니다. 본관이 좋은 이유가 축구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다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발목이 아작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축구를 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서인지 체력은 좋고, 축구도 잘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항상 노래를 열창합니다. 특히 여행 중 차 안에서 모두 잠을 자도 혼자 고독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모든 것에 지치지 않는 것이 신기한 인간입니다.

가끔 기계체조를 다니는 것인지 무술을 다니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아무래도 기계체조를 더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박하온은 일본어를 조금 하고 있는데, 가끔 하온이에게 글자를 배우는 것도 재밌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인 친구가 생겼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박하온



남연후



남연후는 친구들을 놀리고 장난치는데 재미가 붙어버린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떻게든 놀리려고 애를 씁니다. 가끔 정말 짜증 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남연후는 요즘에 달리기를 합니다. 이전보다 좀 체력이 느니까 자신감이 너무 올라온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남연후는 여러 가지로 쓸데없는 자신감이 과하다고 느껴집니다. 굳이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가지면 안 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인간입니다. 특히 무언가를 평소보다 잘했을 때 자신감이 하늘을 넘어 우주 끝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자랑할 만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단 한 번 영어를 전보다 한 개 더 외웠으면 잔뜩 신나는 인간입니다. 그럴 때 난리 치는 것이 남연후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피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김조희



김조희는 하온이의 의견을 보니 이상한 사람인 거 같습니다. 목소리가 하이톤이고, 청력 테스트 기계음 같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잘하는 건 그림 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물고기라고 합니다. 우리 반 인간들은 김조희를 사랑보다 어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조희는 물고기를 닮았다고 합니다. 하온이는 특히 앵무고기를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라는 별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동의는 못 하지만, 2학기 때는 쪽 물고기 취급을 당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김조희는 우리 반 인간들에게 잘 낚이고, 속으면서 지냅니다. 너무 어이없고 쓸데없는 것을 믿어버려 놀림거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지내다 보면 가끔은 우리 반 친구들의 장난감이 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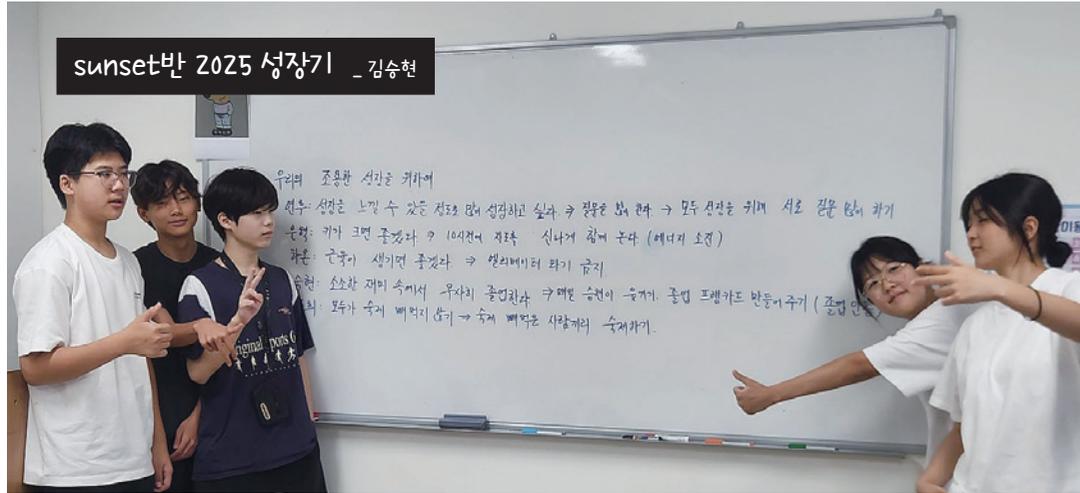
장은현은 항상, 언제나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등교하면 항상 어딘가에서 매트에 뒤덮여 자고 있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도, 장은현은 항상 수면 모드입니다. 이 친구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장은현은 자다가도 맘에 드는 노래가 나오면 깨어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장은현은 특히 외국 노래에 반응하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잘 때는 존재감이 정말 없지만 노래를 부르면 정말 갑자기 시끄러워지는데, 이때만큼은 기타를 동원해 누구보다 크게 열창을 합니다. 은혁이는 가끔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데 정말 어이없어서 웃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 때려 학씨! 학씨!", "에베베베베베", "어이 오마에~"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밀치기도 하죠. 이걸 하온이 말로는 장은현 코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장은현은 곳곳다고 하는데, 주변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간다고 합니다.

장은현



sunset반 (8,9학년) _ 해돋이

앞으로 나가갈 용기를 심어준 sunset반



이번 학기 동안 sunset반이 함께 보낸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수업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차근 차근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 수업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 토론과 글쓰기, 과학 실험과 프로젝트 활동을 거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가면서 얻은 배움과 깨달음을 중심으로, 한 학기 동안 sunset반이 경험한 수업, 활동과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적어보고자 합니다.

sunset반은 **삶과 철학 수업** 시간에 찬반 토론을 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금지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 이용 금지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을 학교에서 전면 금지해야 한다' 등 sunset반이 다루고 싶은 사회 문제를 주제로 자료를 조사하고 찬성, 반대 입장을 바꿔가며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삶과 철학 수업을 거듭하며 토론할 때 어떤 태도와 말투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장, 근거, 반론, 재반박, 비교, 결론 등 토론 진행 구성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며 소통하는 방식과 같은 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학기 초, **말과글 수업** 때 'K-pop Demon Hunters'를 함께 시청하고 그를 바탕으로 '나만의 영웅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화 속 한국적 요소를 찾아 마인드 맵을 그리며 '나만의 영웅전'에 넣을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 정서, 감성, 분위기 등을 선정했습니다. 그 후 대략적인 스토리 라인을 잡고 등장인물을 직접 그리며 구성을 짜, '나만의 영웅전'을 작성했습니다. 완성 후 발표하고 오디오로 들어 보기도 하면서 서로의 결과물을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영웅전'을 마무리하고 시를 쓰기로 했습니다. 독자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방식인 telling 기법과 독자가 스스로 느끼고 상상하게 만드는 방식인 showing 기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



인의 시를 함께 읽으며 각기 다른 시인들의 스타일을 따라 써보는 방식으로 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시를 쓰면서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감정을 꺼내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감정을 글로 표현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 시간**에는 실험 위주로 수업을 했습니다. 착시현상, 각운동량, 산화와 환원 등 주제에 맞게 실험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실험하며

지막에는 개념을 공부하고 정리합니다. 실험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도 머리에 쏙쏙 들어왔고 중간중간에 요리 속 과학 세상이라는 주제로 '토마토 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면은 어떻게 끓이는 게 가장 맛있을까?', '돼지고기와 가장 어울리는 소스는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있어서 과학 수업이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학기 프로젝트**로는 섬 탐방을 했습니다. 각자 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 지리, 생태, 기후, 역사,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고 본인이 고른 섬 여행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행하며 자신만의 보물 다섯 가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교동도, 덕적도·소야도, 진도, 울릉도·독도를 다녀왔습니다(마지막, 섬티아고는 다녀올 예정). 여행 속에서 일상에서는 접하지 못한 활동, 풍경, 분위기 등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행이란 무엇인지 sunset반과 함께하며 느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낚시도 해보고 무계획 여행도 해보고 평생 잊지 못할 전망도 만끽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 수업.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힌트를 잔뜩 남겨주어 고맙습니다.

한 여행을 마칠 때마다 기행문을 작성합니다. 관광지 소개, 인상적이었던 것에 대한 소감과 더불어 다섯 가지 보물도 적어보면서 여행을 돌아봅니다. 또한 발표를 통해 같은 섬에서 겪은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고 글에 대한 피드백도 나눕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관광지를 방문해도 사람마다 바라본 것과 느낀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행문을 발표하고 듣는 과정에서 '같은 섬의 다름'을 느낄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sunset반은 섬 여행과 기행문 작성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섬 탐방을 바탕으로 신문, 소책자, 앨범, 시집, ppt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생동감 있는 섬 여행 영상을 만드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아직 탐방이 모두 끝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완성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돋이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다양한 수업을 통해 스스로를 탐구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sunset반 (8,9학년) _ 해돋이

함께여서 더욱 빛났던 sunset반

개인 프로젝트 _ 박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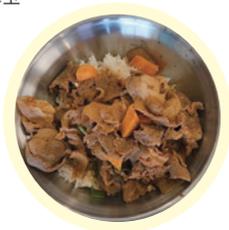
이번 학기 역시 각자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연후는 달리기를 해서 마라톤을 나가기로 하고 승현이 오빠는 축구 기술, 은혁이는 기타, 조희는 움직이는 그림, 나는 일본어를 했다. 다들 열심히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게 멋졌다. 1년 동안 열심히 프로젝트를 한 결과 많이 는 것 같다. 연후는 체력이 더 좋아져 곧 마라톤을 나가고, 승현이 오빠는 기술을 금방 연습해 성공했다. 은혁이는 어정쩡하게 치던 기타를 이제 잘 치게 되었고 조희는 그림을 열심히 그리며 그림을 더 잘 그리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일본어를 대충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보완하고 싶은 걸 개인프로젝트로 인해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다. 모두 모두 열심히 프로젝트를 하는 게 멋졌다.



삼지기 _ 남연후



우리는 별관과 추억을 쌓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요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요리 실력도 높고 요리를 하는 것도 즐거워졌다. 그리고 각자 집에서 반찬을 해서 가지고 올 정도로 열정도 생겼다. 우리는 많은 요리를 했다. 내가 뽑은 1, 2, 3위는 수육, 부대찌개, 제육볶음이다. 3위 제육볶음은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었다. 잡내도 안 나고 간도 좋았다. 불닭도 들어가서 불향도 났다. 2위 부대찌개에는 햄이 많이 들어가서 좋았다. 그리고 라면 사리를 못 넣어서 아쉬웠다. 그렇지만 간도 좋고 매콤해 맛있었다. 1위 수육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잡내도 나지 않았고 고기도 아들이들 잘 되었다. 다음에도 또 먹고 싶다. 요리를 하면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주니 요리를 할 때도 설레는 것 같다. 다음에는 어떤 요리를 할지 벌써부터 설렌다.



GOOD BYE! SUNSET!! GOOD BYE 수지꿈!!

함께 생활해 본 선생님과 후배들 덕분에 sunset반 공동체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온전히 스며들 수 있었고 젖어든 만큼 배움도 깊었습니다. sunset반에서 느끼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문턱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함께여서 더욱 빛났던 sunset반의 모든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_ 김승현

7칠반 (7학년) _ 여경쌤

각자의 취향이 제각각인 매우 독특한 7칠반

7칠반은요?

7칠반은 7명의 칠칠맞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신나게 생활하는 반이에요. 7칠반이 있어서 학교가 재미있어요.....하하하! 다양한 유형의 친구들이 있고 모두가 친절해요. 그러나 기회가 보이면 서로를 물어뜯는 스킬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스킬 있는 반이어서 누군가 다치면 또 친절하게 도와주는 반이에요. 재밌을 때가 많지만 가끔씩 한 대 때리고 싶을 만큼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이 와도 원래부터 같이 지내던 친구들처럼 대하며 함께 활동해요. 수다가 끊이지 않고 장난칠 때 유치하고 한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같이 움직여야 할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요. 각자의 취향이 제각각인 매우 독특한 반이에요. 7칠반을 경험하고 나면 책을 주구장창 읽어서 필력도 늘고 책 읽는 속도도 늘어나요. 또 수업이 재미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인원이 적어서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어 가까워질 수 있지만 너무 가까워서 살짝 부담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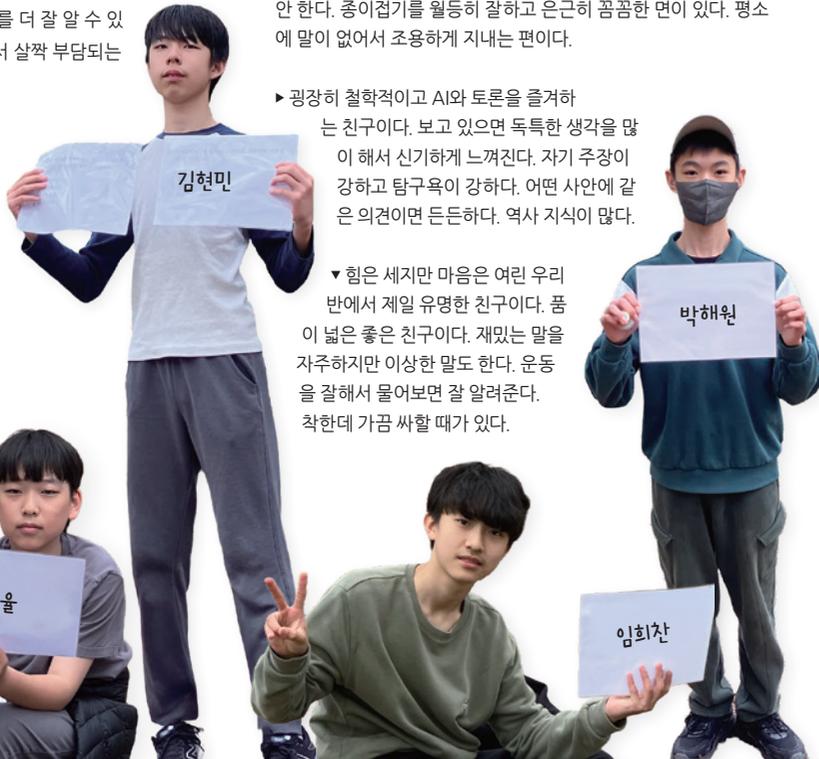
◀우리반에서 제일 부탁을 잘 들어주는 착한 친구이다. 거짓말을 잘 안 한다. 종이접기를 월등히 잘하고 은근히 꼼꼼한 면이 있다. 평소에 말이 없어서 조용하게 지내는 편이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시와 토론을 즐겨하는 친구이다. 보고 있으면 독특한 생각을 많이 해서 신기하게 느껴진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탐구욕이 강하다. 어떤 사안에 같은 의견이면 든든하다. 역사 지식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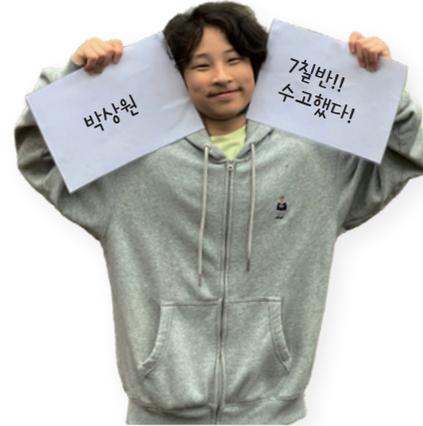
▼힘은 세지만 마음은 여린 우리반에서 제일 유명한 친구이다. 품이 넓은 좋은 친구이다. 재밌는 말을 자주하지만 이상한 말도 한다. 운동을 잘해서 물어보면 잘 알려준다. 착한데 가끔 싸할 때가 있다.

7칠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스키를 잘 타는 활기찬 친구이다. 가끔 엉뚱한 행동을 한다. 기타를 잘 쳐서 부러움에 짜증이 날 때도 있다. 가끔 말투가 시비 거는 것 같지만 심성은 착하다. 겸손한 면이 많다.



▼7칠반 유일한 여학생이다. 조용해서 눈에 띄는 존재감이 없지만 수다 떨 때는 얘기가 많아서 좋다. 멍하지만 푹푹한 것 같기도 하다. 그림을 잘 그리고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아무리 봐도 남자같다.



▲책을 빨리, 많이 읽는다. 기묘한 머리카락을 지녔다. 창의력이 좋으며 음식을 비롯한 개성 넘치는 취향을 가졌다. 편견 없이 자유로운 성향이다. 똑똑하고 친화력이 좋아서 편안하고 재미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만들기가 취미인 착한 친구이다.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한다. 말이 조금 과할 정도로 많기는 하다. 쉬는 시간 애니메이션 노래를 많이 불러서 시끄러울 때가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 ▶외부에서 강사 선생님들이 우리 반에 왔을 때 서희가 여자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맞히는 분이 아직까지 없다.
- ▶반에 말벌 한 마리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남자애들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소리를 지르며 패닉에 빠진 모습이 정말 웃기고 재미있었다.
- ▶처음 해보는 학교살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고학년 전체가 같이 한 물놀이, 요리대회, 1등을 차지한 장기자랑..... 모두 소중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 ▶경주 들살이를 갔을 때 달걀볶음밥을 만들려고 프라이팬을 찾았는데

데 지름이 15cm정도 밖에 되지 않고 손잡이도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멘붕에 빠졌고 다음날 아침 하울이의 불참으로 또 굵은 일을 하게 된 슬픈 추억이 있다. ▶경주 들살이를 갔을 때 오리배를 타는 선착장에서 인생 처음 경치적으로 극우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을 만났다. 그 분과 나눈 대화는 충격적이었고 여운도 오래 갔는데 유익한 경험이었다.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몸소 깨닫는 순간이었다.

담임쌤을 소개합니다.

7칠반 아이들이 보는 여경쌤

- ▶조금 엄격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다.
- ▶어떤 활동을 할 때 계획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편하다.
- ▶체력이 좋으시고 특히 하체 힘이 좋다. 견과류를 즐겨 드신다.
- ▶언제나 건강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지킬 선을 명확하게 하신다.
- ▶수업 진행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데 가끔 이야기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좋다.

이름
조여경, 여경쌤(닉네임)

슬로건
반복이 가치를 만든다(학습이든 운동이든 꾸준한 연습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자)



우노땅콩반 (6학년) _ 우노, 영영



영영(별명: 양파샘, 당근샘)

영영샘은 숙제를 많이 내주세요.
한 번 하기로 한 것은 꼭 하고 넘어갑니다...
수업하다가 다른 설명으로 넘어갈 때가
많은데... 어제도 수학시간에 표준시를
공부하면서 세계지리로 넘어갔어요.
수학 시간마다, 영영은 시간이 늘 빠르게
간다고 하고, 우리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합니다.



우노땅콩반은 웃음이 많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웃고 있어요. 제 3자가 보면 왜 웃는지 모를 때도 많답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피웅~ 씨웅~ 피웅~ 사망!" 다양한 액션과 효과음이 울립니다. "응에~"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이 단어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 어이없을 때, 깨달았을 때, 돌진할 때... "응에~~~"라고 하는데 우리 반끼리는 무슨 의미의 '응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숙제가 너무 많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 앞에 "아~~~ 아~~~" 의성어가 난무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반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래 합을 맞추고 지내온 덕에 협동이 잘되고 늘 활기차다는 것입니다.



류지민(별명: 돌고래)

우리 반 홍일점이자 최고 권력자로 팩폭을 잘합니다.
해리포터와 원어스를 너무 좋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웃는답니다. 목소리 데시벨이 높고 손이 매워,
지민이 앞에서 까불면 큰 일 납니다. 영어를 잘하고
글씨체도 예쁩니다.

제주도에는 우노 땅콩이 유명하지만,
수지꿈에는 우노와 땅콩들이 있다!

손유담 (별명: 비둘기)

유담이는 늘 재미있어요. 창의력이 뛰어나서 때로는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놀이를 잘 개발해서, 동생들과도 유담이가 만든 놀이를 하고 합니다.
진희, 지민이와 세계관이 달라 의견이 늘 엇갈리는 편이지만, 친구의 부탁을 잘 들어
주는 착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늘 물어보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만들기를 잘합니다.



우노샘(별명: 곰, 풍선, 풍어샘, 오~옥케이!!)

우노샘이 주변에 있으면,
팍 찬 느낌이 들어요.
잘 놀아주시고, 장난을 잘 치십니다.
약속을 하면 꼭 지키십니다.



진희(별명: 슬라임, 이진드기, 카피바라)

슬라임은 흐물흐물, 이진드기는 질문할 때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매달려서~
진희는 키가 크고 뉴시를 좋아해요.
진희와 지민이는 세계관이 비슷해서
잘 통하는 편이에요. 웃기지 않아도 잘 웃고,
울기도 잘합니다. 숙제도 놀이도 미루는
편입니다. 누워있는 것을 좋아하고 귀찮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자주 아프고, 궁금한 게
많아 "왜요?"를 자주 합니다.

럭키반 (4,5학년 살림반) _ 지나



우리 반은 재밌다! - 우리 반은 싸울 때도 있지만 잘 어울려 재밌게 노는 반이다. 아주 시끄러우면서 유쾌한 반이 것 같다. 우리 반의 가정은 신짜재신! (신기하고 짜증 나고 재미있고 신난다!) 럭키반은 나의 행복이다. 럭키반은 나에게 소중한 보물이다. 럭키반은 나의 보금자리이다. 럭키반은 나에게 밤 같은 존재다. 밤이 없으면 죽으니깐! 럭키반은 시끄럽다! 우리 반의 장점은 생이 예쁘고 착하고 좋다! 일단 재밌고 지나가 지구의 나이만큼 나이가 많으니깐! 우리 반은 시끄럽다! 우리 반의 장점은 생이 예쁘고 착하고 좋다! 일단 재밌고 지나가 지구의 나이만큼 나이가 많으니깐! 우리 학교에서 인원수가 가장 많고 활발한 친구 조용한 친구, 상이한, 친구가 많다!

“지나쌤... 우리 반 애들은 다 이상한 것 같아요!!”
 “맞아. 너도.” “너도” “그리고 지나도 조금 이상하시...” “점심시간에 숙안점모(숙제 안한 사람들의 점심모임)를 할까?” “나랑 다르면 이상하게 보이지? 서로 다른 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상이한 거야~ 앞으로 상이하다고 해두자!” “그래! 우리 다 상이한 거야!!!” 그날 이후 누군가에게 ‘이 상’하다고 놀리지 않는, 서로 상이한 13명이 되었습니다~

그 '상이' 한 13명이

서로를 소개합니다!

여울이는 착하고 그림을 잘 그린다. 친절하다. 상냥하다. 어떨 때는 성격이 확 바뀐다. 성격이 쿨하다. 책임감 있다. 귀엽고 연기를 잘하고 그림 잘 그린다! 상이하다.



건태는 수학을 잘한다. 축구를 좋아하고 잘 한다. 글씨를 작게 잘 쓴다. 거의 대부분 다 잘 한다. 맞춤법을 잘 안다. 공부를 잘하고 친절하다.

상현이는 럭키반의 분위기 메이커다. 개그맨이다. 재미있는 생각이 많다. 유쾌하고 긍정적이고 아무튼 정말 우리 반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그림을 잘 그린다.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다. 상이하다.

현오는 활발하다. 점프력이 좋다. 달리기, 농구 운동은 다 좋아한다. 운동신경이 좋다. 생각이 열려있다. 장난을 많이 친다. 그림을 꽤 잘 그린다. 상이하다.

하랑이는 친구들과 잘 놀고 목소리가 아주 크다! 키가 크고 힘이 세다. 화는 잘 안 낸다. 축구를 좀 한다. 성격이 좋다. 잘 웃고 자주 웃는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세상에서 가장 럭키한 13명이 소개하는 럭키반!

삼행시로

만나보는 럭키반



수아는 활발하고 재밌다. 춤을 잘 춘다. 요리를 잘하고 축구도 잘한다. 예쁘고 키 크다. 보넥도를 좋아하고 옷을 잘 입는다. 친구들이랑 잘 놀고 활기차다.

송하는 예쁘고 친절하다. 글씨를 잘 쓰고 공부도 잘한다. 글을 늘 깔끔하게 쓴다. 착한데 카리스마 있다. 베이킹 짱 글씨체 짱 보넥도 좋아하게 짱 짱.

럭키한 우리반 키키키키 웃는 우리반 끼쟁이들! 반 반중에는 우리 럭키반이 최고

럭키반은 키키가 큰 친구도 있고 키가 작은 친구도 있다. 반 반에서 내가 가장 작다ㅠㅠ

럭키반은 진~짜 시끄럽다. 키키키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반 반에 적응이 되어서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가도 시끄럽지 않게 들린다.

럭키가 맞아 럭키가 맞아? 키키을 받침 아냐? 럭키 아냐? 반 반은 맞아. 럭키가 맞아!



서준이는 만들기 분야 최고다. 만들기 진짜 짱짱이다. 몸이 날쌔다. 줄넘기를 잘한다. 애들이 아저씨라고 한다. 손재주가 아주 좋고 어디에든 매달리는 원숭이다.

래인이는 과학 지식이 많고 과학을 좋아한다. 게임을 좋아한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야구를 좋아한다. 야구를 잘한다. 연기를 잘한다.

성재는 웃기다. 야구를 좋아하고 잘한다. 두산을 좋아한다. 놀 때는 목소리가 큰데 발표할 때는 작다. 잘 논다. 최대 장난꾸러기다. 우리 반의 뽀글이다. 상이하다.



태희는 사려깊다. '책'을 많이 읽는다. 마음이 착하다 그런데 알고보면 무서운 태희다.(상상력) 급식 메뉴를 다 외우고 있다. 음식 이야기를 할 때 엄청 행복해 보인다.

서연이는 영어를 잘하고 착하다. 평소에는 침착하고 과묵한데 말이 빠르다. 글씨체가 좋다. 상냥하다. 귀여운 그림을 잘 그린다. 교실 게임을 할 때 눈치가 빠르다. 귀엽고 그림 잘 그리고 예쁘다.

Thank you



일년동안 아이들을 향한 지나쌤의 열정과 사랑이 늘 감동이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햇반 (4,5학년 살림반) _ 채송화

눈부신 햇살처럼 빛나고 평화로운 햇반



햇반은요

우리 반 아이들 중에 머리가 엄청 긴 파란색 머리카락 라퐁젤이 있고, 요즘 축구에 흥미를 가진 아이도 있고, 낙하산을 잘 만드는 아이도 있고, 채강 도서관(이채현 강여울이 운영하는 직접 만든 책이 있는 곳)을 운영하는 작가가 2명 있고, 똑똑하고 종이접기 왕인 아이와 총을 좋아하는 아이, 그림체가 귀엽고 매력 넘치는 Happy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아이, 그리고 그림이 섬세하고 똑똑하고 멋진 아이와 장난기가 많은 아이, 축구를 잘하고 사교 동맹이인 아이, 귀엽고 발랄한 아이, 엉터리지만 꽤 착한 아이들이 있다. 다 다른 색깔이지만 알록달록 색깔들이다. **강여울** 우리 반에는 도서관도 있고 공방도 있고 나중에는 서점도 생길 거다. 도서관은 채강 도서관, 공방은 종이접기 공방이다. 지금 이미 커다란 왕꿈틀이를 접었고 지금은 긴.....꿈틀이를 접고 있다. 그리고 규칙이 많다. 반에서 나갈 때 꼭 "나 지각 아님!" 이라고 말해야 한다. **문익** 규칙이 많아서 누군가는 깐깐하다고 하지만 나는 괜찮은 것 같다. 여자 5학년

여자 4학년 남자 5학년, 여자 5학년이 각각 3명이다. 시간표가 어렵다. **김호연** 우리 반은 축구를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 **류봄** 우리 반은 학기 초에 축구를 엄청 좋아 하는 애들이 서너 명이었는데, 학기 말에는 거의 다 좋아하게 되었다. **임유안** 우리 반은 활발하다. 손재주도 좋고 운동 실력이 좋은 사람도 있다. **김이현** 반의 안건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의논도 많이 한다. **양소은** 우리 반 애들은 밥을 많이 좋아한다. 그만큼 점심 때는 지진처럼 우당탕탕 줄을 선다. 채강 도서관이 있는데 호연이 오빠가 완전 짱이다. **최지민** 우리 반은 지각을 체크할 때 1초 정도도 봐주지 않는다. **하이안** 채강 도서관에서 이벤트도 많이 하니까 꼭 놀러 오세요. **이채현** 명상을 해서 아침에 실 수 있다. **임한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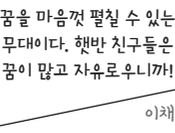
나에게 햇반은



여러 색깔이 있는 무지개다.



서점이다. 책을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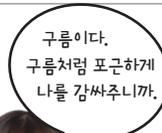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이다. 햇반 친구들은 꿈이 많고 자유로우니까!



이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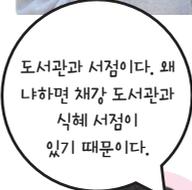
전자레인지에서 갓 나온 햇반처럼 따뜻한 존재이다.



구름이다. 구름처럼 포근하게 나를 감싸주니까.



공룡이다.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도서관과 서점이다. 왜냐하면 채강 도서관과 식혜 서점이 있기 때문이다.



김이준

럭비공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문익

두 번째 집이다.



임유안



우리 반은 지각을 체크할 때 1초 정도도 봐주지 않는다.

하이안



그림이다. 내가 그림을 좋아하는

양소은

만 큼 햇반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햇반 2행시

- 강여울 **햇** 햇반은 좋은 마음을 **반** 반 나누는 곳이다.
- 문익 **햇** 햇반과 **반** 반반 치킨을 같이 먹는다.
- 류봄 **햇** 햇반에 들어가면 나를 **반** 반겨주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다.
- 김이현 **햇** 햇 햇 햇 **반** 반이 잘 짜져서 좋다.
- 김호연 **햇** 햇반은 **반**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고 반이 4학년이고 반이 5학년이다.
- 양소은 **햇** 햇반은 모두 다 **반** 반짝반짝 빛난다.
- 임유안 **햇** 햇반은 평화로운 **반** 반이다.
- 최지민 **햇** 햇살 같은 햇 **반** 반은 따뜻하다.
- 하이안 **햇** 햇반에는 **반** 반장도 없다
- 이채현 **햇** 햇살처럼 빛나는 우리의 **반** 반이다!
꿈을 담을 수 있는
- 임한결 **햇** 햇과일처럼 여러 가지 **반** 반이다.
맛이 나는
- 김이준 **햇**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반** 반반 치킨 남남!
앞에서

나침반 (3학년) _ 빙그레

☀ 나침반, 길잡이가 되어 준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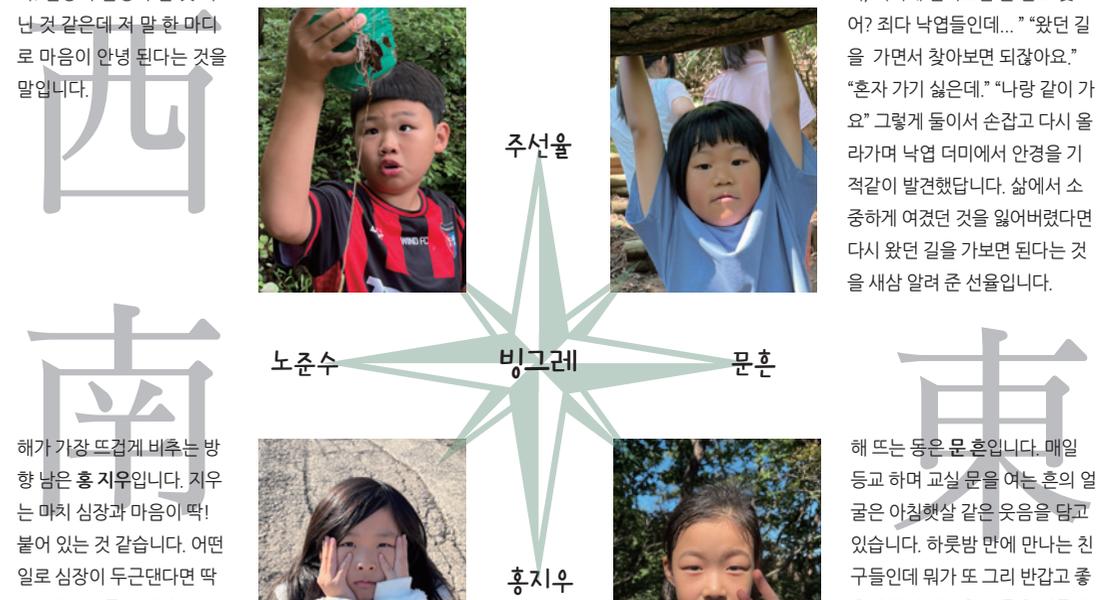
흔, 지우, 준수, 선울 4인방이 함께 생활하는 3학년 나침반. 반 이름이 방향을 제시하듯 네 명의 아이들이 각자의 기질대로 자유롭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지다가도 중앙을 향해 모일 땐 그 관계의 응집력이 대단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아이들이 보여준 관계의 응집력은 주춧돌과 기둥 같다고 느껴졌지요. 제멋대로 생긴 자연석과 나무대로의 성질을 살려 일률적으로 평평하게 깎지 않고 돌에 맞추어 조금씩 다듬습니다. 그렇게 돌과 기둥이 스스로 자리를 찾아 맞물리게 되면 오랜 세월 고떡없는 것처럼 아이들은 3년의 시간 동안 서로를 맞추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은 인원이기에 서로를 더 자세히 보고 듣고 느끼면서 지내왔을 겁니다. 나침반 아이들의 튼튼한 관계 안에서 선생은 1년간 잠시 지나다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 학기 동안 지내면서 순간순간 저에게 길잡이가 되어줬던 아이들을 동서남북과 짝지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해 지는 서는 노 준수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듯 준수의 인사로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아이들은 하루마무리를 마치고 옷 입고 가방 맨 뒤 교실 문을 열고 쓴살같이 나갑니다. 준수도 빨리 나가지만 신발을 다 신고 나서 교실 안에 있는 저에게 하루도 빼 먹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빙그레, 안녕히 계세요." 순간 마음이 훈훈해 집니다. "어, 준수야, 잘~가. 내일 만나자." 그러면서 준수에게서 배웁니다. 일상의 안녕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저 말 한마디로 마음이 안녕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차분함과 생각의 깊이를 상징하는 북은 주 선울입니다. 선울이의 언어 감각은 따라 올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의 것들을 다르게 보는 힘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친구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은 '늦잠'이고 없어져야 하는 것은 '학교'라 말하는 선울이. 어느 늦가를 날, 뒷산에서 수업하고 내려와 보니 안경이 없어진 걸 알고 "애들아, 빙그레 안경 잃어버렸다." "어디서요?" "산에서 수업할 때 떨어뜨린 것 같아." "그럼 같이 가서 찾아봐요." "아니, 어디에 떨어뜨린 줄 알고 찾아? 죄다 낙엽들인데..." "왔던 길을 가면서 찾아보면 되잖아요." "혼자 가기 싫은데." "나랑 같이 가요" 그렇게 돌이서 손잡고 다시 올라가며 낙엽 더미에서 안경을 기적같이 발견했습니다. 삶에서 소중한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왔던 길을 가보면 된다는 것을 새삼 알려 준 선울입니다.

해가 가장 뜨겁게 비추는 방향 남은 흥 지우입니다. 지우는 마치 심장과 마음이 딱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로 심장이 두근댄다면 딱 1초 만에 얼굴로 나타나고, 어떤 일로 마음이 아프다면 단 1초 만에 붉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마음에 걸린 일이 풀려야 다음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지우입니다. 자기 마음 상태를 그 누구보다 소상히 표현하고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마치 한 낮의 태양이 가장 높고 뜨겁듯이 마음 안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지우입니다. '내 안의 열정과 순수는 살아 있는가' 조용히 혼자 되문습니다.

해 뜨는 동은 문 훈입니다. 매일 등교 하며 교실 문을 여는 훈의 얼굴은 아침햇살 같은 웃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룻밤 만에 만나는 친구들인데 뭐가 또 그리 반갑고 좋은지 항상 새로운 사물을 마주하듯 새 웃음으로 새로운 하루 열어 주는 훈입니다. 마음 나누기를 하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낱말카드를 고를 때면, '기대, 즐거움, 기쁨, 반가움, 설렘'을 골라냅니다.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좋을까? 싶을 정도로 학교생활을 참 즐겁게 합니다. 언 마음도 녹게 하는 사랑스런 훈이는 나침반의 따스한 햇님입니다. 저에게 처음 사물을 마주하듯 새로움으로 하루를 여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훈입니다.



꿈반 (2학년) _ 우리편

꿈반이 이야기하는 수지꿈학교



노준호
 마음이 두근두근~ 내가 제일 좋아 했던 몸놀이, 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뽀뽀도 하고 재밌었다.

남솔아
 나는 2학년 동안 여행을 갔을 때 연극을 보는 것도 재밌고 연극을 하는 것도 재밌었다.

김하음
 인조 잔디가 있는 축구장이 있어서 축구나 캐치볼이나 야구를 할 수 있어서 재밌었다. 그리고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일주일마다 한번 이라서 좀 부족했다. 하지만 몸놀이 시간에는 모르던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재밌고 좋다.



서봄
 채이가 할머니 텃밭에서 가져온 고구마를 요리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서 더 맛있었고 만드는 법을 몰랐는데 알게되어서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김보명
 걷기여행 때 힘들 것 같았지만 간식이 있어서 힘들지 않았다. 힘들 거 같았다의 이유는 이름도 걷기 여행이니까~ 수지꿈학교 선생님들은 다 친절하고 착해서 좋은데, 선생님들은 나한테 먼저 인사해 준다. 수업까지 재미있어서 좋다. 특히 수학 시간에 진도 나가게 기쁘고 성에 찼다. 수지꿈학교는 축구장이 있어서 거의 모든 스포츠를 할 수 있어서 좋다.

윤태경
 수지꿈은 일반학교보다 수학문제가 쉽고 도형문제가 가끔씩 나와서 좋다 그리고 2학년이 돼서 세로식을 배웠는데 더하기 빼기가 쉬워져서 좋았다

빈서준
 2학년 생활은 재밌게 친구들과 얼음땀, 술래잡기, 믿음 게임 하면서 놀고 쉬는 시간에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자유로워서 좋다.



김별
 만날 기대하면서 오는 것 같다. 가기 싫을 때도 있지만 곧 후회하게 된다. 특히 금요일날에 생태문화체험과 반회의가 있기 때문에 생태문화를 배우기 위해 체험학습에 나가는 재미와 청소를, 자리를 바꾸고 규칙을 만들어 회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 활동들이 좋았다.



윤도경
 2학년이 돼서 서준이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서준이랑 강당에서 놀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눈오면 썰매를 탈거예요

이해솔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던 게 좋았어요. 남자애들이랑 술래잡기가 재밌었어요. 철봉 목탑도 타며 놀았고요. 슬펐던 점은, 친구와 싸웠을 때 날 존중하지 않아서 속상했어요. 그 뒤로 화에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김채아
 좋았던 것은 돌봄이고 그때 맛있는 간식을 먹고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미스터리한 사실은 나는 매일 빠르게 달려 다닌다. 난 말과 글이 좋았다. 이야기 책들이 랜덤으로 나와서 매일 새로운 이야기라서 기대되어서 최고다

서가득
 배움을 할 때는 쉬우면 나옴엔 빨리빨리 하고 놀고 싶은데 쉬우면 나옴수록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근데 그럴수록 쉬워서 많이 푸는 것도 쉬우니까 빨리빨리 하는 것도 재미가 많이 많이 쌓이네요.

보석반 (1학년) _ 고고

1학년은 각자 저마다의 색깔로 반짝반짝 빛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로 보석반이라는 이름을 아이들이 직접 지었어요.

매력쟁이 1학년의 우당탕탕 수지꿈 적응기

넘치는 자신감 하람

아기 참새처럼 사랑스러운 시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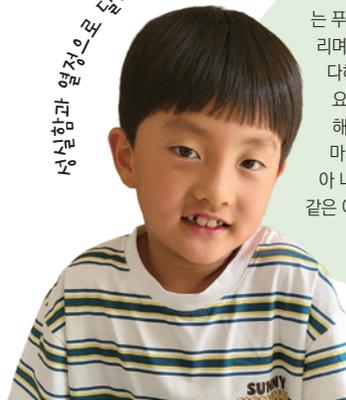


수지꿈 마당에 오늘, 평범함을 거부한 특이 비행기들이 힘차게 착륙했어요. 특이의 손끝에서 태어난 비행기들은 하나같이 모양도 마음도 특별해서, 하늘 위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오래오래 날아오릅니다.

특!특!특! 최특!



성실함과 열정으로 달리는 임유준



유준이는 푸른 축구장 위를 달리며 공 하나에도 마음을 다해 뛰어드는 열정이 있어요. 무엇이든 성실히, 정성껏 해내려는 유준이의 태도는 마치 묵묵히 자신의 길을 닦아 나가는 한 줄기 햇살 같은 아이입니다.



하람이는 단단한 자신감을 품은 보석반의 등직한 나무입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친구들 사이에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내기도 하고 긍정의 힘으로 보석반에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자연스레 모두의 마음을 꿀 만큼 귀엽고 따뜻한 매력에 있는 시현이. 요즘은 철봉에 매료되어 작은 날개를 단 듯 씩씩하게 매달리고, 솔레집기 놀이가 시작되면 웃음꽃을 피우며 여기저기 날아다녀요.



보석 같은 마음을 담은 제희

바닷속 신비한 보석, 지안이

지안이의 마음은 깊은 바다처럼 반짝이는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물고기를 사랑하는 지안은 쿠키런 게임에서도 자신만의 보석 같은 상상력을 펼치며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아요. 지안이와 함께라면 매 순간이 반짝이는 모험이 됩니다.

축구로 하루를 움직이는 아이, 조율이.



뛰는 순간 가장 행복한 작은 스트라이커. 꿈은 단 하나—멋진 축구선수! 축구장에는 조율이의 희로애락이 담겨있어요. 보석반의 개구쟁이지만 축구할 땀 누구보다 진지한 조율이 멋져요!

찰랑거리는 머리에 웃는 미소가 멋진 우찬이!



우렁찬 목소리로 친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의 사나이 우찬. 축구장에서는 찰랑거리는 머리를 시원하게 휘날리며 달리고, 활짝웃는 행복한 미소는 보는 사람까지 기분 좋아지게 만듭니다.

해맑은 웃음으로 수지꿈을 채우는 은솔



해맑은 웃음처럼 마음도 맑고 긍정적인 은솔이, 택견할 때 제일 힘이 나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즐거워하는 은솔이에요. 몸놀이기구에서도 즐겁게 뛰어다니며 하루를 행복하게 채워가는 은솔이입니다.

무엇이든 차근차근 잘 해내고, 친구들에게 "아!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믿음직한 서연입니다. 줄넘기에 자신감이 넘치는 서연이, 서연이가 운영하는 줄넘기 학원으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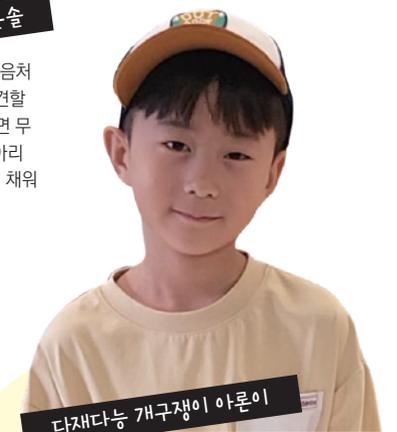
뚝소리 서연!

넘치는 에너지로 어디든 잡고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내가 정복한다! 철봉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면 돼" 하며 알려주는 다정한 유준이입니다.

철봉 위에서 가장 반짝이는 작은 영웅 정영준이



다재다능 개구쟁이 아론이



호기심 가득 개구진 표정으로 장난하다가도 수업 시간에는 아론이만의 똑똑한 모습으로 진지한 면모를 보여주는 아론이. 남다른 예술적 감각과 친화력으로 아론이만의 다채로운 빛을 발하는 보석반의 귀여운 친구입니다.



2학기 방과후 프로그램 "더 놀자"

"더 놀자" 방과후 프로그램은 4,5,6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의 기회를 학교 안에서 갖고자 하는 뜻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리_은비

꿈꾸는 연극 놀이터

글_박은희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며 성장하는 시간을 가장 사랑하는 강사 박은희입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감과 표현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교육의 가치와 보람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수지꿈학교는 단순히 연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스스로 표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마음에 와닿아 연극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하거나 부끄러움 많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 있게 대사를 외치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큰 자신감이 되어 돌아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연극 수업에서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만 아이들이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를 실제 공연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현재 이를 무대에서 선보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적인 결과물이 공연이라는 형태로 완성된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며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수업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토토리랑 내 맘대로 요리 놀이

글_토토리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손유담 엄마, 토토리입니다. 현재 쿠킹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아이들과 어른 모두가 요리를 통해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요리 수업을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산께서 제안을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처음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썰어요?" 하며 조심스러워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자기만의 요리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무엇보다 여섯 명의 아이들이 요리를 함께하며 금세 가까워지고,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참 예뻐요~^^

아이들이 워낙 에너지가 넘쳐 첫날엔 몸살이 날 정도였지만, 그만큼 웃음도 많고 분위기가 늘 활기찼어요! 막상 수업이 시작되면 제가 더 신이 나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다 꺼내주며 이것저것 함께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가 수업을 더 즐겁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번 수업을 마무리한 여섯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앞으로도 음식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보름달의 만화 교실

글_보름달

안녕하세요. 3학년 선율이 아빠 보름달이고요. 웹툰 작가이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동네에서 초등학생들과 만화 그리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꿈학교에서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산에게 연락이 와서 흔쾌히 만화 교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람됐던 점은 애들이 어느날부터 시키지도 않았는데 만화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재미가 생겼구나 싶어서, 만화를 잘 그리는 것보다 만화 그리는 것에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저의 목적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으로 아이들에게 기억이 되었으면 합니다. 🍷



마을의 심장을 두드린 <승무북가락> 그 4년간의 여정

글_ 비아

12월 두레생협 상생장터 "마주하장"

2022



- 3월 머내만세운동
- 4월 세월호10주기 용인지역 기억공연
- 5월 수지성모요양원 1·3세대 통합프로그램
- 9월 수지공학교 입학설명회
- 10월 꿈연덕예술제
- 11월 경기대협합창제
- 11월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 12월 쿠팡노동자를 위한 "멀리가는 물" 음악회

2024



2023

- 3월 머내만세운동
- 6월 분당지역공동육아단오제
- 9월 머내영화제 야외음악축제
- 9월 수지공학교 입학설명회



2025

- 3월 머내만세운동
- 5월 고기초 "놀장" 축제
- 10월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 12월 고공농성 해고노동자와 연대하는 음악회

저학년으로 시작해서 고학년이 되도록 아이들은 매번 망설임 없이 북채를 잡았고, 부모들은 묵묵히 북과 거치대를 실어날랐다. 별로 달라진 레파토리도 없는데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또 해도 되나 싶다가도 요청만 오면 우리는 짐을 꾸렸다. 학교 마당, 울동공원, 동백호수공원, 수지성모요양원, 목양교회 영화제, 온누리아트홀, 고기교회, 고기초등학교 등 장소는 다양했다. 그새 훌쩍 자란 아이들은 빙그레쌤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하며 안달복달하던 꼬꼬미가 아니다. 어느새 자신들만의 페이스로 담담히 무대를 꾸려갈 줄 알게 되었다. 놀랍도록 성장한 기량과 단단한 자세, 한 덩어리인 듯 자연스럽게 맞추는 호흡과 박자를 갖고 노는 여유까지 생겼다. 리허설 한 번 없이 자동 재생하면서 생동감을 잃지 않는 진짜 프로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도록 몇 번이나 무대에 섰을까, 문득 헤아리고 싶었다. 17번. 17개의 기억과 17가닥의 연결. 이웃들과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곳에 늘 승무북가락이 있었다. 덕분에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났다. 함께 만세를 불렀고, 영화제의 밤을 즐겼고, 요양원 할머니들과 소고를 두드렸으며, 세월호나 쿠팡, 고공농성 등의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빙그레쌤이 던진 작은 공이 지칠 줄 모르고 오르다 별이 되었다. 그 별은 이제 더 많은 별들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을 나누며 따스한 울림을 주고받을 것이다. **승무북가락에 담겼던 아이들** 황수현, 김세연, 손유담, 류지민, 공유원, 공유빈, 조수아, 류봄, 김호연, 강여울, 문익, 남여울, 김하울, 김하람, 이채현, 이태희, 김시연, 임유안, 김하늘, 주선울, 염희웅(동천초), 조휘승(동천초)

우리들의 이상한 겨울 뜨겁게 뜨겁게 2025년 마무리 잔치!

참 이상도 하지. 마무리 잔치를 떠올려보면 매해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날이었는데도, 발강게 달아온 양 볼, 얼얼한 손바닥, 후덥지근하다 못해 후끈거리는 열기가 먼저 생각난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랄까.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란 사실은 잠시 잊은 채 지금이 제일 뜨거운 순간인 양 즐겼던 마무리 잔치날 이야기를 꺼내보려 한다. 글_느긋

올해 마무리잔치는 아브라와 삼파, 교사회 덕분에 AI 시대에 발맞춘 최첨단 기술의 향연을 선보일 수 있었다. 아브라가 설치해 준 고화질 빔 프로젝터와 아이맥스 영화관을 방불케 하는 대형 스크린으로 영상과 무대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스펙터클한 공연이 가능했다. 삼파가 기증한 인체공학 적 팔레트를 밤새워 설치해 준 교사회 노고는 그간 원성이 자자했던 시야 방해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고개를 내빼지 않고도 온전히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니! 게다가 이번에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꾸려 무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어떤 공연을 펼칠지 막이 오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마무리잔치 1부는 전국 노래자랑의 송



해 선생님을 능가하는 베테랑 사회자인 류봄과 이송하의 진행으로 막이 올랐다. 8·9학년의 섬 투어 영상 상영에 이어, 전교생이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노래한 합창으로 마무리잔치 열정의 문을 열어젖혔다. 다음 무대는 '1학년 택견 팀'. 채송화 선생님의 우렁찬 구령에 맞춘 절도 있는 동작과 옆 돌기까지, 우리는 그 무대에서 택견이 뿔어나갈 창창한 미래를 보았다. '퍼펙트 점프 팀'에게서는 점프 줄넘기의 드높은 미래를, '무지개 팀'에게서는 음악 줄넘기의 찬란한 미래를 보았다. 이 기세라면 댄스팀 결성도 시간문제다. 언니 댄스팀, 긴장하세요!

막간에 상영된 고학년 섬 투어 영상으로, 백설공주를 먹보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살림반 먹보즈'의 맛있는 연극이 이어졌다. 높게 설치된 무대 덕분에 목을 길게 빼지 않아도 공주가 쓰러지는 긴박한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고 감상할 수 있었다. 이어 AI 시대에 딱 어울리는 '김박김 팀'의 영상은 대안학교에 처음 발을 디딘 고학년의 낯설고 설레는 마음을 섬세하게 포착해 낸 수작이었다. 인형극 <강아지들, 사탕나라에 가다>는 2학년 여자 친구들의 순수한 마음과 정성껏 만든 무대 장식이 어우러져 웃음과 감동, 반전까지 모두 잡은 무대였다. 2학



년 남자 친구들이 주축이 된 '도전 수지팀'은 꿈반 친구들이 주인공인 동화와 직접 그린 그림을 함께 선보이며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뽐냈다.

1부의 마지막 무대는 식순에 없던 깜짝 무대였다. 8·9학년이 강남스타일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등장하자 잔치의 온도는 순식간에 끓어올랐다. 섬 프로젝트 발표회 때 약속했던 홍콩 발 선물 증정으로 웃음과 환호를 이끌어내며 잔치의 열기를 더했다.

이번 마무리 잔치에서는 과열된 열기를 식힐 수 있도록 사상 최초로 인터미션이 도입되었다. 인터미션에는 아빠들이 정성을 담백 담아 만든 수제 최고급 간식, SoddukSodduk과 Oumukcoach가 'Suji Dream Garden'에 성대하게 차려져 어느 틈엔가 흥겨운 가든파티가 되었다.



2부는 고학년의 새얼굴 장윤우와 김서희가 사회를 맡았다. 멀찌감치 떨어진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는 멘트를 주고받으며 묘하게 잘 어울리는 케미를 보여주었다. 8·9학년 섬 투어 영상으로 2부 시작을 알렸고, '살림반 연극팀'의 사이언스 판타지 연극이 이어졌다. 살림 수업에서 차



곡차곡 쌓아온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외계인과 지구인의 방대한 대서사를 작은 무대와 간결한 소품만으로 표현해낸 독보적인 공연이었다. 다음 무대는 아이들이 손으로 한 장 한 장 그린 다정한 그림을 영상으로 엮어낸 '3학년 만화팀'의 <빠야기의 일생>이었다. 빠야기의 시선을 따라 작고 약한 존재의 자리에 잠시 머물러 보았으며, 이별이라는 단어 앞에서 몽클함을 느낄 수 있었다.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분위기를 단숨에 후끈하게 반전시킬 '수지꿈 댄스팀'이 출격했다. 댄스 머신이자 여신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무대를 꾸며주었다. 의상부터 퍼포먼스까지 극비리에 준비했다는 후문. 무대 위에 흩뿌려진 색종이까지 말끔히 정리하고 퇴장하는 프로다운 모습에 모두가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냈다.

섬 투어 영상이 한 편 더 흐른 뒤, '어르신 이해전설 팀'이 등장하자 무대는 돌연 90년대 관광 나이트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크리스마스 모루로 한껏 꾸민 엄마들과 야광봉으로 무장한 댄스 담당 아빠들, 연미복을 차려입은 '산'의 퍼포먼스에 해경 선생님의 열정적인 노래까지 더해지며 마무리 잔치는 더할 수 없이 뜨거워졌다.



마지막 섬 투어 영상이 상영되는 사이 '6,7학년 밴드' 무대가 준비되었다. 6학년 보컬과 7학년 연주가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에 관람하던 아이들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춤을 쳤다. 앙코르 무대에서는 윤우가 보컬로 나섰다, 건반을 치던 현민이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7년간 꼭꼭 숨겨두었던 흥이 마침내 어깨 끝으로 봉긋 터져 나왔다. 객석은 웃음과 뜨거운 환호로 가득 찼다.

잔치의 피날레는 '아빠밴드'였다. 크리스마스 캐럴로 분위기를 달군 뒤, 새로운 산타 '파랑'이 등장했다. 감히 말하건대, 작년 '산' 산타를 뛰어넘는 열기였다. (내년에는 안전하게 하늘에서 루돌프를 타고 날아오기로 해요, 우리!) 앙코르곡으로 <뜨겁게 안녕>을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부르며 뜨거운 열기와 환호성에 달떠버린 우리들은, 우리가 보낸 뜨거운 한 해를 떠올려 본다. 뜨거운 우리들의 시간, 이젠 안녕. 뜨거운 한해도 이젠 안녕. 내년 학부모 대표를 맡아준 '언덕'의 뜨거운 인사를 끝으로 마무리 잔치는 막을 내렸다.

발그레한 불을 감싸 쥐고 열기로 달궈진 우듬지터에서 나와 겨울 밤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로 내려섰다. 한겨울 칼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발그레한 불은 쉬이 식지 않는다. 쉽사리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서성거리며, 뜨거운 마음의 온기를 가만가만 음미해 본다. 올해도 이 추운 밤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으로 찍어나 오래 기억되지 싶다. 거참 이상도 하지. **🌈**



이혜경 합창을 지도해주신 마을선생님

인터뷰, 글-일렁

합창을 맡아주신 소감은?

매우 가슴 설레는 일이었어요. 매주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졌어요. 1학년들에게 어려운 수업이었을 텐데, 짱짱한 소리로 노래할 때 느끼는 감동,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몽계구름'은 가볍고, '두껍아 문지기'는 어려워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노래였어요. 그런데 마무리 잔치에서 합창은 최고였어요. 9월부터 연습하고 준비한 과정이 그대로 보여졌어요. 특히 중등 친구들에게 열심히 이야기한, 바닥을 지탱하는 힘이 잘 드러나서 선생님으로서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았어요.

연습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장면이 있다면요?

노래가 익숙하지 않은 1학년 친구가 있었어요. 언제나 장난으로 수업에 임했죠. 수업마무리 3주 전부터 소리소리 지르며 노래하더라고요. 근데, 가사를 다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장난하면서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학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졌던 '두껍아 문지기'곡이 어느 날 각각의 파트가 제 역할을 하며 합창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순간이었죠. 또 어렵고 힘든 수업이라고 투정하면서도 수업을 마치고 감사하다고 눈 마주치며 인사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정말 감동이었죠. 산만하고 각자 떠들어도 노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정말 반짝이는 눈으로 집중하는 아이들을 보아요. 아이들이 배움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선생님으로서 정말 설레는 순간이에요.

합창의 힘은 무엇인지, 음악이 우리의 삶이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합창의 힘은, 여럿이 부르는 노래의 힘이에요. 혼자 하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여럿이 함께함으로 더 큰 하나가 되는 힘이에요. 각자의 깊은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가 여럿의 감동으로 어우러졌을 때, 그 노래가 갖는 힘은 놀라워요. 사람의 마음을 울려내죠. 우리는 함께 모였을 때 늘 노래를 불렀어요. 음악이 갖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에요. 저는 아이들에게 합창의 과정을 함께 살아가는 과정으로 이야기 하고 싶었어

요. 함께 노래하며 얻는 아름다운 결과는 혼자서의 삶으로 얻어질 수 없어요. 합창을 하면서 다른 파트가 연습할 때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다른 파트의 노래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죠. 기다림이 필요해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기다림의 시간, 각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다름, 그것의 어우러짐으로 얻어지는 아름다운 결과를 배우게 되죠. 소중한 것들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깊고 넓은 과정의 여정이 필요하죠. 어렵듯이나마 아이들에게 이런 과정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음악이 가지는 설명하기 어려운 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음악의 힘을 어디에 써야 할까 고민이 필요하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의미 없는 노래들은 공허해요. 음악(노래)을 통해 나를 인식해야 해요.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 또 사물과의 관계를 인식하죠. 나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명료하게,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저는 음악(노래)이 나를 변화시켜내고 당신을 보다 아름답게 전환시키는 삶의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해요. 나를 일깨우는 음악이 주변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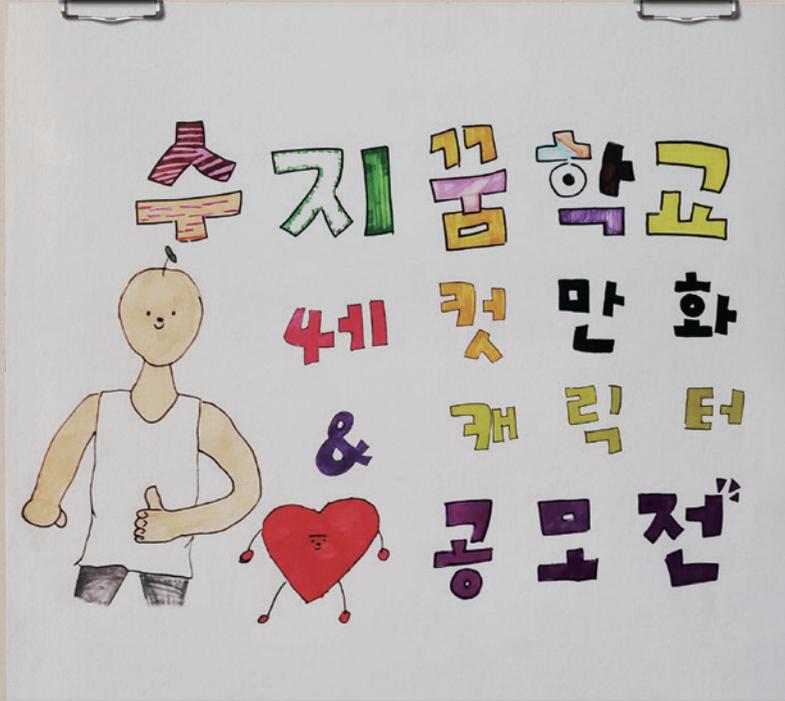
이번 합창 경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알고 싶어, 배우고 싶어,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어, 물을 기다리는 새 스펀지를 만난 시간.

수지꿈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여럿이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귀한 일이에요. 소중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그 소중한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요. **🌈**





만화로 만나는 아이들의 세계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편' 소식지. 가장 애독자는 누구?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보고 또 보고 너털너털해지도록 전편까지 또 돌려보는 아이들이 소식지의 열혈팬. 그리하여 그간 소식지 한 권을 심공하게 채워준 어른 금손들 대신, 올해는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가보고 싶었다. 마침 '보름달의 만화교실'과 학년별 작가들의 탄생, 채강도서관(이채현&강여울의 만화제작소)의 흥행에 힘입어 만화 돌풍이 돌고 있던 참! 평소에도 틈만 나면 만화를 그리고 미니책을 만들고 굿즈를 제작하는 등 사부작거리길 즐기던 아이들인지라, 편집위에서 내건 틈새 공모전 소식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고학년 언니들이 제작해준 공모전 포스터 아래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한 명당 한 장씩, 네 컷 안에 스토리를 꾸려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며 다양한 학년에서 많은 아이들이 응답해주었다. 등수나 선물이 없어도 자신의 작품이 소식지에 실린다는 것만으로도 신이 나서, 서로 무슨 그림을 그릴까 이야기 나누며 즐겁게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그런 만큼 아이들의 네컷만화는 하나하나 그 자체로 각자의 세계를 담아낸 작품이었다. 그 작품들마다 애정 가득한 시선으로 한줄평을 남겨주신 셋별과 보름달의 심사가 이 소소한 프로젝트의 정점을 찍어주셨다. 수지꿈에서는 이렇게,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셋별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상상력과 심오한 유머코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깊이있는 사유에 놀랐습니다. 앞으로의 작품들이 기대됩니다!

보름달 모두 아이들다운 상상력과 솔직한 감정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보는 내내 웃음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이 담겨 있어서, 이미 만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선에는 다들 서 있습니다. 지금처럼 즐겁게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 그려 나간다면 앞으로 더 멋진 만화가 나올 거예요!

공모전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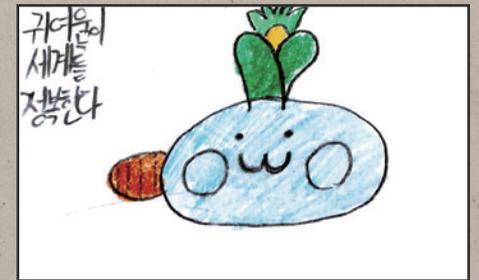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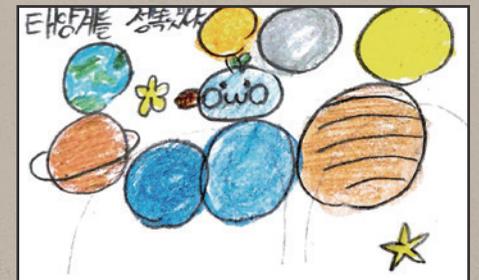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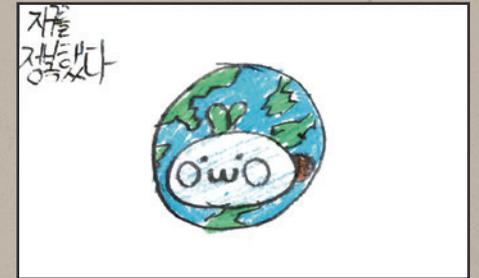
한줄 심사평_보름달/셋별

뭐가 있어? - 박상현



현대인의 서로에 대한 무관심을 훌륭하게 표현하였다.

똥지의 영토 확장 - 주선율



귀여움의 치사량 초과

공모전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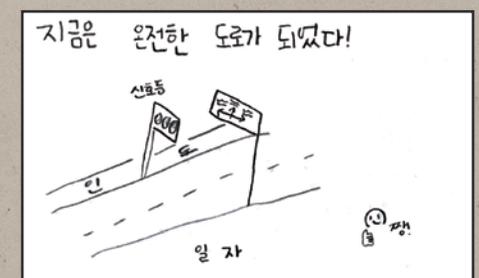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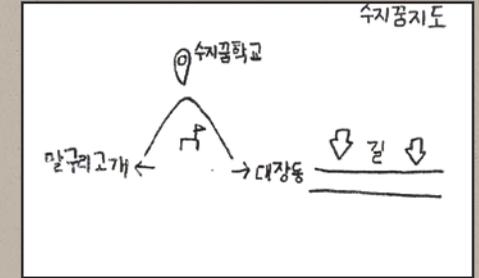
한줄 심사평_보름달/셋별

자연인 - 조수아

징징거리는 오징어의 지구탐방기 - 김의준

데굴데굴 - 이재현

눈부신 발전 - 김건태



그렇게 수지꿈학교의 학생이 되어간다

석식에 구워진줄 알고 굳침이 들었으나 탈출해버려 아쉽다

칸을 조각내는 센스가 일품이다

말구리 고개를 넘는 이들이 모두 봐야하는 만화

공모전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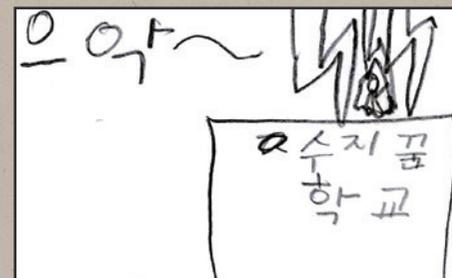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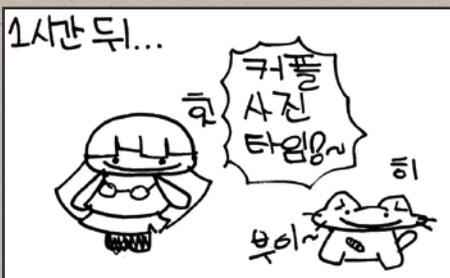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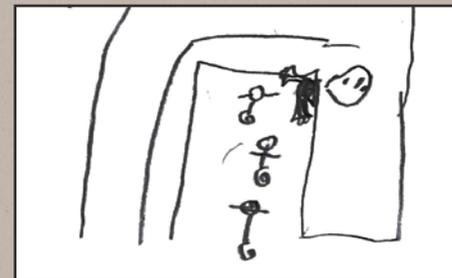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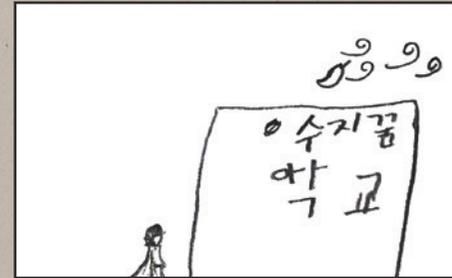
한줄 심사평_보름달/셋별

스마일바이러스 - 박서연

무제 - 강여울

마법학교 - 노준수

곰돌이 - 홍지우



한시간 싸운것 치고는 너무 멀쩡하지만 귀여우니 패스

하리보를 히리보로 표현하여 간접광고를 막아준 센스

학교에 번개가 떨어지는 상상은 나만 한것이 아니구나

화려한 컬러가 나를 감싸네

공모전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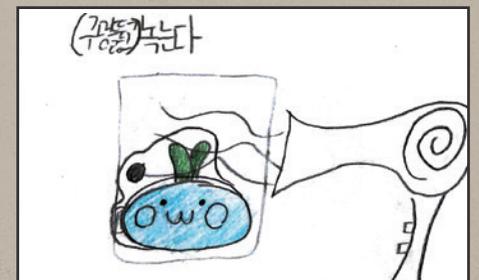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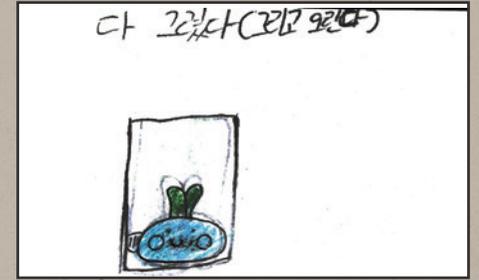
한줄 심사평_보름달/셋별

도망친 햄버거 - 이태희

여자아이와 가짜과자 - 김시현

버스 잘못 타서 걸기 여행
못갈뻔하는 상상 - 이해솔

똥지 키링 - 주선울



깨알같은 식탁의 리액션이 포인트다.

먹기 전 줄줄 흐르는 침의 표현이 좋다. 군침이 돈다.

누구나 겪어봤을 아찔함!

당신도 이 만화를 읽으면 키링을 만들 수 있다.



2025년 새로이 꿈며들어온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백하람_으샤으샤/아자아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부터 꿈학교에 오게된 1학년 백하람이에요. 우리 아빠 으샤으샤는 지금 다른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자주 못 봐서 보고 싶어요. 우리 누나는 사춘기라 가까이 가면 사나워져요. 하지만 가끔 놀아줄 때도 있어요. 그럴때는 좋아요. 우리 엄마 아자아자는 저를 사랑하는 걸 잘하지만 잔소리도 잘해요. 나는 맨날 심심해요. 그리고 축구를 좋아해요. 저는 꿈학교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누나에게 꿈학교로 전학이라고 했지만 누나는 싫대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요. 아자아자는 아이들과 광고산 시루봉에 등산을 왔어요. '아, 여기 학교가 있네.' 하며 꿈학교를 처음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1년뒤에 다시 찾은 꿈학교에서 '아, 여기 학교에 축구장이 있네.' 하며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신나게 축구를 했어요. 그 때 하람이는 이 학교에 오고 싶다고 했지요. '어, 어' 하면서 꿈학교에 오게 되었지만 하람이는 꿈학교를 너무 좋아하

는 꿈학교 전도사예요. 이제는 '아, 이래서 꿈학교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답니다.
보석을 찾아 구석 구석 뒤졌다. 반드시 찾기로 했다. 백 번넘게 찾아보다 많은 하늘 아래 광고산 밑에서 하람이는 찾았다. 수지꿈학교 1학년 보석반에서, 12개의 보석을.



정조을_하람/라랄라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아빠는 먹보입니다. 호빵을 한입에 먹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회사를 아침 일찍 갔다가 늦게 옵니다. 그래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참 특이합니다. 엄마는 테니스 갈 때는 귀찮다고 하면서 테니스를 칠 때는 정말 좋아합니다. 내 동생 조한이는 야구와 갈비탕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버섯입니다. 나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하루종일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지꿈이 너무 좋습니다.



정지안_파랑/노랑

1학년 지안이네를 소개합니다. 아이파크 13층에는 아치광이, 안마, 햄찌가 사이좋게 살고 있어요. 요즘 지안이는 몇가지가 합쳐진 생물들을 만드는데 꼭 빠져서 가족 모두에게 그럴싸한 별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치광이(아빠+산미치광이)
아빠는 뽕족뽕족 턱수염이

마치 호저를 닮아 지안이가 만들어준 별명이에요. 엄마는 기묘한 비유와 이름이 아주 딱 마음에 들어요. **안마** (안경원숭이+엄마) 아마 엄마가 안경을 껴서 만들어진 별명 일텐데 큰 눈을 가진 귀여운 동물을 선택해줘서 그저 고마워요. **햄찌**(햄스터+찌) 햄스터처럼 동글동글 귀여운 지안이와 함께하는 13층에 놀러오세요~



김제희_바위/아나니

우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김제희, 아나니, 바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월, 화, 수요일은 같이 지내고 목요일엔 시골집에 갑니다. 우리 가족은 우당탕탕당당 재미있는 가족입니다.

김시현_번듯/산뜻

어느 날 시현이가 말했습니다. "아, 수지꿈학교 다닌다고 하길 잘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학교가 너무 좋대요. 수지꿈을 다니며 시현이는 좀 더 의연하고 많이 웃고 꽤 까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동생 도현이는 덩달아 학교 언덕을 오르 내리며 후배가 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고 엄마 산뜻은 맨날 시현이를 부러워합니다. 아빠 번듯은 이런 세 사람을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구요. 재미났던 첫 해를 돌아보며 시현이네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지꿈에 오길 참 잘했다고.



임유준_생크림/케이크

유준이에게 어린이집과 학교, 어디가 더 재미있냐고 물으니 '학교가 조금 더 재미있어' 라고 말한답니다. 쉬는 시간이 적어 아쉬워하기도 하고 축구 시험에서 지고 온 날은 나라 잃은 것 마냥 슬퍼하며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학교 생활에 스며들어 즐겁게 다니고 있답니다.

유안이는 어느새 4학년이 되어 수지꿈 중학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살림반이 되면서 여러 형, 누나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준이를 포함한 학교 동생들을 잘 놀아주는 장난꾸러기 형이랍니다. (엄마가 잘 놀아준다고 했지 나는 놀아주지 않는다.)

생크림, 케이크는 학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고, 따뜻한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느끼고 있답니다.



조은솔_땃동/땃동

안녕하세요! 폭설의 어느 날 영당이 눈썰매 타는 은솔이 체험수업사진으로 수지꿈을 결정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영당이 눈썰매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카페 가족소개 글을 참고해주세요!) 눈 깜짝한 사이 지나가버린 2025년은 수지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등학교가 너무 힘들어 차를 한 대 더 사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아니냐!!! 했지만 그래도 역시 배가 훨~씬 크다는걸 알려준 수지꿈!!! 마음만큼 시간을 내지못해 아쉬움도 너무 많았지만 다들 함께 채워주신 덕분에 무사한 한 해였습니다. 언제나 마음 열어 반겨주시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수지꿈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지꿈에서의 1년은?

땃동_아이 둘을 데리고 머내만세운동 행사 참석했을때 함께 살피주고 챙겨주셔서 큰 감동이었고, 최근에 했던 아빠들의 먹거리 부스 행사! 준비부터 뒷풀이까지 완~벽!! 너무 즐겁습니다. 수지꿈!!

땃동_고고쌤 그리고 보석이들과 첫만남♡, 세계로의 만우절, 첫 들살이, 성대결절 올뻐한 운동회, 다함께 걸어주신 무아투어, 여백과의 시간, 돌봄선생님들의 보살핌, 보석반 들살이.. 등등 어느 하나 잊을 수 없는 수지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은솔_만우절에 갔던 큰 놀이터랑 물놀이터에서 놀았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또 가면 좋겠어요! 계속 다니고 싶은 수지꿈!

이솔_큰언니들이 많이 놀아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수지꿈이란?

땃동_우리집에 행복한 자유인이 생겨서 행복해요

땃동_(거리는)멀지만 (마음은)가깝고, 가깝지만 멀긴 한 곳...?

은솔_오르막길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솔_나는 언제 가?



정유준_바당/요미땅

세.빛.위 막내 정박사 정유준을 소개합니다. 우리 유준이는요. 자연을 좋아하고, 창의적 생각을 즐기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호기심도 왕성하고, 가족들과 티타임하며 대화하기를 즐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어릴 적부터 "우리 유준이는 어디가 제일 예쁘지?"라는 질문에 "유준이는 마음이 제일 예뻐요."라고 대답했던, 마음이 따뜻하고 예쁜 친구랍니다. 나이 차가 한참이나 나는 형, 누나는 유준이가 태어 난 덕분에 본인들이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집 막동이 정유준이랍니다.

공교육에 실망해서 첫째, 둘째를 국제학교에 보내고 한 참 시간이 흐른 뒤에 막동이 유준이를 다시 공교육 시스템에 한 달 반을 보냈으나 이전보다 더 획일화되고, 편의주의적 단속으로 일관된 교육과정에 과감히 수지꿈학교를 선택했었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놀 수 있어. 선생님이 애들이랑 놀아 줘. 학교가 풍경이 참 좋다. 여기는 나뭇가지도 가지고 놀 수 있어." 유준이가 수지꿈학교에 며칠 다녀오고 나서 한 말을 듣고, 우리 가족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수지꿈학교에 입학한 유준이가 적응하는 동안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수지꿈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하루하루를 감사히 보내고 있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이면 유준이가 들려주는 즐거운 학교 생활 이야기에 귀를 쫑긋하고 앉아있는 바당과 요미땅, 형(유준이와 띠동감. 유학중이라 방학 때만 들을 수 있어 무척 아쉬워 함), 누나(유준이와 9살차이), 다운(2살된 동경이)이는 내년에도 기대만땅입니다.



최아론_퓨마/논사람

오늘도 아론이가 신나게 공학교로 뛰어들어갑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뚝뚝거리는 모습을 보며, 함께 라이딩하는 우리 부부의 마음도 덩달아 밝아집니다. 일반 학교에 다니다가 "절대로 전학은 싫다"고 했던 아론이가 수지꿈학교 생활을 체험하고는 마음을 완전히 바꿨답니다. 그렇다면, 아론이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론아, 뭐가 그렇게 좋았니?" 라고 물었을 때, 아론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수지꿈은 쉬는 시간이 길어. 수업 끝나면 바로 나가서 뛰어놀 수도 있어."

아이의 마음이 스르르 풀린 건, 바로 그 자유 속에서 진짜로 놀았기 때문이었어요. 아이가 정말로 눈 경험에 눈빛 속에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

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새까맣게 그을린 뒷목, 거칠어진 손톱이 그만큼 많이 만지고, 뛰어놀았다는 증거였죠. 수지꿈학교에 적응해가며, 형아가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동생 요안이의 마음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형아가 만든 낙산산을 보고, 요안이도 집에서 폐품을 찾아 오리고 만들기를 시작했죠. 요즘 동생도 공학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나도 형아처럼 공학교 갈래! 만들기도 많이 하고 싶어."

또한 학교에서 메뚜기를 먹고 돌아온 날, 아론이는 할아버지에게 신나게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 할아버지는 아론이와 함께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학교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이렇게 집안 어른들과도 추억을 공유하게 만들다니,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에요. 자연을 벗삼아 세계절을 온전히 느끼며 하루하루 자라나는 아이들. **공학교에서 잘 적응하며 점점 더 밝고 자신감 넘치는 아론이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기심 많고 서툰 아론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는 수지꿈학교의 모든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친특_목성/금성

안녕하세요. '여기가 무릉도원이구나!'라며 수지꿈학교에서 잘 놀고 열심히 지내고 있는 1학년 최특과 금성&목성입니다. 아래로는 특이가 직접 쓴 글입니다.

"저희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엄마는 저희에게 하트화살을 발사하는 여신같이 따뜻합니다. 아빠는 저를 베이비시터처럼 잘 돌봐줍니다. 저는 엄청난(그렇게 엄청나진 않고) 장난꾸러기입니다. 수지꿈 별점☆☆☆☆☆☆☆☆개! 그리고 점점 더 유쾌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1학년에서 1등 장난꾸러기가 아닌 걸 아쉬워 하는 최특. 저희 부모도 특이와 함께 유쾌하게 잘 놀고 열심히 지내는 수지꿈가족이 되어 보겠습니다.

홍우찬_집냥/길냥

우리집은 아빠, 엄마, 누나(홍지우), 동생(홍우찬), 레이, 달리 (줄여서 래달리)로 이루어진 6가족 (고양이 포함) 입니다.

바로 윗층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요. 누나는 수지꿈학교에 올해로 3년째 다니고 있고, 동생은 올해 처음 입학했어요! (1학년)



김서희_그레/조아 이렇게 재미지다니, 그레! 조아~씨!!

7월반의 유일한 여!학!생!!(내 딸 장하다!!)으로 편입 이후 하루하루가 새로운 서희네입니다. 서희의 교육환경이 바뀌는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 모두가 교육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삶의 전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레는 어느 순간 달리기 모임을 만들어 대회를 열고, 조아는 마트운동도 못했는데 고기리 언덕을 넘나들고 있네요. 방학은 당연 뒹구는거다 생각하던 서희가 여름방학 내내 후달리며 숙제를 하기도 했구요. 온 가족이 공동의 학교 스케줄로 움직이고, 더러는 동네까지 배움을 넓히며, 서희는 체험활동으로 전국을 누비니 저희 학교의 교정은 비단 광고산 아래를 넘어 훨씬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듯 합니다. 닉네임을 정하며 입에 붙지 않아 깔깔 거렸지만, 이제 그레와 조아는 저희의 일상이 되었네요. 모두 고마워요! (서희의 수지꿈 일상은 네컷만화로 이어갈게요!)



<서희 네컷만화_벌레>



<서희 네컷만화_목공수업>



따스함의 대명사 채송화쌤이자 장세정작가님의 진한 대화

인터뷰 _ 잔디, 비아



시집들을 출판하신 작가 선생님으로서, 영감을 주었던 학생들과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제 시집을 읽고 “이건 내 이야기야!”, “이건 누구 이야기야!” 하며 무척 신이 났었어요. 특정 아이 이름을 넣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여러 아이들의 일들이 합쳐져서 자연스럽게 녹아 있거든요. 특히 똥 닦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와 저만의 비밀이지만, 화장실 사용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1학년 아이들 각각의 상황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이죠. 텃밭에서 아이들이 기른 꽃과 풀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어요. 열심히 키웠는데, 어느 날 보니 고라니가 모두 뜯어 먹어버린

거죠. 너무 속상한 나머지 “고라니 잡으러 가자!”부터 시작해서 욕도 하고 엄청 화가 나죠.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해요. “고라니가 먹고 싶을 만큼 우리가 잘 길렀나 보다.” 아이들은 시무룩해졌지만 시간이 지나 비슷한 일이 또 생겼을 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맛있게 길러서 그래.” 아이들은 시선과 관점을 살짝만 바뀌어도 금세 배우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느껴요. 고라니가 정말 텃밭으로 내려와 아이들이 키운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리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고라니 발자국도 있고, 똥도 남겨 있는데 그게 분명한 증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밤새 다녀간 고라니를 상상하게 되죠.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당시 우리가 그 속에 있어서 스쳐 지나가지만, 시간이 흐른 뒤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일도 많아요. 이런 생활 에피소드는 제 글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교사로서 힘든 순간도 있으실 텐데 그럴 때 붙잡는 문장이 있으신가요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에 실린 시예요. 반모임 중에 부모님들께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인생 최고의 선생님
매해 갱신중!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이 스스로에 대한 그리움으로
불러온 아들딸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오지만
당신에게서 비롯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으나
당신의 소유는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당신의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줍은 여러여러 채송화? NO!
아이들 앞에서는 웃음 제조기 ON~

이 시를 떠올리면, 아이는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존재라는 걸 다시 상기하게 돼요. 교육자로서 목표를 갖고 아이들을 바라보기 쉬운데, 자칫 그 목표가 ‘내 목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한 걸음 떨어져 아이를 바라보려고 해요. 시간을 주면 아이는 반드시 자기답게 성장한다는 걸 여러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었어요. 20년 전 대안학교에 오기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아는 것’과 ‘아이들과 함께 살아보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점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제 것이 되어 가는 느낌이에요.

엄마로서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에 걸맞게 저도 성장시키느라 숨 가쁠 때가 많아요. 선생님은 여러 아이들을 경험하시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아이들은 분명 스스로 잘 자라지만 기질과 특색이 모두 달라요. 조금만 케어해주면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가 있고, 자기가 알아서 하려는 아이도 있어요. 부모가 아이의 기질을 알면 서로가 훨씬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대화와 질문이 정말 필요하죠. 때로는 의도가 있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엄마가 이런 의도가 있었어” 하고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아이는 그 안에서 조율점을 찾아요. 아이들은 엄마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엄마도 나를 위해 내려놓는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도 고려하는 방법을 배우고 찾아야 해요. 아이는 정서적·신체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 우리가 꾸준히 서포트해야 하고요.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한 일이에요.



아이들 곁에 핀 채송화~

학생들이 글로 자신의 삶을 풀어낸 뒤 변화가 보이는 경우가 있나요?

눈에 띄는 변화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분명히 글에는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돼요. 때로는 ‘잘 써야 한다’는 강박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글을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글은 소통의 매개일 뿐이죠. 글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글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1학년은 아직 생각이 정립되지 않아 글에 그대로 나타나고, 4학년쯤 되면 생각이 시가 되고, 5학년에는 긴 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관점이 드러나요. '민들레'라는 주제가 있다면 저학년은 민들레를 본 느낌을 쓰고, 더 자라면 민들레와 자신을 비유해요. "나도 아기였다가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되는 것처럼, 민들레도 예쁘게 피었다가 시들어가네. 민들레는 어디로 가지? 죽나?" 이와 같은 생각어요.

채송화는 수지꿈 학부모이기도 하셨잖아요. 예전과 지금의 수지꿈을 생각할 때 달라진 점이나 변함없는 점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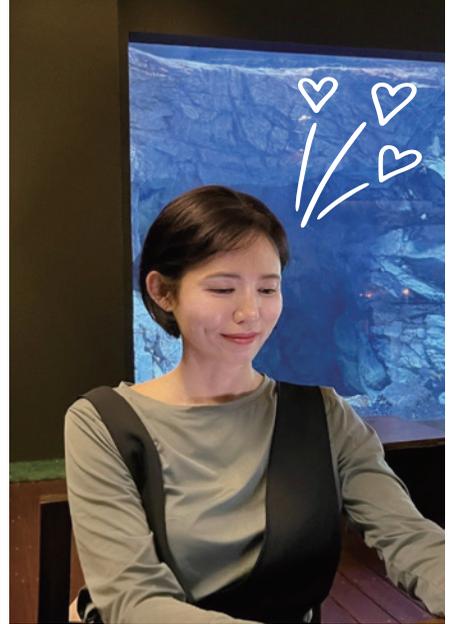
저는 교사로 먼저 왔다가 좋아서 제 아이도 보내게 된 케이스예요. 초창기에는 대안교육의 체계가 자리 잡기 전이라 교사들도 함께 밤늦도록 회의하며 열정적으로 지냈어요. 지금은 체계가 잘 잡혀 훨씬 안정적이에요. 대안교육의 색깔은 다소 없어졌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다양한 교육과 생각을 보다 폭넓게 받아들이고 맞춰가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여러 자극 속에서도 미디어나 관계의 규칙을 지켜가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다만, 요즘 부모들의 불안도는 오히려 높아졌죠. 그럼에도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뭐라해도 아이는 자기 인생의 길로 간다는 사실어요.

최근 실용 학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수지꿈에서 중요시하는 인문학 중심 교육의 의미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수지꿈 학교는 기초과학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인문학은 결국 '사람'을 배우는 학문이죠. "사람이 왜 태어났지? 왜 살지? 어떻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할까?" 기능적, 기술적으로 답이 있는 건 습득하면 되는데, 이런 질문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먼저 알아봐야 하고요. 자신을 이해해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존재들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야?'라고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초등 고학년이 되면 그동안 쌓아온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도 더 주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인문학적 기반은 사고의 힘을 키워주고, 다른 학문을 이끌어갈 경우 내적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BTS도 따로 인문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삶에 있어 어려움이 올 때 그러한 바탕이 문제 해결력을 만들어 줘요. 반대로 바탕이 없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단순 암기와 반복하는 주된 학습 분위기가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는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통해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있으신가요?

기독교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아이들도 50프로 확률로 존재하기에 존중합니다. 믿는 아이는 신의 에너지를, 믿지 않는 아이는 우주와 자연이 주는 섭리를 느낄 수 있어요. 거대한 세계가 조화롭게 흘러간다는 믿음,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지꿈을 졸업할 때 마음에 품고 가길 바라는 것

세 가치를 꼭 전하고 싶어요. 첫째, 나는 지금 그대로 충분하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죠. 감사일기를 쓴다면 "내가 나서서 감사하다"라고 쓸 수 있을 만큼의 자기 인식이에요. 둘째, 나는 성장하는 존재다. 힘든 일도, 좋은 일도 모두 배움의 과정이라는 걸 아는 것. 지금 겪는 이 일이 과정인 것을 알면 잘 지나갈 수 있어요. 셋째, 나는 세상에 보탬이 되기 위해 왔다. '충분한 나'가 '더 성장하는 나'가 되어, 나의 앞으로의 길과 관계를 열어가며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수지꿈 학부모님들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이미 너무 잘해주고 계시기에,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부모님이 학교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니 교사들은 아이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와 한 발짝 떨어져 '나'를 먼저 챙기는 것.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때로는 사랑이 아닌 것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사랑한다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행복한 것이 먼저'이고, 그 행복으로 아이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게 두 번째입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전부'가 되면 부담이 되기도 해요.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지만, 아이는 이미 잘 될 준비가 되어 태어난 존재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10년 뒤 수지꿈의 모습은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일단, 학교가 지금보다 높아져 있을 것 같고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떠올려요. 그리고 수지꿈을 졸업한 아이가 교사가 되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기동에 그 학교 있잖아!" 하면 모두가 아는 수지꿈학교가 될 것 같아요. 🍀

장세정 작가님의 따스한 글과 동시를 만나보세요



아들 부모님들의 최대 궁금증. 남자 졸업생은 없나요? 고학년 1회 졸업생 이강민 선배와 sunset반의 만남

지금의 터전에서 맞은 첫 겨울. 졸업하고 성인이 된 열댓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1박을 한다는 소식에 참 반갑고 흐뭇했던 기억이 있다. 누군가 군대를 가서 모였단데... 세상에! 알고보니 그 군대갔던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인터뷰 _선셋반, 비아, 올챙이



Senset 반 후배들이 손수 만들어준 푸짐한 점심과 함께 설레이는 어색함으로 서로 마주 앉았다. 무엇이든 질문하라는 선배, 눈 마주치기도 수줍은 후배들. 그렇게 시작된 인터뷰.



수지꿈을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에서 처음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땠나요?

강민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특별한 기억이 없어요. 보통은 근처 중학교에서 오다 보니 서로 아는 친구들이 이미 있었을 텐데, 저 혼자였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사귀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부모 졸업했던 다른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들었던 기억도 없나요?

강민 네. 기억에 없는거 보니,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학교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학교 이름이 뜻은 좋죠. 초등학교는 희망이 넘치고 좋은 이름인데, 사춘기나 고등학교 가서는 입 밖으로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달까.(웃음)
부모 오! 이런 얘기 이 친구들(sunset반)도 했었는데, 이 정도면 다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게 필요하겠네요.

강민 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다른 학교를 갈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강민 항상 새로운 데 가면 설레이는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솔직히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기대하고 가서 잘 하는거죠. 여기서도 잘 지냈기에 다른 곳에 가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어요.

수지꿈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르다고 느껴지는게 있었나요?

강민 수지꿈에서 벗어나서 보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이기 보다는, 수지꿈에서는 좀 더 따뜻하고 배려하는 삶을 배웠는데, 밖에서 만난 어떤 사람들은 다르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내가 살아가고 배워온 방식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스무살이 되면 수지꿈 생활을 기억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배님은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강민 삶의 가치나 태도 같은 만져지지 않는 무언가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진 않아서 지금도 나중에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수지꿈에서는 그 삶의 결이 비슷한 친구들이고 환경이니까 모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겪다 보면 내가 수지꿈에서 체득한 가치나 태도를 알게 될 거예요.

그 시절? 수지꿈은 어땠나요?

강민 제가 다녔을 때 수지꿈학교는 아직 영구터전이 아니었고, 정립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상태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불안정했던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 가는 기회는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일반고를 가셨는데, 학업은 어땠어요?

강민 시험이나 공부라는 체계에 적응해 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후배 적응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은요?

는 자연스럽게 정해진 초, 중, 고로 진학하고 대학도 자연스레 가게 되어 실제로 '내가 이 학과랑 잘 맞는지, 내가 하고 싶은것이 무엇인지' 같은 고민이나 방향을 대학에 와서 하는걸 봤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이전에 좀 더 크게 대학고를 갈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가보지 않은 다른 길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걸 봐요. 그런데 일반학교 코스를 밟는 친구들에게는 그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운동 좋아하세요?

강민 가끔씩 헬스를 했었는데, 바빠서 못 했거든요. 요즘에 살이 조금 썩는 것 같아서 러닝을 좀 하는 중이에요.

군대는 어때요?

강민 벌써 고등학교 다음도 걱정하네요. 솔직히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제일 막내니가 열심히 했고, 시간이 지나면 아래 애들이 내 말도 잘 듣고, 초반에 열심히 하면 나중에 편합니다.

부모 꿀팁이네요. 처음에 잘하면 나중에 편하다! 연후야, 들었니?

그 이후

1. 후배들과 만난 소감은?

중학교 나이대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 대화하니 재미있었습니다.

2. 후배들이 차려준 점심은?

친구들이 음식 솜씨가 좋아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3. 수지꿈 시절의 색깔은?

그 시절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시

절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바뀌어서 아직은 미지의 색!

4. 대학 졸업후 계획은?

사회로 나가야죠. 다만 회사의 부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5. 수지꿈 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든 후회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재밌게! 싫증날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민 가치관이 먼저 형성되고 그 위에 공부나 진로가 쌓이는 건데, 학업적인 부분은 여기서 충분히 못 쌓았다 치더라도 그 바탕에 가져가는 걸 잘 쌓았다 생각해요. 위에 쌓는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준비해서 대학을 가셨죠. 일반 학교 갔으면 바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는 없나요?

강민 불안함은 없었고 살면서 공부 한 번 해 봐야지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일반 학교 나온 애들은 고민을 하기보다

교사 사실 우리가 다 살고 나서 보면 그 2,3년 별거 아닌 거잖아요. '시간을 두고 충분히 찾아봐라. 다른 경험을 해라' 라고 오히려 더 권하고 싶은데, 보통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요즘 취미는 뭐예요?

강민 원래는 술 좀 마시다가 요새는 좀 못 마시고. 이번 여름방학 때 자격증 하나 땀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자격증도 공부하고 있어요. (취미가 공부?!)

대학교 가면 여자친구 사귄 수 있어요?

강민 여기서도 사귄 수 있을 것 같은데? ㅎㅎㅎ

이후로 서로의 MBTI, 연애 이야기 등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어졌지만, 아주 사적인 이야기는 함께한 이들의 추억속에 남기며 마무리 합니다. 배려와 유머가 공존하는 밥 잘사줄 것 같은 멋진 강민 선배! 선배와 후배가 함께했던 그 시간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던 시간이었길 바라며! 20주년에 다시 만나요. **🍷**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졸업조합원 한가위와 (원조)엄지를 만나다!

입학 초기 짧은 몇 년, 밥챙알챙과 소풍에서 스치듯 만났던 한가위는 늘 온화한 미소를 품고 있는 넉넉한 선배였다. 사전조사 차 네이버카페에 '한가위'를 뒤지면 수많은 한가위 덕담들을 뒤로 하고 2017년께 그의 치열한 활약상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런 그가 다소곳이 앞치마를 매고 우주소년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으니.. 그리고 현재 우리의 엄지와 너무나 흡사한 말투와 우아한 분위기를 지닌 원조 엄지의 등장까지. (유전자의 힘이며!) 이분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전년도 졸업생 릴레이 인터뷰 주자였던 잼이와 까미가 주저없이 지목한 그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보았다. 글_ 비아



우아한 원조 엄지와 한 시대의 거장, 한가위
그리고 우주소년을 귀여움으로 초도화시킨 밍슈~

잼이와의 인연은?

> 잼이와 함께 커피내리는 모습은 예상치 못한 장면인데요.

> 아빠와의 산행에서 친해졌어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동등하게 지내는

것의 가장 모범은 잼이죠. 이야기가 참 잘 통했던 믿음직스러운 친구였어요. 수지꿈에서는 공동체로 만난 것 자체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매력인 것 같아요. 커피는 미국 유학시절에 배워서 진하게 즐기고 있었는데 지금도 우주소년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네요.

수지꿈 첫 아빠대표의 탄생

> 개구리가 아주 오랜만에 아빠대표가 된거라 들었는데, 한가위께서 수지꿈 사상 첫 아빠대표셨다고요.

> 그전에는 아빠 일꾼이 한 명도 없었다가 자전거, 팬더와 함께 남자 세 명이 운영위에 들어가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시작

했어요. 아빠들이 전부 노트북을 들고 나타났던 첫 회의부터 다름이 드러났죠. 아빠들이 시스템적인 면에 대해 문제 제기를 시작했고 그러다 그 당시 학부모 대표를 올리기가 시작했어요. 이전의 관행들과 앞으로의 시도가 부딪혔던 시점이었죠. 운영이사 이후 다음 해 2017년에 첫 아빠대표가 됐고요. 금전적인 문제나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들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운영규칙과 정관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예전에는 카페에 회의록이 잘 올라오지 않았는데, 아빠들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었죠. 대표가 되면서 예민한 것들은 자세히 쓰지 않더라도 모든 자료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건축위원회, 그리고 영구터전

> 그런 아빠들의 에너지가 있었기에 영구터전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대표 시절 건축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 해에 건축위원회가 출범해서 건축에 관해 모든 것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건축위원장으로 자전거, 총무로 잼이 등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었고요. 앞으로도 그 건물이 마을에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생 민서 이야기

> 수지꿈에 다닐 때 민서는 어땠나요?

> 민서는 일반 학교를 잠깐 다녔어요. 민서가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아이들이 추운 운동장에 줄 서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걸 보니, 이게 제도권의 시작인가, 나도 이렇게 학교를 다녔었는데, 하며 고민이 시작되었고 3일만에 부부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걸 깨달았어요. 알아보다가 금요일에 바로 수지꿈 면접을 보고 체험을 거쳐 입학했죠. 3일 다녔지만 일반학교 경험이 있는 편입생이예요. ^^

민서가 외동이어서 어렸을 때 자기 위주인 면이 있었는데 수지꿈에서 형제자매가 생긴 것이 좋았어요. 진솔이랑 6학년 때 1학년 아이들을 연습시켜서 같이 뮤직비디오도 찍고, 말 안 듣는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엄청 큰 냄비에 떡볶이도 해 먹어보고, 그렇게 두루두루 잘 지내다가 일반학교를 가니 장단점을 스스로 느낀 것 같아요. 공부를 잘 하고 싶어서 학원도 많이 다녀봤는데, 갑자기 친구와 같이 이우학교 설명회를 다녀오고는 지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우고 2학년인데 다시 말이 통하는 친구들을 만났다고 해요. 그러다가도 가끔 성격이 안 나오거나 할 때 자기 공부 좀 더 시키지 그랬냐는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민서는 좋아하는게 너무 확실하고 그걸 시도하고 찾아가는 아이예요. 꿈학교에서 이것저것 해보고 산에서 놀고 함께 어울렸던 것이 큰 바탕이 된 것 같아요.



당장 빛을 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반과 방법 같은 것을 수지꿈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 순간순간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일부적인 것일 뿐이고, 아با엄마 없이 살아가야 할 때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맛보는 시간? 자기만의 세계를 찾고, 거침 없이 결정할 수도 있고 주저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기반을 닦아주는 곳이었다 생각해요. 부모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교육 방식이다보니 결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한발 떨어져서 보는 지금의 수지꿈

옛날 같지 않게 수지꿈학교가 마을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처음 참여했던 것이 맹달을 선두로 했던 머내만세운동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수지꿈학교가 마을에서 조금씩 포션을 잡아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전에 동천마을네트워크 지도에 수지꿈학교만 빠져 있고, 이름도 틀리게 들어가 있곤 했는데요. 빙그레가 계속해서 북 가르치고 아이들이 공연하고 행사 때마다 앞장서 주는게 자랑스럽죠. 새로 오신 분들이 마을에서 노력하고 시간을 보내는 만큼 공동체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수지꿈 부모들에게

자기 자신을 믿어라, 아이를 믿지 말고 자기를 믿어라, 아이는 아이대로의 인생이 있다,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믿자, 아이는 어차피 나중에 다 잘할 거다, 우리보다 좋은 교육을 받고 있으니 좋을 수 밖에 없다, 라고요.

내가 있어 모두가 있듯, 모두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 17년 한가위의 학부모대표 당선 글에서

현재 터전 증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 예상 인원 80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는 말에 놀라며, 선배들 지갑은 늘 열려있으니 주저없이 컨택을 하라신다. 천만하자 2탄을 개시할 타이밍인가?! 개인적으로는 소풍에서 함께 복채를 잡을 날도, 밥챙알챙 10주년 기념공연에서 OB/YB로 한 무대에 설 날도 기대된다. 문득 기뻐 언덕이 있었음을 깨닫는 듯,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선배들을 찾아가는 길은 따스함 그 자체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 🍀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만의 보물



서연이네 주말 풍경

박스비



알나인티를 탄 공간차이_조수아



15년째 제 건조한 코를 지켜주는 골동품 가습기입니다~ 겨울엔 이것 없인 못살아요



별

초코와 레오 손유담



우리 집 고양이 초코와 레오예요. 초코는 호기심이 많고, 레오는 아기 같은 장난꾸러기만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



새크림의 아이들_임유안



와디

음식이 전에 인센스에 불을 붙여 향을 맡습니다.



가루입니다! 상상형제

나의 행복하게 해주는 나만의 보물

상(원) 네 집엔 첫 있습니다. 올해 '가루'예요. 어릴 때 털 빛이 밀가루처럼 새 하얗다고 해서 '밀'가루'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자라면서 노르스름한 털이 나와 '(콩)가루'에 더 가까워졌답니다. 상상형제가 태어나 자라온 모습을 함께 지켜본 사랑스러운 첫째예요.

상(현) 형제 째 누나가 만 14살인 만 14살인

헤드폰으로 음악 듣는 걸 좋아합니다



반해원



몽그래

안녕! 내 이름은 몽그래야. 수지꿈학교 친구들의 마음속에 반짝이는 '꿈(夢)'과,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는 '그래'가 만나 탄생했어! 내 머리 위에서 빛나는 별 안테나는 친구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내 몸의 알록달록한 색깔들은 우리 모두가 가진 서로 다른 재능을 의미해. 꿈을 향해 달려가다 지칠 때 언제나 나를 찾아줘!!



"김-동! 당동! 회가 도착했습니다!"

대동_조은솔

아름이와 도니_김하울



우리 집엔 카우치포테이토가 산다

송하네는 개와 고양이가 함께 살고 있어요. 5살이 된 소복이는 수지꿈학교 친구네 개가 새끼를 낳아 분양받은 친구입니다. 우리집에 처음 왔을 때 눈이 마당에 소복이 쌓인 날이어서 이름을 소복이라 지었답니다. 그리고 6개월 된 고양이 케이지. 올 가을 어느 날, 상처입은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도우너를 집사로 간택해 준 덕에 함께 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는 케이지 주유소에서 만나서 이름이 케이지입니다. 소복이와 케이지는 같이 장난도 치고 나란히 낮잠도 자며 사이 좋게 지냅니다.

케이지와 소복이_이승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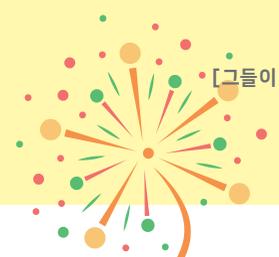


지안이네는 애교쟁이 '도도'와 귀염둥이 '똥키'가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알레르기를 무릅쓸만큼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노랑_정지안

나의 행복하게 해주는 나만의 보물

[그들이 알고싶다]



고기엔 진심인 번듯_김시현

번듯_김시현

엄마 슈슈와 아들 볼트, 볼트의 첫째를 축하해주세요!!



라랄라_정조을



연우, 여우, 솔이 가족의 마음집터, 지리산 어느 작은 마을

수아네 꼬야!! 인사올립니다!



언제나 귀염뽀짝 존재감으로 우리 가족에게 사랑을 알려주는 꼬야!! 우리 집 셋째 아들. 아주 귀엽고, 상큼 발랄하며, 귀염뽀짝함을 온몸으로 실천 중입니다! 수아가 부를 땐 '치즈떡', 아빠가 부르면 '똥개', 언니에게 '똥꼬', 그리고 엄마에게 언제나 경겨운



'이눔 자식'!! 목화솜을 뭉쳐 놓은 듯한 털 덕분에 빗질은 필수지만, 빗질을 싫어한다. 빗질 담당 엄마를 가장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제일 싫어하는 사춘기 아들 같다. 필요할 땐 착 달라붙고, 싫을 땐 모른 척하는 그 미묘한 거리감까지 완벽하다. 어느덧 5살. 유치원에서 김장도 하고 가끔 스벅 알바도 다녀오며 세상을 배우고 있다.



다운이와 유준(정)이_요이땅

유기전에서 천연기념물(경주개 동경이)이 된 반전 매력의 다운이! 겁 많고 조심성도 있지만, 친해지면 리트리버도 울고 갈 친화력을 뽐내는 순둥이랍니다. 유준이네 가족에게 찾아온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 다운이를 예쁘게 봐주세요!





특집 : GOOD BYE 네로가족

졸업을 앞두고

- 앞으로를 열어갈 여러분께 보내는 감사와 당부

글_네로

2016년 입학하고 십 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 들어왔던 승현이가 2026년 2월 15회 졸업생이 되고나면 저희 가족의 장정은 마무리됩니다. 대안교육의 'ㄷ'도 모른 채 발 담갔던 저희 가족이었는데 십 년이라니, 어떻게 헤쳐왔나 싶습니다. 졸업이 임박했구나, 느꼈을 때부터 떠오르던 말이 있었습니다. '저학년 시절 많이 들었어요. '수지꿈학교는 아이도 성장하고 부모도 성장하는 곳이다. 함께 입학하는 것이다.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부모도 성장하려 힘써야 한다' 대안교육을 몰랐어서, 너무 모르면 늘 불안하고 쉽게 흔들릴 것 같아서, 과하지 않은 정도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 보면 십 년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지지고 볶는 동안 '지금과 달리 사는 삶'이 여전히 가능성을 알게 됐습니다. 주류(?)의 생각과 행동에 주눅들지 않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아이와 나의 삶을 분리해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지꿈학교에서 성장하며 단단해지듯이, 저희 부모에게도 내면의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기록했고 십 년치가 쌓였습니다. 졸업을 앞둔 올해, 후배 부모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소식지에 써보면 어떻겠느냐는 편집위원회의 제안이 나온 배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산발적인 기록들을 이 참에 정리해보자는. 그렇게 압축한 꼭지는 여덟 가지였습니다. 수지꿈학교의 설립 초기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지난 십 년에서 새로 발굴한 꼭지도 두어 개 있음을 감안해주세요.

역사를 잊은...미래는 없다

대안교육의 역사를 개괄하고 그 안에서 우리 학교가 걸어온 궤적은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을 짚어가며 신입 부모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의 발걸음 자체가 큰 감동으로 전해지고 각오를 다질 수 있게끔 다가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학교의 역사는 그만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바른 먹거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배경, 학교밖 청소년 조례와 급식 조례에 이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개정 활동 과정, 영구터전에 갖든 의도, 작은 규모임에도 지역과 함께 하려 애쓰는 연유, 스마트폰을 위시한 화면기반 기술에 높은 강도로 공동대응하는 이유 등 자랑해야 할, 자부심을 심어줄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선배 부모들의 엄청난 부모 참여 활동과 도전의 역사로 비교적 안정된 학교입니다. 그 덕에 여러분들도 이 곳을 선택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학교를 건강하게 존속시켜 앞으로 입학할 후배들에게 온전히 넘겨줘야 합니다. 내 아이, 내 아이와 함께 다녔던 아이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부모들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부모의 참여가 적어지면 우리 학교는 돌아가지 않으며 지속될 수 또한 없습니다. 역사를 알고 다른 부모들과 같이 살아내면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껴야 미안함과 고마움이 버무러지는 체화 과정이 일어나 생각도 행동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가 지나온 길은 몰라도 될 만큼, 관심 안뒤도 될 만큼, 참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알려 했고 관심가졌고 참여했기에 곳곳이 걸어들 수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모르는 만큼, 관심 갖지 않는 만큼, 참여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를 걸어내기는 힘겨울 테니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사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디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힘들어도 꼭 9학년으로 졸업하자.

졸업해야 얻는 것들이 있다

2014년 시작한 우리 학교 고학년 과정은 2022년부터 초중등 통합 9학년제로 거듭났습니다. 안정시키기까지 꽤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왔음에도 주기적으로 흔들림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초중등 과정만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혹자는 우리 학교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별해야 하지 않느냐며 고학년 과정 운영은 하고 싶은 일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이라 여기기에 꾸역꾸역 해오고 있고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통합교육 지향을 비롯해 여러가지도 욕심부리지 말아야겠지요. 사실 대안교육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2014년부터 어렵사리 꾸려온 고학년 과정 덕분에 행복하게 자란 저중학년 아이들이 자유인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십 년을 돌아볼 때, 제게 수지꿈학교에서 가장 인상 깊었으면서도 중요한 시기는 7학년 중반 즈음이었습니다. 행복한 저학년, 중학년 시절을 보낸 뒤 맞은 고학년 생활 속에서 확 피어나는, 완연히 달라지는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도시형 대안학교는 초중등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부모와의 관계 정립에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굳힌 것도 이 경험에 기대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됐던 것들을 해야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며, 시작한 것은 끝을 내보는 도전의 계속, 그리고 이겨내거나 좌절하면서 겪는 성장이었습니다. 다양한 책을 많이 읽고, 생각하고, 글로 써내고, 써낸 생각을 발표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내 생각을 다듬고 다른 이의 입장을 귀담아 들으며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태도와 자세를 갖추는 과정이었습니다. 4차 산업

혁명과 AI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일컬어지는 것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왜 그런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지 알아야 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그 시간이 고학년 시절임을 알아야 하며 시련의 고학년 시기를 자녀와 함께 온몸으로 버텨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시형 대안학교, 특히 고학년 과정은 학생과 교사만이 아닌 부모가 믿어주고 집에서 견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고학년 과정을 함께 보낸 다른 부모들 또한 같은 술회를 합니다. 고학년 과정을 수년간 운영하고서야 알게 된 것들을 잊지 말고 앞으로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졸업을 앞둔 즈음의 아이들은 고학년 과정이야말로 수지꿈학교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9학년을 마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한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수지꿈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말하곤 합니다. 안에 있을 때는 귀함을 잘 모릅니다. 떠나면 알게 됩니다. 우리학교 고학년 과정을 잘 보살펴주세요. 힘들어도 꼭, 끝내 졸업합시다.





**작은 학교 지향,
결핍의 환경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주목하자**

우리는 학생이 80명 내외에 불과한 작은 학교입니다. 9학년을 소화하기에는 물리적인 공간을 비롯해 많은 점에서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에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학교, 부족한 자원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핍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결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분이 마치 전체인 듯 보이고 비핵심적인 것들을 핵심인 양 혼동하게 됩니다. 자꾸 일반 학교와 비교하려는 마음,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각자의 경의를 다스려야 합니다.

학생 수 부족, 물리적 공간 부족이 합반의 이유가 되는 것은 양반입니다. 교사 부족, 예산 부족으로 대안학교에서 중요하게 꼽는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선후배가 합반이 되어 지내면서 손위아래와 어떻게 관계 맺고 유지해 나가는지를 배웁니다. 그 덕분에 사회, 역사, 과학 등에서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써내고 토론하고 표현하는데 능숙해집니다. 동기들이 떠나 혼자된 승현이가 곳곳이 2년 반을 지내고 끝내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결핍을 통한 경험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해서 얻지 못하는 것들에 주목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의깊게 살피다 보면 부족에서 얻게 된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각자의 귀함을 발견하고 인식하길 바랍니다. 작은 규모로 인한 여러 제약에도 '작은 도시형 초중등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위시한 화면기반기술에 대해 공동행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작은 규모이기에 전체 부모와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화면기반기술에 대한 공동행동,
정착시킨다면 이것만으로도 신입생 걱정은 없을 것**
스마트폰을 위시한 화면기반기술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연구결과가 나

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면 아이 자체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까지 모두 휘말리게 된다는 걸 지난 몇 년 동안 공교육 현장을 통해 봤습니다. 법으로 금지한다 해도 학교와 가정이 힘껏 신경쓰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아마도 가정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장면들이 심심찮게 알려질 겁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성장했을 때 화면기반기술과 협응하며 잘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조절력이 갖춰질 때까지 노출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오랜 시간에 걸쳐 훈련하고 자제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독립해서도 휘둘리지 않을테니까요.

우리 학교 재학 9년간은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경우가 없도록 점진적으로 하지만 빠른 시일 내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해 강력하게 자리잡게 할 방안도 부모와 교사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수단방법을 모두 동원해 화면기반기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9년이면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자제력을 연습하고 체화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우리 학교 고유의 문화 또는 핵심가치 중 하나로 정착시킬 수 있다면, 입학할 때부터 서약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주기적으로 서로를 점검하고 독려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문화를 밖으로 잘 알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신입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 감히 단언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임을 모두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명 부르기를 가벼이 보지 말고
느슨한 관계의 공동체를 지향하자**
우리는 별명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짐작하실 겁니다. 아이와 어른이 쉽게 부르고 이야기 나눌 수 있기 위해, 부모들간 그리고 교사와 부모간 격의없는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나이와 호칭은 자신도 모르는 새 자신의 생각과 발화를 속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찌나 공고한지, 그냥 시원하게(?) 형님, 동생으로 정리하면 편한데 별명과 상호존대가 친해지는데 되레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수직적인 관계가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별명을 쓰고 상호존대하는 것은 내면화된 수직적 관계에 균열을 내기 위함입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할 말은 하는 '느슨한 관계'의 시작인 거지요. 몸으로 경험하는 동안 수평적 관계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됩니다. 수평적 관계로 지내는 데 익숙해지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나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 언니, 누나, 오빠, 아, 너...' 별명이 아닌 호칭으로 부르면 아무래도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호형호제하는 관계까지 가는 경우는 일부입니다. 너무 친해져서 선을 넘는 실언을 하기도 하고, 일부에 속하지 않은 구성원들이나 새로 합류한 구성원은 소외감이나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내기 쉽다는 점,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신경쓰면서 지내라는 거냐 눈치보여서 못해먹겠다 볼멘 소리가 나올 만도 하지만, 그런 작은 것들에 대한 배려가 공동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장기 존속하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만 해도 별명 쓰는 문화가 대변하는 수평적 관계는 유명무실하고 실상 수직적 관계로 흘러가는 공동체였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보려 노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공동체적 삶을 사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고, 어려움, 갈등, 번거로움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렇다 해도 공동체적 삶은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가 함께 살아내야 하는 것이어야지 않을까요.

학교밖으로 연결
최근 2,3년간 우리 학교의 행보가 놀랍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고민거리 중에 빠지지 않던 것이 마을 밖과의 연결, 지역과 함께 할 방안이었거든요. 동천동, 고기동 주민들 사이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야 알려졌음을 느낍니다. 개교 17년된 학교인데 말이지요.

우리처럼 작은 규모의 학교는 사실 살아내기 바쁩니다. 살아내는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 연대해오다 보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학비를 줄이기 위해 급식 조례, 학교 밖 청소년 조례를 제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고, 영구 터전을 짓느라 몇 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들이 조금 정리되자 바로 학교 밖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마을과 어우러지는 과정은 많은 품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마을 일에 참여하는 동안 보호받는 학생이 아닌, 성인과 대등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대우받고 기능하는 짜릿한 경험을 한다는 점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조는 우리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 꾸준히 유지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조금 욕심을 보태자면, 졸업생과 졸업한 부모들과의 연결입니다. 지난 17년간 졸업한 가정의 수가 이제 제법 됩니다. 이제까지의 우리 학교 구성원들 중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이들입니다. 재학중인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입니다. 도움 준비 또한 되어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을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2028년은 개교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조직을 꾸려 준비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촉박하면 실현하기 어려우니까요. 소식지를 연결고리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생, 졸업한 부모들과 한데 모여 축하하는 개교 20주년 기념잔치는 과연 어떨지 생각해봅시다. 졸업한지 십수 년된 부모들과 졸업 이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학교와 졸업생들이 CMS로 연결되는 상상도 한 번 해봅시다. 소액이라도 매달 딱딱따박 들어오는 모교 후원금을 그려봅시다.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문턱 낮은 학교

영구터전을 올리면서 학비 급등은 불가피했습니다. 남은 대출을 일정 수준까지 갚으려면 한동안 조정 여지가 없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교사 급여 현실화와 충원이 필요해 학비 인상도 불가피합니다. 다른 미인가 대안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문턱 낮은'이란 표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치 못할 여건으로 학비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오른 채로 상당기간이 지난다해도, 우리가 문턱 낮은 학교를 지향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여건이 완화되면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가 필요한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안교육기관법 또는 조례를 통한 교사인건비 포함 각종 지원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갖고 연대하며 관철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연대 일꾼 말마따나 '연대는 돈이 됩니다'. 당장 내가 내는 학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학교가 지키려는 가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꾸준하는 아니더라도 결정적인 때만큼은 관심과 행동을 모아야 합니다.

졸업생, 졸업 부모와의 연결도 문턱 낮은 학교라는 가치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달 딱딱딱박 들어오는 후원금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각종 장학금뿐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용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각 가정에서 내는 학비로 운영되지만 이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의 문턱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문턱은 낮아지고 위상은 높아져서 선발할 수 밖에 없을 만큼 신입학 지원자들이 줄 서는 어느 날을 상상해 봅니다.

홍보, 모든 걸 판다는 생각으로

갈수록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홍보 소재와 활동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가지 활동들을 단순 소개하는 정도로는 예비 신입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입학설명회를 앞둔 시점의 단순 홍보와 설명회 당일 브리핑과 질의응답만으로는 극히 일부분을 알게 될 뿐이며 대체로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을 확인하는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양한 생활과 교육과정 행간의 의미, 이면의 취지까지 전달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민들레에서 펴낸 대안교육 20년사에는 대략 이런 의미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공동체 부모들 사이에서 좋

은 입소문이 나는 대안학교가 지속될 수 있으리라는. 우리들 사이의 입소문을 밖으로 향하게끔 해야 합니다. 밖으로 소문 내야 합니다. 우리 주변도 알도록 해야 합니다.

행간의 의미, 이면의 취지, 결핍을 보는 관점, 아이의 변화 그리고 부모의 변화를 보다 생생하게 기록하고 공유한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됩니다. 견기여행, 논농사와 텃밭 가꾸기, 가족운동회, 마무리잔치 등등이 무엇이고 어떤 취지이며 아이들과 부모들 각각은 무엇을 느끼고 관계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록하는 것. 교사인 나의 느낌, 부모인 나의 느낌, 경험 그리고 변화에 대한 깨달음을 다른 내용이야말로 예비신입부모들의 마음에 가닿으리라고 봅니다.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외부의 예비신입부모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의 존속을 위해서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의 한 해 살이에 대해 교사와 부모들은 더 드러내야 하고 더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리기 위해서라도 마무리잔치를 포함한 무언가를 꾸준히 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대안학교를 보낸다는 것은 실험과 시행착오의 연속, 그에 수반되는 불안을 감내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제도권 학교와 다른 곳에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고 맡겼으니 학교의 몫이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아이 성장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운영 상황, 충분치 않은 학교의 자원,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교사들을 이해하고 응원하며 교육소비자가 아닌 주체로서 애써야 합니다.

지내면서도, 지나고 나서도 대안교육은 유리알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차하면 산산이 조각나버릴 것 같은, 그래서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잘 다뤄야 하는 유리알요. 그래서인지 참으로 글이 길어졌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면을 무한정으로 할애해주셨던 편집위원회의 제안도 발칙하리만치 긴 글에 한몫했음을 고백합니다. :)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지켜나갈 것인지 달리 해갈 것인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글 자체로 드러나는 의미뿐 아니라 행간의 의미들도 온전히 전달되어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으로 오래도록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십년 잘 마치고 졸업합니다. 고맙습니다. 모쪼록 우리 학교, 잘 부탁드립니다.

십 년만의 고백

글_ 아로아



십 년 전...

그저 아이들이 뛰는 것이 좋아 이곳에 왔습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뛰었고 그 모습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지꿈학교는 여전히 저를 가슴 뛰게 하는데, 이제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수줍은 성격 탓에 십 년 동안 미뤄왔던 고백을 이제 꺼내어 봅니다.

수지꿈학교는 한 그루 연약한 나무였던 우리가 비 맞고 눈 맞고 흔들리고 깎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굵고 깊은 뿌리를 만들어 주었고, 가지를 맘껏 뻗게 놔두고 꽃 피우는 푸른 나무가 되도록 따뜻한 햇살과 좋은 양분을 주었습니다.

비올 땐 함께 젖어 주었고 눈을 땐 쌓이는 무게를 나누며 추억을 만들었고 바람에 흔들릴 땐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몸을 기울여 지탱해 주었고 천둥번개에 깎여 나갈 땐 뽀족해져 찌르지 않도록 동글게 다독이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지치고 느슨해질 때마다 손 닿지 않는 곳의 태엽을 찾아 감아주는 사람들에 덕분에 무사히 십 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성장한 우리 아이들, 한결같이 수지꿈에 진심을 다했던 배우자 네로, 함께 걸음을 맞춰준 부모님들,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교사분들께 마음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졸업생 김루빈입니다

지금은 이우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직도 고등학교에 적응해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수지꿈학교가 자주 생각나고, 함께 지냈던 친구들도 많이 그립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한 반의 인원이 많아지니 친구도 자연스럽게 더 많이 생길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생활해보니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적은 인원 속에서 살았던 탓인지 큰 학급 분위기 속에서는 아직 조금 어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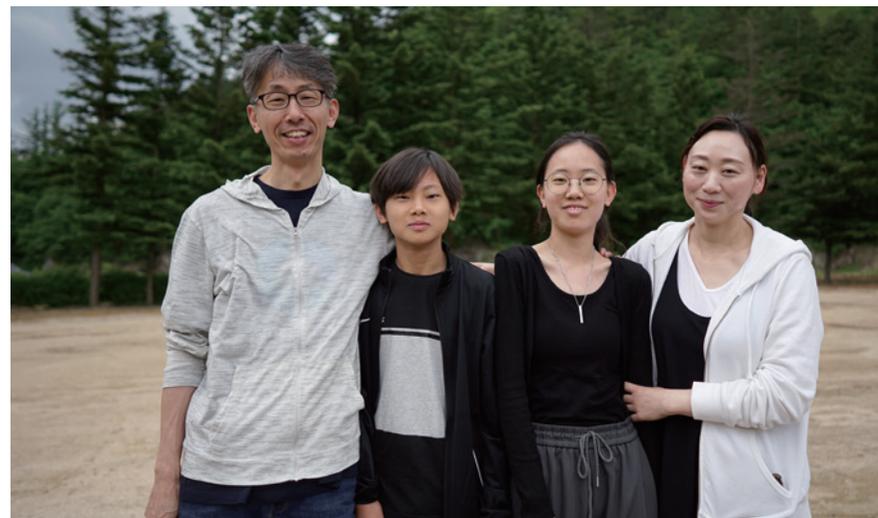
고등학생이 되고 가장 즐거웠던 순간도 수지꿈 친구들과 다시 만나 놀러다니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에 있어도 매일 카톡하고 전화하며 일상을 공유하고, 장난치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요즘 더 느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새로운 분위기와 규칙에 적응해야 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생기거나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고등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보다 먼저 수지꿈 친구들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며 쌓아온 편안함과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수지꿈에서 함께했던 9년의 시간은 제게 정말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와 보니,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서로 다른 학교에 있어도, 수지꿈에서 맺은 인연은 여전히 제 삶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후배들아

너희가 지금 함께 보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소중한 시간이야. 그때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순간들이 너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니까 서로를 아끼고, 지금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어. 이 인연을 최대한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함께함의 시작, 너른 들판에서 펼쳐진 수지꿈 가족운동회!

글_아나니

안녕하세요. 1학년 제희 엄마 아나니입니다.
신입 부모의 눈으로 바라본 운동회 후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운동회 하면 어린 시절 가족들과 뒤통수를 때고 삼삼오오 모여 김밥을 먹던 추억이 떠오르는데, 어느새 아이가 자라 학부모의 자리에서 운동회에 참여하게 되어 기분이 묘하고 설레었습니다. 운동장에 모여 개회 선언을 듣고 모두 함께 준비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아, 정말 학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도 낯설고 처음 뵈는 부모님들도 많았지만, 서로 가볍게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몸을 푸는 모습만으로도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진행된 종목은 공 넘기였습니다. 저학년부터 고학년, 부모님들까지 하나의 팀이 되어 열린 모습으로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의 일원이 된 거구나' 싶어 마음 한 켠에 있던 내적 친밀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이어진 축구 경기에서는 학년별로



아이들이 저렇게 성장하는구나 싶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마냥 귀여운 저학년 경기를 보다가 치열하고 격한 중고학년 경기를 보니 우리 아이들의 몇 년 뒤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공원 한쪽에서는 고학년 학생들이 직접 만든 수세미와 필통, 그리고 시원한 음료를 팔고 있었어요. 졸업여행 경비를 마련하려고 준비했다는 설명을 듣고 가서 좀 팔아줘야지 싶어 구경했는데, 가격도 착하고 품질도 좋아서 수세미와 필통을 몇 개 사왔습니다. 옆에서 구두쇠 제희가 '엄마 돈을 너무 많이 쓰는거 아니냐'며 잔소리를 했지만 못 들은 척 흘려버렸습니다. 고학년들 덕분에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시원한 음료를 바로 마실 수 있어 피곤함도 금세 사라지고 더 즐겁게 운동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 이후에는 단체 군무가 이어졌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졸업하면서 이제 더 이상 춤출 무대가 없다 싶어 아쉬웠는데 단체군무라니요.. 수지꿈 대표 춤꾼 산의 율동에 맞춰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를 추며, 다같이 텐션을 끌어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체력이 좀 떨어

"이번 운동회 어땠나요?"

하곳길 인터뷰

"전교생이 다 같이 모여 하는 행사라 화목하고 단합하는 분위기를 느꼈어요."

"3 년만에 비가 오지 않는 날 학교 밖에서 하는 운동회여서 그 자체로 설렘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는 어린 시절 운동회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한 선물이 배려깊고 센스 있다고 느껴졌어요."

"진행된 게임이 많았는데 물 흐르듯 진행이 잘 되어서 뒤에서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구나 싶었습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질 법도 한데 수지꿈 친구들은 쉽게 지치지 않더라구요! 이어 진행된 판뒤집기와 줄다리기에서도 아이들이 빨강색 상기된 얼굴로 질세라 판을 뒤집고 줄을 끌어당기며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낯설었던 얼굴들이 이제는 함께 웃고 응원하는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부모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아이들의 이름도 하나 둘 익숙해졌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추억이 생긴다는건 이런 의미겠구나' 하고 느끼며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갔습니다. 수지꿈 올림픽에서 아이들이 서로의 엄마,아빠가 아니더라도 편히 어깨동무를 하고 이인상각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서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구나 싶어 몽글한 마음이었어요. 전교생과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같은 햇빛 아래서 웃고 응원하고 도움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아이가 이곳에서 어떤 시간을 쌓아갈지 더 기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운동회를 이렇게 따뜻하게 기억하게 되어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

Show Me The Money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글 _ 무아

디어! 용인시에도 대안교육기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
다. 지난 10월 이윤미 시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용인
시 대안교육기관 조례가 용인시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 되었다고 바로 지원금이 나오는건 아니고, 여전
히 지원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합니다. 저는 법이나
조례는 ‘밥술’에 비유하고, 예산을 ‘쌀’이라고 표현합니다. 법
이나 조례는 예산(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지만, 밥술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 없습니다. 보통 정부나 지자체 만나면 제
일 먼저 지원금 거절하는 이유로 법적 근거/관련 조례가 없다
는 것입니다. 이제 근거는 있으니 열심히 달라고 해야겠죠~
(이제 아마 예산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각설하고, 그간 조례
제정 히스토리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 > 이윤미 의원과의 첫 만남



22년 4월 23일(토) 소머즈 대표와 남구와 함께, 학교 앞에 스
쿨존을 지정해달라고 건의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 민원인의
날에 함께 방문을 하였고, 여러 시의원님들과 만나 결국 법적
근거가 없어 비슷한 효과를 내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선거가 있
었고 도움 주셨던 시의원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새롭게

당선된 이윤미 의원과 이교우 의원이 꿈학교를 방문하여 여
러 건의사항을 청취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윤미 의원과의 인
연이 시작됩니다.

2023년 > 이윤미 의원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개정 시작



23년 7월 유진선 용인시의장님과 이윤미 의원이 수지꿈학교
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23년 10월에는 정춘숙
국회의원, 이윤미 의원과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모임의 간담
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윤미 의원이 용인시 상하수
도 조례, 학교밖청소년 조례, 교복지원 조례 등을 개정하며
대안교육기관들도 일반학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24년에 임현수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 조
례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들도 체육시설 이용 시 감면받
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4년 > 용인시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조례 공부 모임

자, 그간 다른 조례 제정 개정을 통해 일반교육기관과 대안교
육기관의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대안교



육기관만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하나 둘 조례 제정
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용인시 대안교육기관들은 구심점이 없어 쉽사리 추진이 이뤄지
지 않았죠. 그래서 맹달과 논의하고, 소명학교 슈퍼맨 교장선생님께서 뜻을 함께 해주
셔서 수지꿈 고학년과 소명학교 학생들이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조례 공부 모임을 추
진했습니다. 첫 시간에 이윤미 의원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조례에 대한 공부를 진행했구요. 그리
고 마지막에 우리 학생들이 용인시 대안교육기
관 조례(안)를 완성하고 이윤미 의원께 전달하
였습니다.



2025년 >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및 조례 제정!!!

올해 2월 26일, 드디어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이윤미 의원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조례 공부
모임에 참여했던 우리 학생들과 소명학교, 무릎위의학교 관계자 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였고 우리 학생들이 만든 제정(안)에 대
한 설명을 시작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한 건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 용
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앞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위해 2022년부터 장장 헛수로 4년
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연대, 그 중 정책파트 업무는 보통 2~3년 이상 긴 호흡으로
진행됩니다. 의원님과 만남, 건의사항 정리 및 조례 발의, 다양한 논의와 발전과 후퇴를 반
복하는 조례(안)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조례가 완성됩니다. 특히, 조례 제정은 개정보다 10배
이상 힘든 작업입니다. 무엇보다 긴 호흡으
로 신뢰를 쌓아왔던 의원님들이 선거 때
바뀐다면 그보다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시 우리와 뜻이 맞는 의원님을 만나고 신
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다시 해야 하니까
요. 그래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그간 대안교육기
관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안
부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커다란 귀염둥이 7학년 윤우가 수지꿈학교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7학년에 편입한 장윤우 엄마 느티나무입니다. 글썽이 없는 제가 소중한 수지꿈 소식지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되어 미리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저 학교 한 귀퉁이에 머물며 기운을 차리고 조용히 졸업하고 싶은 마음이었었는데, 본의 아니게 뭔가 나서게 된 것 같아 쑥스럽고 많이 부끄럽습니다. 어쩌면 이 글은 저의 반성문이 될 것 같습니다. 글_느티나무



우리 가족은 모두 4명입니다. 아빠/엄마, 이제 고3이 되는 큰 딸, 그리고 윤우입니다. 나이는 아직 40대이지만 전형적인 대구 시덕에서 자란 남편 덕분에 윤우가 수지꿈까지 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요즘의 엄청난 교육열에 매몰되었던 엄마 아래서 자란 윤우 또한 그리 아름답지 않은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엄마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지식을 넣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내왔던 지난 10년이, 정작 아이들이 힘든 순간에 기대어 일어설 수 있는 단 한 순간의 기억을 주지 못했다는 깨달음이 2024년 저의 머리 속에 자리잡았습니다. 결국 내 아이가 살 날들이고 그 길 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를진대 선불리 예전의 잣대로만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큰 아이에게 주지 못한, 내가 자라나고 커간다는 기쁨을 윤우에게는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쏟아지는 수행평가, 친구들과의 치열한 서열 싸움으로까지 변질된 중학교 교실의 사회 생활은 이미 충분히 겪고, 듣고 있었기에 그대로 중학교에 진학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의 굴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 하는 저의 성향에 대한 반성도 한 몫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근방의 대안학교를 찾고, 종교와 상관없이 제가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만 해도 네이버로 쉽게 검색되지 않았던 수지꿈학교 홈페이지에 어렵게 들어가서 확인한 학교의 교육철학과 고학년 교육방향은 제가 윤우에게 선물하고 싶은 중학교 생활을 그대로 펼쳐놓은 듯 했습니다.

제일 먼저 윤우에게 수지꿈에 대해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코로나로 친구들과 단절되었던 생활을 했고, 이후 아주 조금씩 친구들과 함께 놀라는 기쁨을 배워가던 아이는 겨우 만든 학교 친구와의 이별을 너무나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3일의 체험 수업이 염려하던 마음을 환하게 바꾸었습니다. 다정한 반 친구들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수업, 형과 동생들과의 만남들이 이별의 두려움보다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기대를 심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3월, 수지꿈에 입학하며 지내온 학교생활은 어쩌면 인생 최초의 휴가 같은 생활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고 후 아이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동안 디폼 블록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다양한 칼들을 만들며 마음껏 즐겼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왜 이렇게 칼을 좋아하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독서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동안 스스로는 절대로 찾지 않던 책들도 많이 읽고, (여경 선생님께서 3월부터 한달에 3권 읽기부터 시작해서 5월에는 5권까지 읽도록 독려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6년을 보냈지만 혼자서는 3줄 이상 쓰기 힘들던 아이가 이제는 여행기를 쓸 정도로 제법 글이라는 모양을 가진 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우가 수지꿈에 가서 엄마인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역사 프로젝트 시간에 2박 3일 경주 여행을 다녀온 아이는 어느샌가 혼자서 라면도 끓여먹고, 설거지 후 그릇 정리까지 깔끔하게 했습니다. 내일 먹을 밥이 없으면 쌀을 씻어서 압력솥 예약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엄마인 제가 아이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제가 더 느낍니다. 집안일을 하며 당연한 용돈을 버는 일도 매주 아이의 큰 기쁨입니다.



제가 가장 바랐던 중학생인(우리학교에서는 고학년인) 아이의 모습은 나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내가 어떤 어른으로 자라날지 생각하고, 언젠가는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수지꿈에 입학하고 지난 8개월 동안 아이는 어떤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계획한 거리를 걷는 여행을 하고, 아직 완성하지 않은 자서전을 쓰며 짧은 14년 인생을 돌아보고, 어디에서 가고 어떻게 이동할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내는 역사 여행을 행복하게 다녀왔습니다.



비록 아직은 많이 어설피고, 미완성이지만 윤우는 분명 제가 바라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선생님,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해주는 형과 누나들, 형/오빠라 불러주며 놀이의 기쁨을 나눠주는 동생들과 함께 아이는 작은 성공의 기쁨과 커가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중학교 1학년이 매일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고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커진 우리집의 쟁귀염둥이가 수지꿈에 머물게 해주셔서 여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조율이네의 수지꿈 신호등 이야기

글_라랄라



노란불_입학 전 망설임, 숨 고르기 시간

조율이가 네 살에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들어갔을 때, 선배 아마들이 가장 많이 묻던 질문은 “대안학교까지 생각하세요?” 였다. 그때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예요, 초등 전까지만 놀릴 생각이예요.” 하지만 매년 단오제에서 만난 [수지꿈], 어린이집 개원 잔치에 축하해주러 오던 [소풍]. 돌아보면 우리 가족 가까이에 늘 수지꿈이 있었다. 그쯤부터였을까? 입시 경쟁에 휘둘리기보다, 조율이가 조율이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 그런데 하람의 반대가 2년 가까이 이어졌다.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과연 안전할까 하는 걱정. 우리 앞의 첫 번째 노란불이었다. 나는 큰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다. 단오제를 앞두고 3년간 소풍 연습에 하람을 지원했다. 자연스럽게 수지꿈과 만나게 된 하람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망설이고 있었지만, 이미 길을 준비를 하고 있던 시간이었다.

입학식_첫 걸음

입학 전날, 내가 입학하는 마냥 잠이 오지 않았다. 설렘과 걱정이 뒤섞였다. 눈 내린 아침, 한복을 입고 꽃가마를 타고 입장한 조율리와 친구들. 의젓하게 신입입생을 맞이하던 형·누나들. 축사를 읽으며 눈물 흘리던 대표 산의 모습까지. 그렇게 하얀 눈 속에서 수지꿈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눈 내리는 봄날, 조율이의 그림 같았던 입학식



하람의 소풍은 라랄라의 큰 그림



눈 내리는 봄날, 조율이의 그림 같았던 입학식



빨간불_입학 후 멍칫, 의구심과 어려움

조율리는 축구를 실컷 할 수 있는 수지꿈에 금세 푹 빠졌다. 하지만 사랑에도 권태기가 있기 마련. 핀란드 수학은 조율리에게 쉽지 않은 길이었다. 처음 접해보는 교과서. 흥미로웠던 것도 잠시, 숙제가 버거워지고 자신감도 흔들렸다. “난 이미 망했어.” “우리 반에서 내가 꼴등이야.” 어떤 날은 집에서 숙제만 하고 잠들기도 했다. ‘내가 생각한 대안 교육은 이게 아닌데?’ 핀란드 수학뿐 아니라, 입학과 동시에 찾아온 자유 속에서 조율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것인가? 그때 나는 수지꿈에 의구심을 품었던 것 같다.



애증의 핀란드 수학 πππ

그러던 어느 날, 늘 그래왔듯 돌봄을 하고 있는 조율리를 데리러 갔다. “엄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쉬워 하는 조율리의 외침. 1학년 아이들이 모여 신나게 핀란드 수학을 풀고 있었다. “우리 100 페이지 넘게 풀기로 했어요!” 서연이가 다들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주었다. 친구들과 모여 즐겁게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제야 이런 경험이 수지꿈만의 힘임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다. 핀란드 수학 그 자체보다, 자유로움 속에서 스스로 몰입하고 성장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수지꿈이었구나. (꿈보다 해몽일지도)

조율리는 그날 이후로 다시 핀란드 수학과 가까워졌다. 자연스럽게 규칙과 질서를 온 몸으로 배우고 스스로 힘을 키우는 조금 더 단단해진 모습이였다. 11월, 조율리는 1학년 2학기 과정까지 다 풀었다. (답지를 보지 않았을까?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묻지 않기로 했다.) 요즘은 숙제 없는 저녁 시간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다. 빨간불 같던 그 시기는,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배움의 시간임을 알았다.



반짝반짝 보석반 가족들과 2박 3일 캠핑

초록불_앞으로 푹 빠져 볼 시간들

올해를 돌아보니, 우리 이미 초록불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조율리는 자기 속도대로 성장하고 있고, 하람은 수지꿈을 믿게 되었다. 나도 조금씩 이렇게 이 길을 배워가고 있다. 또 수지꿈 가족들의 따뜻한 속에서 너무나 든든하고 따뜻하고 설레이는 한해를 보내고 있다. 내년이면 조율이 동생, 조한이도 입학을 한다. 2년 연속 신입생 가족이 되는 셈이다. “돌봄부터라도 좀 보내달라”는 조한이. 조한이는 어떻게 적응해갈까? 우리 가족의 허니문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듯하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조율,조한 모두 수지꿈으로 등교하게 되니 나의 라이딩 시간도 편도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아이들과 수지꿈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기대 속에서, 우리 가족의 초록불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켜진 것 같다. 🌱



노는 게 제일 좋아 보석반 가족 들살이

아브라 연대기

글_아브라



안녕하세요. 아브라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네요. 늘 시간 참 빠르다 느껴왔는데, 올해만큼은 유난히 천천히 지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수지꿈의 시설 일꾼으로서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과 만나며 많은 경험을 쌓은 덕분이겠지요.

수지꿈에 오면서 언젠가는 어떤 역할이든 맡아야겠다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시설일꾼은 부담스럽긴 했어요. 전임자인 까비가 워낙 훌륭하게 해주어서 선뜻 나서기 힘들었구요. 그런 저를 나디께서 추천해 주었고 열렬 결에 맡게 되었네요.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덕분에 산악회원들과 이산 저산 오르내리며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시설 일꾼으로 활동하며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뜻밖의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마주하기는 해도, 편하게 이야기하고 마음 나눌 수 있는 인연을 만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지꿈에 오면서 아이를 중심으로 만난 새로운 분들과의 인연은 오랜만에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땀 흘리며 지낸 시간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다같이 공동된 관심사를 고민하고 연대감을 느껴온 시간들은 앞으로도 잊지 못할 순간들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학교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을 보살피며 자연스럽게 아이의 하루와 성장 과정을 곁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아이의 모습, 새로운 것을 배우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 때때로 지쳐 보이지만 금세 힘을 내는 모습까지,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어꺼너머로 바라보며 '소중한 경험을 쌓아가며 잘 자라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마음 깊이 밀려왔습니다.

나보다 훨씬 씩씩하게 해내는 아이에게 놀랍고 대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툴고 두려움 많은 제 어린 시절이 겹쳐 보여 괜스레 마음이 쩡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매일의 순간들이 모여 아이의 역사가 되고, 저 역시 부모로서 한 걸음씩 성장해 가겠지요.

저 또한 더 든든하고 따뜻한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한 해였습니다.

수지꿈의 시설 꺼리들은 뭘 해야하나 고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둘러봐도 부족하고 해야할 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메모를 해놓고 정리해봤는데 자잘하게 끝이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활기차게 전화주는 세계로의 하이톤 목소리도 느슨한 일상에 자극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터졌을까, 어디서 전원이 안들어올까 정말 다양하더군요.

그런데 사실 어렵지는 않았어요.

시설소위나 아빠단톡방에 요청만 하면 모두들 적극 나서서 참여해 주시니까요.

주말이든 퇴근을 하고든 언제든 적당한 인원이 모여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주시더군요.

아이들이 중심이다보니 부모들, 특히 아빠들 사이의 유대감과 관심사로 만나는 시간들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소소한 꺼리들로 큰 기쁨을 느끼며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한 일년을 짧게 되돌아 보겠습니다.



별관 확장 프로젝트 (24.12~25.02)

추운 겨울에 나디, 소라게, 올챙이와 미금역 부동산을 돌던 기억이 나네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던 현 별관 부지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인건비 아낀다고 무거운 공사자재를 4층까지 나르고, 같이 먼지 마시며 함께 해준 아빠들 덕분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당근 매물 가지러 이리저리 다녀준 개구리와 삼파, 틈나는 대로 같이 점심 먹으며 도와준 네로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봄맞이 대청소 (25.02)

영하의 날씨에도 역대 최대 인원이 참여해주셨어요.
목은 때를 벗기고 얼음을 녹이며 산이 준비한 맛난 떡을 먹으며 무탈한 한 해를 기원했지요.
덕분에 산뜻하고 설레는 신학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및 스크린 설치 (25.04)

교실 4곳과 강당에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공간차이가 기뻐한 프로젝트로 근사한 영화관이 생겼네요.
아이들 수업과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스테인 칠하기 (25.06)

요거는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 장대를 높이 들고 스테인 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리저리 튀고 묻었지만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힘써 준 아빠들 덕분에 무사히 해냈습니다.
엄마들이 준비해 준 식혜와 핫도그빵도 기억에 남습니다.



앞마당 바닥보수공사 (25.07)

앞마당이 파이고 들떠서 다 들어내고 시멘트 몰탈 작업을 했습니다.
장비와 체력적 한계가 있었지만 역시 하면 된다는 성취감을 경험했습니다. 수지꿈 아빠들 역시 대단해요.
홀루가 시멘트도 지원해주고 주말에 회사일과 작업을 병행하며 전폭적으로 힘써주었습니다.

중등별관 방음공사 (25.08)

옆호실과의 소음문제로 흡음, 차음 추가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다들 준전문가가 되었지요.
요정도 쯤이야 하면서 후다닥 끝내고 점심내기 탁구 한판 땡겼습니다.



외벽 노출콘크리트 보수작업 (25.10)

노후화가 심해진 외벽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수했습니다.
크랙으로 약해진 부분을 보수하고 방수와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끝내게 되어 다행입니다.



예초작업 (2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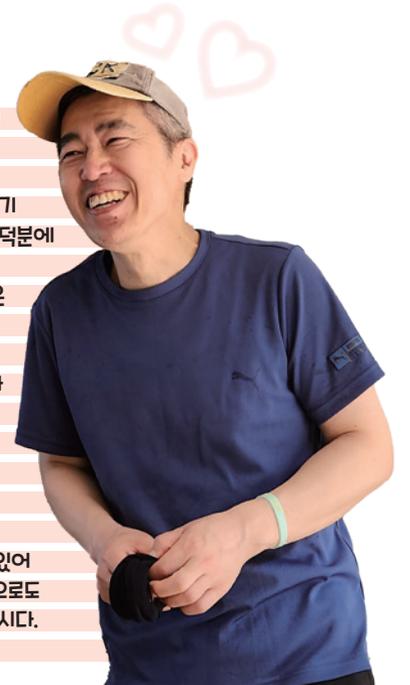
장대같은 비와 짹짹한 햇볕을 같이 경험하는 오락가락한 날씨였어요.
그만 할 만도 한데 더 일을 벌려 계속해준 아빠들, 진짜 최고입니다.
노리가 챙겨준 달달한 미숫가루, 역시 맘썸린 후 먹는 시원한 음료가 기억나네요.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그래도 구색은 갖출 듯 느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모두가 자기 일처럼 함께 해 주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준 엄마,아빠들의 노력과 마음을 아이들도 언젠가 알아주리라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함께할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다 같이 멋지게 해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꿈**



무아투어가 함께하는 여행으로 풀어낸 연대의 맛

글_ 무아

(무아 투어 각 회차 후기는 카페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이번에는 매뉴얼 느낌으로 작성합니다 ^^)

연대 일꾼과 무아투어

'24년 그냥 여행을 좋아하는 우리 가족이 좋았던 여러가지 여행들을 가까운 지인들과 삼삼오오 가볍게 시작한 것이 어느순간 수십명의 인원으로 확대되었고, 광고호수공원 자전거 여행이 홍보일꾼 하이밍의 인스타 공개로 인해 강제(?) 커밍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5년에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산이 대표가 되고 연대일꾼이 되어버린 김에 외부 연대가 아닌 내부 연대 강화 차원에서 모두에게 공개하는 무아 투어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회차별 기획의도와 내용

여행을 기획하며 몇 가지 원칙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총 5회를 기획했습니다.

1. 부모와 아이 모두 함께 고생(?) 하도록, 트래킹과 자전거를 중심으로 할 것
2.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한번은 참여 가능 할 수 있을 것
3. 1학기는 여행연습 느낌의 당일치기, 2학기는 난이도를 높여 1박2일
4. 아이들 목적 의식을 쉽게 부여하기 위해 스템프 투어 중심으로 고려

1차: 3월 한양도성길 트래킹

한양도성길 트래킹은 대략 3~6학년 대상이었고, 작년 무아투어 때 계몽으로 취소된 나머지 코스를 하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숭례문에서 인왕산 구간은 대략 5km 구간으로 서울의 문화/역사 여행 코스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 덕수궁, 아관파천 고종의 길, 서대문형무소, 인왕산까지 하루를 꽉 차게 다녔습니다. 저녁을 부암동 유명 치킨집을 가려고 했다가 단체라고 거절당해서 바로 옆 코다리 삼겹살집을 갔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탄핵 시위로 인해 대중교통이 끊겨서 각자 복귀하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2차: 4월 탄천+화랑공원 벚꽃 자전거 여행 (원래 계획은 한강 자전거 여행)

4월이면 꽃 구경이죠?! 1차는 트래킹이면, 이번엔 자전거죠~! 최초 계획은 탄천길 따라 서울숲에 가서 (약 30km) 꽃 구경하고 돼지갈비 먹고 지하철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대상은 1학년부터 고학년 전체이고요. 하지만 당일 오후 비 예정으로 인해 목적지를 판교 화랑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와.. 벚꽃비가 대단했고요, 제 인생의 역대 꽃구경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자전거 타고, 부모님들은 벚꽃나무 아래서 자리 깔고 치맥 한잔씩 하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학년부터 9학년까지 모든 학년이 참여한 신기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찍 비가 와서 돌아가는 길에 정말 오랜만에 우중 라이딩까지 경험하며 즐거웠습니다.



3차: 5월 수원화성 성곽길

이번 여행은 1~2학년 대상으로 기획했습니다. 3~4월, 아직 학교와 다른 부모들이 어색한 시기를 지나 이제 슬슬 학교에 적응할 때 즈음,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역사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원 통닭거리 점심코스로 넣어 맛집 탐방도 함께 하였습니다.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4시간 정도 계획했는데 실제 6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저학년도 많았지만 중학년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4차: 11월 첫째주 북한강 자전거길 1박 2일

11월 초, 가을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서울 인근에 국토중주 자전거길 1박2일 할 만한 코스가 딱 북한강 자전거길입니다. 경사도 많지 않고 거리도 약 70km 정도로 하루에 35km 정도면 타면 됩니다. 숙소는 가평역 인근에 잡으면 되고요~ 다만, 출발지와 도착지가 각각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이라 복귀하는데 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

면 그냥 복귀하면 되는데 차량으로 출발지까지 가면 대성리역에 한 대 주차해놓으면 다른 사람들 복귀하기 편합니다. 국토중주자전거 수첩 꼭 준비하세요!

5차: 11월 셋째주 소백산 산장(대피소) 여행

누구나 한번쯤 산장에서 하룻밤 보내며 밤하늘 은하수 구경을 꿈꿔봅니다. 거기에 산장에서 먹는 삼겹살도 별미입니다. 다만, 처음 혼자 준비하려면 막막하죠~ 저도 산을 잘 타는 지인과 처음으로 덕유산 대피소를 갔고, 거기서 새벽에 일어나 본 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백산 대피소를 택한 이유는 수지에서 가장 가깝고, 다른 숙소들이 비해 단체 예약하기 쉽고, 코스도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대략 2-3시간, 좀 지루하지만 편안한 임도길을 올라가면 됩니다. 메뉴는 저녁 삼겹살, 다음날 아침은 라면 혹은 누룽지입니다. 준비물이 많아 더 쓰고 싶은데 양이 많아 줄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역동으로 함께한 무아투어

매번 20~30여명의 가족들과 여행을 하는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여행이 시작되면 다들 알아서 부족한 부분이나 해야 할 부분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코스도 새로운 사람들과 하면 또 새로운 역동으로 이전과 다른 즐거움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소백산 산장 여행 때 그래의 참여와 1학년 아빠들의 열정으로 새벽 산행이라는 새로운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든든한, 덕분에 늘 믿고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4학년, 5학년 가족들에게 가장 큰 감사 말씀 드립니다!!! 🍀

아빠들은 지치지 않는다! 올해도 업그레이드된 아빠들의 활약상

수지드림썸머캠프_아빠 캠프

수지나눔축제 먹거리부스_아빠 먹가게

글_ 파랑+네이버카페글



-일정 : 8/9(토) ~ 8/10(일)
-인원 : 아빠12명+아이 20명
-참가비 : 아빠 5만원 / 고학년 3만원 / 저중학년 2만원 / 미취학 1만원 / 아이만 참가 +2만원 (아이만 보낼 경우엔 +5만원, 늦게 자는 아이 +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함!)

방학이 오기 전에 부모들은 걱정이 많죠..? 이번 방학에는 뭐할까? 어디로 갈까? 하지만 산악회장 산개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주셨습니다! 바로바로 수지드림썸머 캠프! 일명 아빠캠프죠. 아이들은 행복하고 아빠들은 보람차고 엄마들께 휴식을 선물하는 1박 2일의 아름다운 추억! 같이 들어보시죠~

학교 대청소를 마치고 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엔 역시 수박이 제맛이죠. 두번째 간식

으로 감자튀김을 먹어봅니다. 이번 아빠캠프는 간식부터 식사까지 포장·배달 음식 없이 아빠들이 직접 잘 만들어 먹이자고 했습니다.



간식도 먹었으니, 2차전을 시작합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슬라이드도 인기만점입니다. 2차전이 끝나고 저녁메뉴인 치킨을 준비합니다. 저녁도 먹었으니 취침 전에 핫한 케.데.현 한편을 때려보고요. 먹고 놓고 보고 자고~



오늘의 취침 감독은 파랑입니다! 그런데.. 남은 아이는 16명인거 같은데.. 아빠는 왜 5명인거죠?



삼파 교관님의 기상 체조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산책을 시작합니다. 날씨도 경치도 정말 끝내줍니다!(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은비, 까비 하우스가 인증샷 찍는 곳인가요?)



다음 순서는 단벌게서 진행하시는 보물찾기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보물찾기 후 정리 및 청소로 1박 2일간의 수지꿈 첫 아빠

캠프가 종료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신선했고 우리 아이들은 물놀이가 20시간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아빠들이 직접 요리해서 먹일 거라고 엄마들을 안심시켜 놓고 튀김으로 세 끼가 나올 줄은 몰랐지만 아이들은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고, 아이들이 아빠의 3배수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잠자리가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꿀잠을 잤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수지꿈 학교라서 가능했고 산악회장 산과 여러 아빠들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상 곱며들고 있는 프로 n 잡러 신입 아빠 파랑의 아빠 캠프 후기였습니다!



개고 이래 가장 빛나는 아이디어로 손꼽힐 놀이기획입니다! _빙그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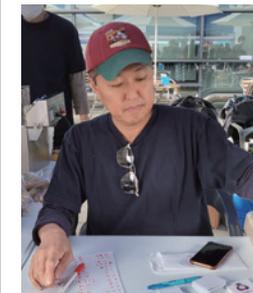
-일시 : 10/25(토)
-장소 : 수지구청
-참가인원 : 아빠 8명
-준비 과정 : 수지노인복지관의 참여요청 수락 ->대표님과 아브라의 의사결정 -> 참여인원 모집 및 단톡방 개설 -> 메뉴 선정 및 사전 논의 -> 사전회의(메뉴 확정) -> 열흘간 사전준비 -> 행사 당일 오전 8시 반 수지꿈 집결



메뉴는 치열한 경쟁과 회의를 통해 소떡소떡, 뉴욕핫도그, 감자튀김+츄러스로 결정했습니다. 학교에 모여 재료 준비 후에 수지구청으로 이동하여 오픈 준비를 하고 소세지와 감자튀김의 향으로 수지구민들을 유혹합니다. 갓 튀긴 감튀는.. 반칙인거 인정합니다. 파리도 없던 초반부 부진세를 딛고, 가장 먼저 완판된 뉴욕핫도그를 시작으로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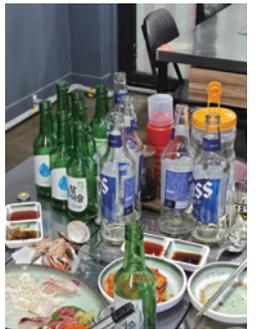
떡소떡, 감자튀김까지 완판되어 수지꿈 먹거리 부스는 조기에 종료했습니다. 수지꿈 분들이 방문해주셔서인지, 생크림이 잘생겨서인지, 음식이 맛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 팔았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수지구청 행사 주최 단체에 기부하고 남은 금액은 학교에 돌려드렸습니다. 엄청난 금액은 아



니었지만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엔 충분한 경험이었습니다. 중년남들의 먹가게는 계속 이어집니다.



메인길은 번외
이제 단합행사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 아침부터 고생한거 같기도..) 이걸 고작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제 기억은.. 어디에 있나요?

그들의 무기는 까만 마스크와 모자, 까만 장갑과 파리도 없는 초반부의 청결함이었다. 컨셉의 승리, 열정의 폭발에 박수를!

<당신의 빛으로, 눈이 부시다> 제8회 머내마을영화제

글_ 하이밍, 비아

늘 여름의 기운이 아직 가득한 가운데 온 동네가 영화관이 되는 머내영화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도 어김없이 열린 수지꿈학교 동네방네 상영관에서 <토토리! 우리들만의 여름>을 상영했으며, 남녀노소 팝콘을 손에 들고 두 자매의 순간순간에 웃음을 띠기도, 스릴러 영화 보듯 숨죽여 바라보기도 하였다.

본 행사 당일엔 전날 예보된 비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한데 모여 하늘에 가닿았는지 하늘은 또다시 우리 편을 들어주었다. 만세! 목양교회의 푸른 잔디마당을 중심으로 돌아보면 곳곳에서 숨은 그림처럼 수지꿈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무대에서선 밥챙알창에 속한 수지꿈 사람들의 하모니가, 먹거리 부스에선 지글지글 군침 도는 간식을 씹 없이 만들어내는 살림 소위들과 틈새 공략 홍보 소위들, 무적 맹달이 이끄는 청소년 홍보팀의 활약, 안전 관리 요원으로 동분서주한 아빠들, 보도보노가 이끄는 페이스페인팅 팀의 서희, 조희, 제인이가 꼬마 손님들을 맞이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올해 영화제를 더욱 특별하게 빛낸 수지꿈 친구들의 나도감독 진출! 작년 영화 출연 이후, 그 여름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웠던 아이들의 열정은 2025년까지 이어져 초중등 부문 출품으로 꽃을 피웠으니~ 배우인 동시에 작품을 이끌어가는 감독이 되어 참여하게 된 것이다. 영화 보고, 노래하고, 류승룡 배우(8회 머내영화제 홍보대사)도 만나는 등, 영화제 기간 꼬박 5일동안 마을 곳곳을 점핑하며 빼곡히 즐긴 우리들! 그 꿈결 같은 현장으로 가보자.



나도감독전-초등

동천동 파티마 수녀원의 푸른 잔디를 배경으로 레드카펫이 깔리고, 아이들의 밝은 표정만큼이나 꽃다발을 든 가족들 또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초등 부문은 특히 가족들의 참여가 한 손가락씩 얹어져 더 모미가 있었는데, 줄지에 영화에 출연할 수 밖에 없었던 부모들이 더 몸들 바를 몰라 했다. 발연기 논란에 휩싸인 아빠(오), 차마 자녀의 상영회에 발을 들이지도 못한 아빠(노바)도 있었다고. 아이들의 영화 제작은 그 여름을 통째로 집어넣었을 만큼 긴 시간 동안 수회에 걸친 배움과 노력의 결과였다. 톡톡 튀는 영화만큼이나 씨네토크 또한 뽕뽕 터지도록 재미있었는데 아이들의 재치 넘치는 질문과 표현력,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을 기울이며 환하게 웃어주는 어른들이 함께하여 더욱 소중한 자리였다.



-고양이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옆드려서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예요.(시연)
-옆드려서 먹어야 해서 무릎이 아팠어요.(채현)



<크리스마스의 선물> 김호연



-찍으면서 힘들었던 건, 한여름에 에어컨 소리가 녹음될까 봐 끄고 찍느라 더워서 힘들었어요.
-(실제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핀란드 수학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산타 할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화 속 호텔 이름은 디 엘레강스 스페셜티 플레이스 호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를 다 적어봤어요.(지민)
-서로 붙어보라고 해서 붙다가 서로 부딪치게 재미있었어요.(여울)
칼스. 목소리 연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지민)



-힘들었던 점은 노숙 아이를 찍을 때 여울 배우님이 신발을 벗고 찍어야 하는데 바닥이 너무 뜨거웠던 것과 핸드폰을 거꾸로 촬영해서 다 날려버리고 사람 머리도 다 잘라버려서 다시 찍어야 했던 거요.(수아)
-차와 비행기 소음이 들어서 촬영을 못하고 있었는데 "언제 촬영해!" 하면서 아이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봄)

나도감독전-중등



중등 상영회에서
는 사춘기 터널
을 지나고 있는 중등
아이들의 생각을 살짝
엿볼 수 있어 흥미진진
했다. 연후의 작품에서
는 좋아하는 사람의 이
상형에 걸맞은 사나이

를 탐구해가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결국
엔 사랑을 쟁취해내는 모습에서 코미디+로맨스+자
아성찰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 대견스러웠
다. 하온이 또한 중학생의 연애를 그리며 어찌면 첫
사랑이었을지 모를 최초의 감정과 상실의 아픔을 훗
날 LP판 정리하듯 무덤덤하게 정리하는 개구리의 모
습으로 마칭표를 찍어 주었다.
시네토크에서 그들은 한층 성숙하고 당찬 모습이었
으며, 초등 아이들과 캐스팅 문제, 장소 섭외, 촬영
기법 등 영화제작자다운 질문을 주고 받기도 했다.

-제 주변에 영화를 찍고자 했던
여자가 하온이밖에 없어서 서로 영화에 출연해
주자는 계약을 했을 뿐, 하온양에게 설렌 적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춤은 따로 연습한게 아니라 그냥 제 끼를
모두 발산하여 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청춘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정복구의 어린 시절을 찍었다.
-영화 찍는 것 중 힘들었던 건, 방학이라 친구들
이랑 시간 맞춰 모여 찍는 일이 어려웠다.

구월의 머내를 누비고 다니다 보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토끼 아저씨를 따라가다 보니 사나이기도
만나고, 산타도 만나고, 정복구도 만나고, 냥간식 먹고 있던 아가씨들도 만나고, 또..또..아마 타임머신도 탔던 것 같
죠? 초등 감독님들의 순수한 세계는 너무도 새것이고 낯것이어서 소중했고, 중등 감독님들의 세계는 오히려 지금의 나와 맞
닿아 있어서 가슴이 따뜻했으며, 청년 감독님들의 시선이 소외된 생명들로 향하는 모습에 잠시 먹먹해지기도 했네요. 피날
레를 장식하는 수지꿈 배우들의 등장에 다시 한껏 설레
었습니다. 감동마저 별점이 되어 줄 세워야 마땅할 세상
속에서 머내의 영화들은 그 순간의 한바탕 웃음이면 충
분했고, 서로 오가는 작품에 대한 질문들 속에서 스스로
의 도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누구나 감독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머내영화제. 그 모든 순간
빛났던 수지꿈의 이웃들을 추앙합니다! (토끼아저씨는
누구였을까요..^^)_조아



나도감독전-일반(스페셜)

지브리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떠오
르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구
성한다고 했다. 거장의 흐름처럼 느긋 또한
개구리의 표면적인 이미지에서 정복구를 끌
어냈다고 하는데. 느긋 거장은 앞으로도 10년은 거뜨히 수지
꿈 사람들과 함께 <정복구>를 찍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정복구(개구리)는 꿈 속에서 자신의 딸 하온이를 납치한 전
여친(올챙이)을 찾아간다. 왜 전여친은 전남친의 딸을 납치했
을까? 이쯤 되니 정복구와 전여친의 연애시절이 궁금해진다.
정복구는 어쩌다가 저런 쉽게 볼 수 없는 타입의 전여친과 만
났던 걸까? (사실 정복구의 차림도 범상치 않다.) 그 둘을 갈
라놓은 현 부인은 어떤 존재인가? (앞머리에 그루퍼를 말고
등장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분이었던가..) 이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듯 느긋은 시네토크를 통해 3편은 치경을 주제로
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다. 어서 내년이 되어야 할 텐데!
번외편 <괴한들의 수다>는 납치 도중 막간을 이용해 괴한들
이 주거나 받거나 하는 수다 타임이라는 설정이었지만 전원일
기 일용엄니를 떠올리게 하며 셋이 탄 트럭이 순식간에 경운
기로 변신해 눈발을 가로지르는 기분마저 들게 하는 구수하
고 푸근한 힐링타임이었다. 심지어 대본도 없는 레알 상황극
이었다고. 귀추가 주목되는 이들이 더 유명해지기 전에 사인
을 받아두어야 할 것 같다.



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었다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조연인데도 배우님이라 불러 주시
고, 어울리는 의상을 몸에 맞춰보고, 옷매무새를 잡아주시는 등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니다. 그저 재미로 가볍게 접근
했지만, 각본의 세계관부터 최고의 장면을 뽑기 위해 고심하는 촬영 현장의 치열함과 그 사이사이의 윗트까지.. 또 먼저 출
연해 보신 배우들의 연기력은 정말 기가 막혔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그렇게 좋으신지.. 나도 그 안에서 누가 되지 않도록 집중
했고 더 힘내고 뛰고 달려 보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몇 주 전부터 러닝이라도 좀 더 해둘 걸, 다리는 풀렸었지만 티를 안
내려 했죠. 각 감독님들은 구상 작업이나 후반 편집 작업에서 더 큰 압박감 속에 수고를 하셨을 텐데, 저는 그 덕에 좋은 추
억 갖게 되고 영화제에도 즐겁게 참석했었습니다.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학교의 모든 작품들은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런 분들께 감사의 말을 또 전합니다! _목성

수지꿈학교 당신의 빛으로, 눈이 부시다_이하주

머내마을영화제라는 작은 산에서 사부작사부작 재미 나게 놀자고 외치면 큰 메아리로 답해주는 수지꿈학교.. 참 고맙다.

나도감독은 제1회 머내마을영화제 집행위원 권철인 감독님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휴대폰으로 영화를 찍는다고? 하루 만에 찍을 수 있다고? 1분짜리도 영화가 된다고? 어머, 이건 꼭 해야 해!' 나의 첫 영화는 이렇게 엉겁결에 찍게 되었다. 머릿속에만 있는 대본으로 즉흥 캐스팅에 2시간 촬영, 초스피드 편집으로 얼렁뚱땅 완성하였다. 결과물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레디, 액션!'을 외치며 그 짜릿함은 이후에도 계속 나를 나도감독에 도전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머내마을영화제는 그동안 8회를 거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더불어 나도감독은 영화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마을과 관객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 나도감독은 세대별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지난해 <운기>에 출연했던 봄이와 수아가 촬영 중 잠시 쉬어갈 때 돌이켜 감독놀이를 하더니 "우리도 감독 해도 돼요?" 하고 물었다. 배우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감독이 되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가 반가웠다. 이런 날이 오리라 내심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나도감독은 누구나 될 수 있어!" 자신있게 말해 주었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우리들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 어느새 아이들이 대본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헉! 벌써...기특하다.. 이렇게 어리버리 나도감독은 초등 나도감독 강사가 되어 아이들을 만났다. 나는 아이들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즐기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초등 친구들 8명의 대본은 순수함을 간직한 기발한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잔소리 대마왕 엄마의 어린 시절이 궁금하다! 내가 만약 냥이 간식에 중독된다면? 우리만의 여행에서 벌어지는 모험.. 산타할아버지의 선물을 모조리 훔쳐라! 초등학생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참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배우 캐스팅과 거침없는 장소 헌팅 능력은 짱이었다. 나도감독 4세션 중 유일하게 순조로

웠다. 꿈나무 나도감독의 캐스팅에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배우 인프라는 놀랍고도 부러웠다. 강사는 그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격려하며 속도가 다른 아이들을 기다려 주는 것이었다. 작품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낸 독심 있는 초등감독님들, 정말 최고였다.

중등 나도감독은 조교로 참여하여 지켜보았다. 꿈틀꿈틀 올라오는 나조차 알 수 없는 반항의 에너지를 유쾌하게 풀어낸 하은 감독, 너무 이뻐서 꼬옥 안아주고 싶었다. 사춘기 첫사랑의 심리를 아무도 모르게 훔쳐본 것 같은 <사나이> 연후 감독의 매력에 푹 빠져 하마터면 팬클럽 만들어 응원봉 격하게 흔들 뻔 했다^^

나도감독을 진행하면서 수지꿈학교 교육의 내공을 볼 수 있어 참 뿌듯했다. 아이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 생각을 현실로 당당하게 표현해내는 능력,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아이들의 진솔함이 담겨있는 영화는 아름다웠다. 영화를 만드는 경험 속에서 우당탕탕 호기심을 키우며 성장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호사를 누렸다. 답답한 현실교육의 한계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보았다. 아이들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다.

머내마을영화제는 이곳이 수지꿈학교에게 즐거운 놀이터가 되기를 바란다. 머내마을 놀이터에서 재미난 것을 찾아 놀면서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기를.. 그래서 이곳이 지키고 싶고, 나의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곳이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작은 위안이 되기를.. 꿈꾸어 본다.



머내마을영화제

수지구를 중심으로 15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직접 무비큐레이터, 감독, 스태프로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주민주도형 영화 축제. 마을의 20여곳 공간에서 40여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지역 전체를 영화관으로 만든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는 <나도감독상영전>, 동네 사람이 무비큐레이터가 되어 영화를 선정하고 마을의 문화 공간을 영화관으로 변신시키는 <동네방네상영관>, 창의적인 연출과 실험적인 시도로 한국 독립영화제 미래 주인공들의 발판이 되는 <청년감독상영전>, 매해 선정된 주제가 드러나는 개/폐막작 상영,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 플리마켓 등으로 활기찬 야외영화축제가 있다. 머내마을영화제에서 수지꿈학교는 매년 점차 참여의 폭을 넓혀왔으며, 현재는 개인 및 학교 차원으로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사 전반에 걸쳐 함께하고 있다. 



같이 할래? 그럼 만들어! 우리들의 소모임

함께 하고픈 이들이 모여 누구든 만들 수 있는 수지꿈학교 소모임은 보물 중의 보물!! 2025년도에는 신생 소모임이 (삼파의 줄넘기 교실 / 그레, 달려보자) 2개나 더 생겨서 더욱 즐겁고 풍성해졌습니다.

정리_노랑, 그레



소풍 글_하람

안녕하세요. 수지꿈학교 1학년 정조를 아빠 하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지꿈 학교의 동아리 중 소풍에 대해서 소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풍을 처음 만난 것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열린 단오제 행사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과 장단을 배우며 '어울림'을 경험했고, 단심줄 행사에서는 선두에 서서 길놀이를 이끌며 풍물이 주는 에너지와 공동체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수지꿈학교 풍물패 '소풍'은 학생·학부모교사·지역 주민이 함께 활동하는 공동체 풍물패입니다. 2018년 수지꿈 교육공동체 안에서 시작된 작은 장단 모임이 이제는 학교와 마을을 잇는 상징적인 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에는 학부모 몇 분이 모여 장단을 배우는 소모임이었지만, 풍물이 주는 흥과 에너지가 알려지면서 이웃과 마을 주민까지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소풍은 자연스럽게 '마을교육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대표적 활동이 되었습니다. 소풍은 삼채·칠채 등 기본 장단을 익히고 합주를 만드는 연습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그렇게 준비된 소풍은 학교 축제, 학예회, 마당놀이 무대에서 신나는 공연을 선보이며 학교 문화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머내만세운동 기념 걷기대회처럼 지역이 함께하는 행사에서는 늘 선두에서 길놀이를 이끌며 분위기를 돋웁니다. 아이와 부모, 교사와 이웃이 한자리에 모여 장단을 나누는 이 시간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닌 관계를 엮는 공동체의 장입니다. 소풍의 장단은 학교 축제뿐 아니라 소식지와 여러 소개 글 곳곳에도 등장합니다. 그만큼 소풍은 수지꿈학교를 대표하는 공동체이자, 마을과 학교를 이어주는 따뜻한 울림입니다. 



독서모임 글_당근



수지꿈 독서모임을 소개합니다 수지꿈 독서모임은 우리 학교의 전통 있는 소모임입니다. 기존에는 '주책(술과 책)'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요. 작년에 독서모임을 새로 꾸리면서 그 이름을 이어받을까 고민했는데, 몇 번 모이다 보니 술을 거의 안 마시더라고요. '이 이름을 쓰는 게 맞나?' 싶어서 굳이 새로 짓지 않았고, 그래서 어중간한 이름인 '독서모임'이 아직도 임시 이름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요 매월 초, 모임원들이 모인 카톡방에서 각자 관심 있는 책을 추천합니다. 그중에서 투표로 한 권을 정하고, 한 달간 읽은 뒤 월말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요. 보통의 독서모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발제자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서로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내어주시는 분들이 가벼운 간식이나 차를 가져오셔서 다과회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지요.

함께하는 사람들 어떤 이야기든 학교와 연결해 주시는 '네로', 일반 학교에 아이를 오래 보내셔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분위기와 상황을 들려주시는 '그레', '조아', 많은 책을 읽으시고 그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넓은 시야를 갖게 해 주시는 졸업생 학부모 '부영이', 이야기가 한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갈 때 다른 방향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나디', 차분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일랑', 넓은 지식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길냥', 남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강물' 정식 멤버 외에도 무아, 비아, 별 등 많은 분들이 가볍게 오셔서 이야기 나누고 가셨어요.

2025년, 이런 책들을 읽었어요
- 교육/성장: 「최재천의 공부」, 「어른의 영향력」,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 「경험의 멸종」
- 사회: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문학: 「졌으면 그만이지」, 「눈물꽃 소년」
아무래도 학부모 모임이다 보니 교육과 성장에 대한 책이 가장 많았고, 사회에 대한 관심이 담긴 책도 세 권 읽었습니다. **책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처음 독서모임을 시작할 때는 책 이야기 재미있게 두어 시간 하고 술 한잔 마시러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모이면 3시간은 기본이고, 4시간이 넘게 이야기할 때도 많답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즐거움에 술은 뒷전

이고, 항상 이야기만 실컷 하고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학교와 교육,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매번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불안과 해결 방법, 아이들이 커가면서 성장 하는 모습, 집에서는 알 수 없는 내 아이의 모습과 장점들을 서로 이야기 하면서 수지꿈 교육에 대한 확신과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보람찬 모임입니다.

책이 학교를 바꾸기도 해요 실제로 작년에 읽었던 「불안세대」를 계기로 수지꿈 아이들의 핸드폰 사용과 미디어에 대한 고민을 학교 안에서 화두로 던지고, 함께 생각해 볼 계기를 만들었던 활동도 있었습니다. 「최재천의 공부」와 「경험의 멸종」을 읽고는 수지꿈의 교육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나오는 반응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생각하는 방식이 꽤 논리적인 편이라 「눈물꽃 소년」 같은 책을 읽고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날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날로 기억됩니다. **부모도 성장하는 학교**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으니 혼자 읽었을 때는 생각해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관점과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지꿈 선배들이 말하는 '부모도 성장하는 학교'라는 이야기처럼, 저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저학년 학부모님들, 환영합니다 미래와 학교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모임이야말로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물론 평일 저녁에 모이다 보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시간과 상황이 될 때만 편하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중 완독하지 않으신 분도 절반 정도 된답니다. 책을 다 읽는 것보다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신인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이에부는바람

글_ 셋별

안녕하세요!
 발달장애가족 자조모임 <사이에부는바람>을 소개합니다.
 2024년, 추운 겨울의 어느 날 느티나무도서관에 멧개와 빙그레, 셋별과 조약돌, 그리고 간장(관장님)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달장애가족이 도서관에 더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작은 궁리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도서관은 왠지 조용조용, 살금살금, 가만히 앉아 책만 읽어야 할 것 같은 공간이라 움직임과 마음의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은 문턱에서 한 번 더 망설이게 되곤 하지요. 그런데 우리 동네 느티나무도서관은 그런 망설임이 무색하게 두 팔을 활짝 벌려 발달장애가족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 환대에 힘입어 “도서관에서 발달장애가족들과 함께 밥 먹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환대의 식탁> 행사를 열었습니다. 크게 흥분한 것도 아니고, 화려한 행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지만 마을과 서로의 환대가 필요했던 가족들이 알음알음 모여들어 어느새 16여 가족, 40여 명이 함께하는 작지만 제법 큰 모임이 되었어요.
 사이에부는바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마을의 여러 공간에서



월례모임을 이어가고 <우리들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주 2회 방과후·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스스로 생활캠프>를 열어 아이들만의 1박 2일 캠프도 함께하고요. 또 사이바람의 든든한 마을이웃, 느긋이 이끄는 <틈사이 글쓰기 모임>을 통해 부모와 이웃의 마음을 차분히 보듬고, <발달장애 교육공동체 준비모임 : 브라보 모임>을 열어 청소년기 아이들의 교육공동체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이에부는바람은 손 맞잡은 우리 사이에 사랑의 바람이, 성장하는 발달장애아동에게 희망의 바람이, 이웃으로 만나는 마을 안에 공감과 나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꿈꾸며 함께 걸어갑니다. **🌿**



실과함께라면

글_ 나디

실과함께라면 뭐든 뜬다! 뜨다 배고파지면 먹는다, 라면! 수지꿈의 뜨개모임 '실과함께라면'입니다. 2025년은 실과함께라면이 숨고르기를 한 해였습니다. 2024년에 처음 모임을 시작하면서 의욕에 넘쳐 저마다 열심히 배우고, 뜨고, 돈까지 벌어보자며 달렸던데, 원없이 열정을 불태우고 나니 2025년에는 차분히 실력을 쌓고 나를 위한 뜨개를 뜨며 충족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죠. 내 속도에 맞춰 원하는 작품을 만드는 시간은 그 자체로 휴식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잘 땀다, 금손이다.. 라며 서로 폭풍 칭찬을 해주면서 긍정 에너지도 만땅으로 채웠어요. 이렇게 내실을 다졌으니 2026년에는 더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낼 수 있겠지요? **🌿**



그레,달려보자

글_ 그레



만약에 30만년전 호모 사피엔스가 타임머신타고 우리를 만난다면 이렇게 얘기할거 같아요. “야! 요즘 니네들 너~~~무안뛰는 거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요. 사실 우리들의 몸은 몇십만년동안 뛰어다녔고 달리기에 적합하게 진화되었다고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안 달리고 가만히 있으면 몸에 병 날 수도 있다는 것.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고 멀리겠나요? ㅎㅎ
 저는 4년전에 처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km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나갔어요. 빨리도 뛰어보고, 아침에도 뛰어보고, 저녁에도 뛰어보고, 자세를 바꿔서 뛰어보고, 꾸준히 일주일에 3~4번 뛰다 보니 몸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체력은 말할것도 없고, 지방도 빠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면역력도 증가되고, 심폐기능도 좋아지고,헉헉,, 너무 많이 다 쓰기 힘드네요.
 그리고 마라톤 대회도 참가하기 시작했어요.(10km, 하프) 대회를 나가보니 같이 달리는 또 다른 매력을 느꼈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것을, 나 혼자 하면, 아쉽지 않겠습니까? 때마침 러닝복도 불고 있고 건강에 관심도 많아지는 여론에 힘입어 ‘그레, 달려보자’ 달리기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9월에 시작해서 11월 중순까지 3개월 반정도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탄천에 모여 달렸지요. 제 경험을 토대로 ‘건강한 달리기+기분좋은 달리기+부상없는 달리기’를 해야겠다 생각했



고, 그래서 3km 9분대 페이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거리를 늘리기도 하고, 그룹을 나눠 달리기도 하고 있는데, 어른들과 아이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뛰다 보니 재밌기도 하고, 힘도 나고,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특히 수지꿈 아이들의 에너지는 역시 엄청나더군요. ㅎㅎ
 아쉽지만 너무 추운 겨울은 잠깐 쉬고 따뜻해지는 봄에 ‘그레, 달려보자’는 다시 시작할 거구요. 2026년에는 ‘제 2회 마이프이스 달리기대회’를 개최할거고 지역 마라톤 대회에 동반 참여하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무릎이 나갈거 같아서..., 못될거 같아서... 아직 달리는걸 주저 하시는 분들!! 서두에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달리는 DNA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그레, 한번 달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참여해 보세요. 지친 몸과 마음이 180도 달라질 겁니다. 꼭 저희 모임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시간내어 달려보시길 희망합니다. **🌿**



[함께하는 이야기]



밥챙알챙 글_도우

안녕하세요. 따뜻한 울림이 있는 가족 합창단, 밥챙알챙을 소개합니다. 저희 밥챙알챙은 매주 목요일, 수지 느티나무 도서관에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지꿈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목소리를 맞춰나가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행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는 밥챙알챙은 매주 목요일마다 모두의 목소리가 떠나갈 듯 열정적



아빠밴드 글_공간차이

우리 수지꿈학교의 소중한 행사가 있을 때 감초 역할을 하는 '수지꿈학교 아빠밴드'를 소개합니다. 아빠 밴드가 결성된 지는 8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노래를 좋아하고 취미로 악기를 다루는 아빠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2018년 수지꿈학교 마무리 잔치때 처음 시작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경기대안학교 합창제' 같은 큰 무대에서도 공연을 하게 되었고, 수지꿈학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빠 밴드가 되었습니다. 아빠 밴드는 악기를 다루지 못해도 환영합니다. 언덕은 쟬베를 아빠밴드에서 처음 연주해봤고, 강물 같은 경우도 처음 기타를 구입하여 아빠 밴드에서 실력을 길렀습니다. 아빠 밴드는 프로페셔널 하지 않아요. 틀리면 틀리는 대로 웃으면서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수지꿈 공동체 안에서 조금이나마



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와 부모님의 깊은 목소리가 어우러질 때, 그 어떤 소리보다 감동적인 화음이 탄생합니다. 저도 합창단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채아가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의 행복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노래하고,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아이와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경험이기도 하고요. 혹시 합창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노래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밥챙알챙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이 주는 즐거움, 그리고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추억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 밥챙알챙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매주 목요일,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밥챙알챙이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



기쁨을 주는 역할에 모두들 만족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현재 아빠밴드는 10명의 아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구리,공간차이,마일드,집냥,생크림,강물,별,언덕,너부리,파랑) 아빠 밴드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자유인'을 꿈꾸며 활동 하고 싶은 아빠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



삼파의 줄넘기 교실 글_삼파

안녕하세요. 삼파입니다^^ 소식지에 글을 한편 써달라는 노랑의 부탁을 받고 글재주 없는 제 자신을 몸소 느끼며 몇자 적게 되었습니다. 처음 돌봄비에 고심하는 단단의 고민을 뒤로 하지 못한채 줄넘기수업을 해보자 제안한 저~~~~ 그렇게 수지꿈 줄넘기 동호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줄넘기 동호회를 해보자 제안했지만 과연 저녁 늦은시간 아이들이 쉬고싶지 않을까? 학교가 집 옆에 있는것도 아닌데 밤마다 부모들이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번거로움이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인원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하는 걱정이 컸었는데, 그래 많이 안모여도~~~~ 우리 아이 셋이라도 시작하자 하는 마음이 컸었네요. 그런 걱정과 다르게 시작부터 많은 관심에 오히려 부담감이 커졌었네요~~ 줄넘기 수업은 2025년 9월2일부터 10월28일까지 매주 화요일 19:30 ~ 20:30으로 8회 과정을 계획했지만 아쉽게도 건기여행관계로 1회가 쉬게되어 총 7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9월2일 첫수업일 6세 요안이부터 학부모 소머즈, 올챙이까지 한 20명이 모였는데 우듬지터+우분투 공간이 꽤~악 찻네요^^ 그리고 보니 우리 아이들의 학년이 아니거나 우리 아이와 같이 자주 놀지 않은 아이들은 제가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네요~~ 이건 수지꿈 부모의 자세가 아니라는 부끄러움과 함께 우리 아이와 같이 지내는 수지꿈 아이들에게 미안함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제가 줄넘기 선수만큼 잘해서 수업을 하는건 아니지만 아이



들이 운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신체건강과, 교우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달성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허나 매주 운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네요~~ 어제보다 하나라도 더 하려는 모습.....무엇보다 이 시간이 엄청 기다려진다는 아이들의 모습.....총 7회의 수업이 끝나고 과자파티를 하며 종강을 하였지만, 왠지 제 눈에는 아이들의 아쉬움이 커 보였네요~~ 줄넘기 수업이 이제 끝났다는 아쉬움~~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삼파 내년에도 꼭~ 줄넘기 해주세요~~~ 그래 꼬~옥 같이 하자^^ 줄넘기 수업이 끝나고 난뒤~~ 수지꿈을 돌아보며 제가 수지꿈에 온지 이제 2년이 되었네요~~ 24년도는 세 아이 편입학 시키고 정신없이 카톡 올려대다 지나갔는데, 25년도는 수지꿈을 조금은 알아가는 한 해였던것 같네요. 대안학교에 대해



아직은 뭐라 정의내릴 수는 없지만,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덕분에 행복한 유년시절을 보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단한테 미안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늦게 수지꿈에 와서 미안하고~~ 늦게라도 수지꿈을 알게되어서 사랑한다고~~~ 사랑해 단단^^ 🎶



민들레모임 글_토끼



민들레모임은 학교생활과 육아의 궁금증이 있을 때 소통해주는 해결사 같은 모임입니다. 민들레가 계간지로 바뀌며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다소 줄었지만,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책모임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민들레모임에서는 우리를 이야기,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학기마다 민들레 정기구독 안내도 드리고 있으니 올해는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요~^^

모임후기

산뜻_ 이름도 예뻐던 밤민들레. 1학년부터 졸업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를 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아이 너머의 날들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웃고 조금 울고, 아주 다정한 시간이었어요. 외로이 날아다니는 훌씨들이 모여 함께 피어나는 정다운 밤민들레입니다. 함께해요!

여백_ 민들레 첫 모임날은 2016년 11월 10일이었다. 민들레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소모임 형식이 아닌,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는 모임을 생각하며 만들었는데, 벌써 10년이 되어간다. (2026년 11월 10일에 10주년 기념 파티를 해야 하나?) 졸업 후, 해바라기에 이어 토끼가 모임을 맡아서 이끌어 갔는데, 올해 다시 함께하게 되었다. 부모들과의 소통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돌봄 부모들을 대상으로 저녁 민들레 모임을 진행했고, 토끼와 이야기해서 기존의 모임과 합쳐 확장하기로 했다. 우리집에서 만나는 이유는 소통의 공간인 사랑방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이다. 민들레모임이 거리낌 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며 심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길 바란다. 3개월마다 책이 바뀌고, 이야기를 펼치기 좋은 주제가 많다 보니 우리의 수다는 끊임이 없다. 아이들의 연령대가 다양한 엄마들이 참석하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고민이 별 것 아닌 일이 되어버리거나 해결하는 팁을 얻기도 한다. 이후엔 아빠들의 참여도

있었으면 좋겠고, 낯설어서 혹은 시간이 안돼서 문을 두드리지 못한 분들이 한번씩 마실 온다는 생각으로 참여했으면 하고 바라본다.

딩동_ 매번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드디어! 그것도 연말에! 너무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민들레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돌봄에 대해, 또 우리에게 대해 많이 듣고 나눌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꼭 함께 할게요.♡

비아_ 왜 이렇게 민들레만 가면 우는지.. (마성의 근황 토크) 무슨 이야기든 가만히 들어주고 손 잡아주는 공간이니까요. 밤민들레 만들어달라고 징징거린 보람이 듬뿍~ 민들레의 특징점은 정해지지 않은 구성으로 누구든 걸음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비슷하고 상이한 경험과 고민들이 서로 엮이면서 대화에 역동을 만들어 가게 돼요. 신입이나 저학년에게는 수지공 적응기간에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특히 울고 싶은 사람은 꼭 들러보기! 다같이 울어드립니다~



동동_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부모로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뜻깊은 자리였어요. 아이의 속도, 학교의 의미, 그리고 어른이 아이 곁에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민들레를 통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쉽게 조언하거나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공감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 불안, 기대까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존중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만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완벽한 부모가 되지 않아도, 계속 고민하고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남습니다. 민들레모임은, 거창한 해답을 주기보다 부모로서 다시 숨을 고르고 아이를 바라볼 여유를 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단단_ 2학년 솔아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학교에서 지낸답니다. 긴 시간 학교에서 지내야 하는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지만, 돌봄 안에서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돌봄민들레 모임을 통해 엄마로서 미안함을 덜 수 있는 힘을 얻고, 학교를 더욱 사랑할 용기도 얻었습니다. 위로와 응원이 함께하는 민들레, 참 고맙습니다.

너무 애쓰기 않아도 ♡
조자처럼 빛나는 너.



잔디_ 돌봄 민들레에서는 돌아가며 책을 낭독한 뒤, 오늘날의 삶과 교육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각자의 삶에 적용하여 생각을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지혜와 힘을 얻고요. 때로는 고민을 나누며 불안했던 마음을 한층 내려놓기도 하지요. 쿠션처럼 편안하고 마음도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면 민들레 모임으로~ **꿈**



Special Thanks to



대표교사 세계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세계로와
함께합니다! 사랑해요! 세계로~

느긋 마일드, 수지꿈에서의
마지막 1년! 더 즐겁게 놀자.
박하은, 남연후, 김조희, 장은혁
9학년 파이팅

장세정작가님 신간 축하합니다!
《여기서 자두 돼?》
수지꿈에서 행복해도 돼♡

수지꿈이여 영원하라

언젠가 돌아올 무아투어,
영원하라!

본마을 최고미인 이미숙여사님
환갑 축하드립니다!!
사위 올림_바위

고기리에도 있다!
자연의 향기를 배우고
힐링받는 흥힐러 아로마 공방
_엠제이

세기의 아빠모임장
삼파의 2026은 찬란할지니!

금비(까비)의
세발까마귀어린이집
위원장 퇴임을 축하합니다

게릴라성 간단 콘서트전문 밴드!
애/키/만/사
우리모두는 애 키우다 만난 사이
함께 해요!!!

췌, 지금은 나만의 시간 여행 중!
(모임대관도 환영)
죽전 단국대 근처 무인
'가까운 공유서재'_보노보노

소머즈비아 사랑해요

제주 라파엘농장으로
굴따러 오세요~
민박, 야영, 오름투어 대환영

나와 너를 이해하는
기질 그림카드 상담_잔디

장원영보다 노랑!
노랑이 제일 예뻐_파랑

채강도서관
이채현&강여울의 만화제작소



후원해주신 분들

오늘, 아브라, 익명의 산타, 아로아, 네로, 은비, 바위, 파랑, 아빠모임, 무아
낭구, 보노보노, 하이밍, 잔디, 박스비, 엠제이, 소머즈, 럭키반, 개구리, 감사합니다!

2025 편집을 마치며...

그레 _ 소식지를 만들면서 수지꿈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
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도 너무 좋았습니다.

잔디 _ 즐거운 에너지로 이끌어주신 비아!
탄탄하게 받쳐주신 소머즈! 그리고 편집의 손길들 위에
작은 손 보탬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

아나니 _ 한 권의 교지에 많은 마음과 노력이 담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

파랑 _ 노랑이 제일 예쁘다!

느긋 _ 비: 비교적
아: 아무탈없이
만: 만족스러운 소식지를 만들다니,
세: 세계 최강 '모두의 편'

하이밍 _ 언제나처럼 수지꿈의 애정어린 마음들이 모
여 어여쁜 소식지가 완성이 되어가네요. 받아든 순간 또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될까요.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
다~*

일령 _ 수지꿈의 기록 한권에 제 마음도 살짝쿵 엮는 은
밀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

소머즈 _ 소식지의 '고인물'이었던 제가 6년 만에 드디
어 맑은 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위원장 직함을 떼고 참여
한 첫 작업이었는데, 역시 '함께'의 힘은 위대하더군요.
매번 마감의 압박을 홀로 견디던 시간보다, 옆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이번호가 제게는 훨씬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전임자의 참견을 좋게 승화시켜준 편집위원장
비아와 편집위원 여러분과 함께한 이번 소식지가 제일 큰
여운으로 남을듯합니다! ♡

울챙이 _ 긴시간 소머즈 홀로 짊어지던 편집의 압박을 이
제는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
합니다! 고인물과 맑은물이 만나 잘 흘러가게 지휘해준
비아! 발뻠고 편히 자요. '함께'의 저력을 보여준 모두의편
이제...맛난거 먹으러 함께♡

라랄라 _ "모두의 편"이라니... ♡
이끌리듯 들어온 편집위에서 함께하는 힘을 듬뿍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께주셔서 감사합니다.

샛별/보름달 _ 소식지에 작게나마 힘 보탬 수 있어서 감
사했습니다:) 아이들 그림과 마음을 음미하는 시간 참
좋았습니다

비아 _ 소머즈가 그간의 짐을 내려놓길 바라는 마음으
로 들었던 손을 잘라버리고 싶을만큼 대책없는 시작이
었습니다. 걸음마 걸듯 내내 주춤하던 자격미달 신생위
원장의 손을 꼭 잡아주신 '모두의편'. 덕분에 수지꿈이
라는 익숙한 나라에서 새로운 탐험을 한 듯 합니다. 사
방에서 한 손가락씩 듬뿍 얹어주신 마음들로 배불렀고,
내놓은 것보다 되려 받은 것만 많은 여정이 되었습니다.
소식지작업은 서로를 읽고 잇고 칠하며 '우리'를 찬찬히
보듬어안은 과정입니다. 구석구석 매만지고 엮어내다
문득 예상 못한 애정이 후두둑 떨어지는 느낌을 당신도
가져보길 바랍니다. 비아가 했으니 모두가 할 수 있습니
다. 편집위원장 문턱 깎기, 성공! (노른자 편집부 그레,
산뜻, 울챙, 그리고 위원장 바뀐거 만나실게 중심을 잡
아주신 소머즈께 각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산뜻 _ 가진 건 애정 뿐이었는데 능력자들 틈에 끼워주
셔서 감사했어요. 수지꿈을 더 구체적으로 애정하게 되
었습니다. 까♡

은비 _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 많이 배웠습
니다. 시종일관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이끌어준
비아와 "모두의 편" 존경스럽습니다.



고기동 533번길 30
031.264.4552
www.sujidream.org

